금주법구
세상에도 이와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씨앗을 뿌려 가꾸지 않고,
땀을 흘려 노력하지도 않으면서
좋은 결과만을 빨리 얻고 싶어합니다.
-백유경-

현대불교

봉사하는 불교 실상선원 02)745-8503
011)286-2680
서울 성북구 성북동
실상선원
무료복지관이 있는 절 건축사
041)734-2680
대전 논산시 연산면 송정리

대표전화 02-737-8881 구독문의 02-737-0090 www.buddhanews.com THE HYUNDAE BULKYO 불기 2544년(서기 2000년) 12월 20일 수요일 (주간) 제 299 호

자기를 바로 봅시다

免



불교 문화재를 얘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비지정문화재와 폐사지 문제다.

지난해 조계종 문화부에서 펴낸 〈불교문화재 도난백서〉를 보면 전체 불교문화재 도난 사건의 94.8%가 비지정문화재로 밝혀질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다. 역시 조계종에서 발간한 〈불교사원지〉는 전국에 흩어져 있는 폐사지가 3천2백여 곳이 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문헌조사만 실시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밝혀지지 않은 폐사지는 이보다 더 많다는 게 관련 학계의 의견이다.

다행히 비지정문화재

문화재 관리

인력·예산 확보 안되니 현황 파악마저 제자리

의 보호를 골자로 한 문화재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처리를 기다리고 있고, 전국 사찰의 문화재 현황 파악도 느리지만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폐사지 조사는 아직까지 문헌조사에 머물고 있어 실제 위치와 문화재 소재 여부에 차이가 나는 곳도 나타나고 있다.

전국적인 성보문화재의 현황 보고서가 일제 강점기 때 조선총독부에서 실시하고 난 뒤로는 한 번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사실을 보면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문제다. 효율적인 성보의 보존과 관리를 위해서는 이를 전산화하는 작업 역시 병행되어야 함은 말할 필요가 없다. 가장 필요한 것은 예산 확보다. 문화재 현황 파악이나 폐사지 조사가 제자리 걸음을 면치 못하는 데는 그만큼 필요한 예산의 확보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는 게 큰 문제라고 문화재 관계자들은 말한다.

문화재 관련 전문인력의 확충 역시 그 중요성은 아무리 말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올 들어 늘어나고 있는 성보박물관의 경우 성보의 보존 측면에서 바람직한 일이지만 전문 학예연구사 없는 박물관은 단순히 유물을 모아놓는 장소밖엔 되지 않는다. 학예연구사의 경우 사찰의 대소사에 끌려 다니지 않고 전문인력으로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뒷받침이 있어야 함은 물론이다.

권형진 기자(jinny@buddhapia.com)

불교서적의 모든 것! 여시아문
국내최대 인터넷불교서점 여시아문닷컴
www.yosiamun.com
Tel:02)737-0695 Fax:02)737-0696

사찰 신도교육 의무화

조계종 내년 3월부터 입문-기본-전문-지도자 교육

1차 100개 사찰·지역서 실시

내년 3월부터 신도교육이 전국 조계종 사찰에서 의무화된다.

조계종 포교원(원장 정련)은 내년 3월부터 전국 100개 사찰 및 지역에서 신도 입문교육, 기본교육, 전문교육, 지도자교육을 실시키로 했다.

이에 따라 신도교육위원회 운영과 기본교육 정착을 위한 예산으로 1억3천500만원을 책정한 포교원은 교육단계별 교육기관의 확충 및 인가와 올해 10월부터 집필에 들어간 입문-기본-전문교재 교안발간을 내년 2월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포교원의 신도교육 방침은 불자들에게 올바른 신행관을 확립시켜 평생동안 신행활동을 하며 종단과 불교, 사회발전에 이바지하게 한다는 취지에서 획기적인 일로 받아들여진다. 또 각 사찰과 교양대학에서 진행중인 교육내용이 각기 상이함에 따라 파생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완하여 신도의 입문과 교육, 조직, 법계, 의례의식 등이 하나로 통일되는 성과도 예상된다.

신도교육위원회는 빠른 시일내 지역별 사찰별 조사작업을 실시하고, 상반기 중 실시를 희망하는 사찰 및 지역의 신청도 자율적으로 받겠다는 방침이다.

교육은 대규모 사찰의 경우 사찰에서 교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소규모 사찰은 지역별로 통합, 포교원 인가 교육기관 위탁 방법을 모색중이다.

또 시간적인 제약으로 강의에 참가하기 곤란한 불자들을 위해 강의테이프제작 및 불교TV 강의도 검토키로 했다.

신도법에 따른 신도교육은 입문교육의 경우 입교교재를 통한 사찰소개, 스님과 부처님 이해, 불자예법, 삼귀의 교육이 2회에 걸쳐 진행되며, 삼귀의 의식 실시 후 신도카드 작성, 신도회 및 기본 교육단에 권제되도록 하고 있다.

불교의 기초교리 및 수행법을 배우고 불자로서 삶을 익히도록 하는 기본교육은 불자예법, 불교의례, 부처님 생애, 불교사, 기초교리, 불자의 길, 사찰의 이해, 기초 수행법 등의 과목으로 총 12회(3~12개월) 진행된다. 교육 후에 수계식이 거행된다.

기본교육을 이수한 신도는 신도에 대한 전문적 교육과 올바른 포교사 양성을 위한 전문교육을 포교원이 인가한 전문교육기관에서 받게 된다. 최소 1년 과정의 전문교육 이수 불자들에게는 포교사고시 응시자격이 주어진다. 또 포교사로서 3년이상 전문포교분야에서 활동한 불자는 포교원에서 지도자 교육을 받고 전교사 자격을 획득하도록 하고 있다.

조계종 포교원장 정련스님은 "신도교육이 내년부터 체계적으로 실시되게 됨에 따라 새로운 신도와 기존신도에 대한 교육이 이뤄지게 됐다"며 "교육을 받은 불자들이 올바른 불자로 성장해 종단의 토대가 구축됨은 물론 직장 등 사회에서 불교 신행활동을 활발히 하는 계기가 돼 전반적인 불교발전을 이루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3면〉

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작은 정성도 모이면… 북한의 어린이를 돕기 위한 '통일돼지저금통 모으기'에 동참한 정진이네와 유수스님이 저금통을 깨며 즐거워 하고 있다. 한국JTS(이사장 법륜스님)가 돼지저금통을 통해 모은 금액은 3000만원. JTS는 이 돈을 이달 말 북한의 고아원과 어린이 구호 활동에 쓴다. 사진=고영배 기자

"문화재보호법 개정 신속처리"

조계종, 국회에 요청

조계종 총무원장 정대스님은 12일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및 소속의원들에게 공문을 보내 문화재보호법 개정안의 신속한 의결을 요청했다.

정대스님은 공문에서 "문화재보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후 본종 산하 사찰의 비지정문화재 도난이 급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문화재보호법 개정안이 신속하게 심의·의결 처리되어 더 이상의 문화재도난을 막을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비지정문화재 도난방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한 문화재보호법 개정안은 지난 8월 26일 문화재청이 입법예고하고 국회에 제출했으나, 여야의 대치상태가 깊어져 해당 상임위에서 심의조차 하지 못했다. 문화재보호법 개정안 입법예고 후 전국 8개 사찰의 비지정문화재 22점이 도난 또는 파손당했다.

정대스님은 또 "관련 법률의 강화와 함께 검찰에 문화재사범 전담반 설치, 문화재청 단속반 강화, 도난 문화재의 유통근절 등의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성운 기자

종교인 윤리헌장 선포 실천강령 8개항 채택

"우리 종교인은 과괴된 자연과 환경을 회생시키며 나아가 모든 생명체의 보전과 번영을 위한 생명윤리를 적극 실천한다."

불교 개신교 원불교 천도교 등 10개 종교지도자들이 새천년 종교인 윤리헌장을 선포했다. 9개 종교지도자들은 15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한국종교협의회(회장 이재석) 주최로 열린 윤리헌장 선포식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변화와 진보가 가속될 21세기에 인류에게 보다 미래지향적이고 보편적인 세계윤리가 요청되고 있다"며 생명·과학·문화·가정과 관련된 8개항의 실천강령을 발표했다.

이날 선포식에는 조계종 교육원장 일면스님, 천태종 총무원장 운덕스님, 진각종 통리원

☞2면으로 계속

'해인골프장' 고법판결 앞두고 불교계-환경단체 바쁜 움직임

"1심판결 뒤집힐라" 재판부에 진정서

해인골프장 건설 관련 항소심 선고공판을 앞두고 교계와 환경단체들이 담당재판부에 진정서를 보내는 등 바삐 움직이고 있다.

조계종 총무원과 환경운동연합은 13일 "사업주(가야개발)는 막대한 자본을 앞세워 서울소재 거대 로펌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2심에서 1심의 판결 내용을 뒤엎으려 하고 있다"며 담당재판부에 진정서를 보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조계종은 교구본사 및 주요 사찰 주지, 12교구(해인사) 본말사 주지스님들이 서명한 진정서를 재판부에 제출한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15일 100여개 환경·시민단체 대표자들의 서명을 받은 진정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총무원은 재판부에 보낼 진정서를 통해 "가야산의 생태계 및 환경 파괴, 국립공원제도 도입 취지의 유명무실화, 세계문화유산인 팔만대장경과 해인사의 사찰환경 훼손 등 여러 분제로 인하여 해인골프장의 허가는 취소되어야 한다"며 "기업과 지방자치단체의 경제적 이윤 추구가 국민의 환경권에 우선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는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가야개발은 지난 해 국립공원관리공단이 골프장 건설 기간 연장을 불허하자 지난 1월 서울행정법원에 불허처분 취소청구 소송을 냈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이 원고패소 판결을 내리자 이에 불복하여 서울고법에 항소했으며, 다음 달 19일 선고공판을 앞두고 있다. 정성운 기자

퇴행성 관절염 무료수술

"관절염 앓는 노스님이나 불우신도를 주위에서 추천해 주세요"

현대불교신문은 지난 해에 이어 노스님과 노인불자 및 가정형편이 어려운 불자들을 위한 무료 의료지원사업을 벌입니다. 가천의대 동인천 길병원과 공동으로 주최하는 이번 의료지원사업은 노인이 되면 가장 고통스러운 퇴행성 관절염(무릎·엉덩이관절)에 대해 이수찬 원장과 담당 전문교수가 직접 수술을 집도하게 됩니다.

♦지원 규모: 6~8명 정도
♦지원 대상: 노스님, 가정 형편이 어려운 불자
♦지원 내용: 퇴행성관절염, 류마티스관절염으로 통증이 심해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사람, 외견상 심하게 절뚝거리거나 다리가 휘어진 사람
♦구비 서류: 아픈 부위의 X-Ray 사진, 간략한 의료지원신청서(소정양식)
♦진료비 무료: 외래 및 입원 수술비 전액 단, 식대(1일 13,000원 안팎) 및 부동주사비는 본인이 부담.
♦접수: 현대불교신문사(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전화 (02)722-4162

주최 : 현대불교신문사·동인천 길병원
후원 : 가천문화재단 (이사장 이길녀)

가야산 법보종찰 해인사 대범종



천년을 이어갈 맑은 「범음」
장인정신
종종사는
오직 鐘만을
생각합니다.



鐘宗社
서울 사무실 : 서울 종로구 견지동 110-40 청송 302호 ☎ 02)725-0878
공 장 : 충북 청원군 북이면 석성리 460 ☎ 043)212-0903

사 설

신도교육 미래불교 사활걸려

어떤 종교가 건강한 모습으로 있는가는 결국 그 종교의 성직자와 신도들의 수준에 달려 있다. 조계종단이 많은 모순과 갈등을 드러내면서 현대 사회에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도 결국은 스님들과 재가 신도들의 수준이 높지 않기 때문이다.

스님들과 재가자들은 서로 영향을 주고 받으면서 조계종단의 종교적 수준을 결정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의 현실로 본다면 스님들과 재가자들이 부정적인 영향관계의 고리를 형성하고, 계속 질적인 저하를 부채질하는 악순환의 영향관계를 주고 받는 측면이 많다는 것이 조계종단의 문제라 할 수 있다.

조계종 포교원이 개정된 신도법에 의하여 내년 3월부터 신도 교육을 의무화하기로 한 것은 그 동안 스님들의 문제에 급급해 있던 조계종이 드디어 종단의 저변을 이루는 신도의 질적 향상에 나선 것으로, 조계종단이 올바로 서는데 초석이 될 만한 조치라 할 수 있다. 입문-기본-전문-지도자-재교육의 과정을 정하고 위원회를 구성하며, 교재 발간의 준비를 서두르는 모습에서 우리는 교육받은 수준 높은 신도들에 의해 밑받침되는 밝은 조계종의 미래를 기대하게 된다. 이러한 조치들이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보완되어 조계종 신도교육의 확고한 틀을 정립하기를 바란다.

그러기 위하여는 종단 중심의 제도 확립과 기본 자료 지원에 의하여 각 사찰별로 그 특성적인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획일적인 의무화보다는 일선 사찰의 스님들이 신도 교육이야말로 미래 불교의 사활이 걸린 문제라는 인식을 바로 하고, 각 사찰의 특성에 맞는 교육체계를 세우는데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깨인 신도들이 저변을 이루게 하는 신도 교육과 맞물려, 그 깨인 신도들이 각각의 수준과 전문성에 따라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종단의 체제를 정립하는 것도 또한 시급히 서둘러야 할 것이다. 교육받은 신도를 거북해 하는 일부 스님들의 의식이 바뀌고, 또 신도 조직을 출가자의 들러리로만 삼으려는 종단의 관행이 고쳐져야 신도교육이 올바로 된다.

교육받은 신도가 제 몫을 할 수 있다는 것과 신도교육이야말로 미래불교의 사활이 걸린 문제라는 것을 스님들은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선도백과' 종교편향 다시없게

국방부 군종실이 펴낸 〈사고예방을 위한 선도 및 상담 백과〉라는 책자가 개신교 종교편향을 담고 있어 물의를 빚었다. 조계종과 종교편향대책위의 항의를 받아들여 국방부가 문제의 책자를 전량 수거해 폐기 처분하고, 다시 제작키로 했다는 소식이다.

우리는 이번의 해프닝 같은 사건을 보며 군내 종교편향이 근절될 날이 아직도 멀었구나 하는 자괴감을 감출 수 없다. 먼저 10명으로 구성된 편집위원 모두가 군목사라는 사실과 군목사로 구성할 수밖에 없었다는 군종실의 해명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 군내 종교정책을 입안하는 군종실은 이에 대해 상담학 관련 석사학위 이상의 군종장교를 편집위원으로 선정하기로 했다는 원칙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상담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상담자와의 친밀감이다. 군법사와 군목사, 군신부는 매일같이 장병들을 만나 그들의 희로애락을 듣고, 그들의 어깨를 다독인다. 군법사가 됐건, 군목사가 됐건 그들은 석사 학위 이상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그들에게 종교시간을 배당하고 정신교육을 담당하게 하는 것 아닌가.

설사, 석사학위 이상의 사람이 꼭 필요하더라도 편집위원 전원을 개신교 목사로 구성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군내에는 개신교 장병만 있는 것도 아니다. 그리고 상담은 특정 종교를 은근히 강조하려 해서는 효과를 거둘 수 없다. 군종실 스스로 종교편향에 앞장섰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군종실 책임자의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이 있어야 한다.

불교를 대표해 국방부에 파견된 군법사와 군승단장에게도 책임이 없는지 따져봐야 한다. 결과적으로 이번 일로 국민의 세금을 낭비했고, 불교를 대표하는 소임을 다 하지 못했다. 그 동안 몇 차례 군내에서 종교편향 사태가 발생했을 때마다 군법사들이 사건을 은폐 또는 축소하려 한다는 비판이 있었다. 이번에도 책임을 통감하기보다는 군종실 업무의 특성상 책을 발간한다는 사실만 알았을 뿐이라고 말하고 있다. 일선 법당에는 인력이 모자라는데도 영관급 법사를 군종실에 파견하는 뜻은 무엇인가. 불교의 뜻을 군종정책에 반영하고, 종교편향과 같은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자는 의미도 있다. 해당 법사의 참회를 촉구한다.

'성보 조사비' 국회상정

문화재청 5억 책정…상임위 심의

"비지정문화재 제도적 보호 기대"

문화재청의 내년도 예산안에 신설된 '불교문화재 일제 조사비' 5억원에 대한 국회 통과 여부를 놓고 교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 조사비는 국가의 차원에서 불교문화재의 목록을 조사할 목적으로 책정한 예산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이 조사를 토대로 문화재 절도범의 표적이 되고 있는 비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할 수 있다는 데 더 큰 의미가 있다.

이러한 의미에도 불구하고, "내년 예산에 반영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어, 정부의 소홀한 문화 정책에 대한 비난이 적잖다.

국회에서 심의중인 예결산 자료에 따르면 '불교문화재 일제 조사비'와 같이 문화재청이 2001년 신규 사업으로 책정한 사업비가 전액 삭감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심사 중인 '조사비'는 국회 상임위인 문화관광위에서 다시 상정한 것이다.

이에 대해 문화재 관계자들은 "비지정문화재 현황 조사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업"이라며 "만약 예산이 통과되지 못하면 예비비에서라도 충당할 수 있는 관계 당국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 동안 문화재 관계자들은 "비지정문화재와 지정문화재의 차이는 조사를 하고 안한 것의 차이"라며 "도난을 방지하고 바른 문화재 정책을 세우기 위해서는 비지정문화재에 대한 현황부터 파악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해 왔다.

'불교문화재 일제 조사'란 문화재청이 2001년부터 계획하고 있는 연차사업으로, 1개 도마다 5억 원을 책정해, 전국에 산재해 있는 지정·비지정 불교문화재의 현황과 실태를 파악한다는 것이다. 또한 문화재청은 이 과정에서 비지정문화재의 학술적 가치를 조명하고, 지정 절차를 밟는다는 방침도 세워놓고 있다.

이 사업의 필요성은 이미 11월 27일 대전 정부 제2청사에서 열린 문화재청 감사에서도 촉구됐다. 이날 한나라당 남경필, 박종웅 의원은 "도난이 발생하는 대부분의 불교문화재는 비지정인 것으로 조사됐다"며 "법률적인 보안 장치와 더불어 비지정문화재에 대한 일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예산안 처리 당초 15일로 예정되었으나, 국회에서 '예산안 조정소위'를 가동하지 못해, 예산안 처리는 빨라야 18일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오종욱 기자 (gobaoou@buddhapia.com)



남북불교 베이징 회동 종단협의회와 조계종, 진각종 대표단은 13, 14일 중국 베이징에서 북한의 조선불교도연맹 대표단을 만나 남북불교도 통일토론회 개최와 내년도 남북불교교류 사업에 대해 논의했다. 민족공동체추진본부 상임집행위원장 명진스님은 "활발한 교류를 통해 통일사업에 기여하자는 데 남북불교대표들이 의견을 같이 했다"고 말했다. 왼쪽 네번째부터 사회부장 양산스님, 명진스님, 조불련 심상진 서기장. 정성운 기자 〈사진 제공=민족공동체추진본부〉

☞1면 '윤리헌장'서 이어짐

장 성초 대정사와 최창규 성균관장, 예장연합총회장 김광명 목사, 민족종교협의회 한양원 회장 등이 참석했다.

한국종교협의회는 올 1월 정기총회에서 윤리헌장을 제정하기로 결의하고 10개 종교에서 추천한 기초위원회를 구성, 3차례의 회의를 통해 초안을 작성했다. 이후 이달 초 각 종교 대표의 감수를 받아 이날 윤리헌장을 선포했다. 종교협의회는 실천강령을 작성하기 위해 3차에 걸쳐 생명윤리·지구윤리·종교윤리에 관한 세미나를 열기도 했다.

10개 종교대표들이 선포한 종교인 윤리헌장의 실천강령은 다음과 같다.

△우리 종교인은 자기가 배우고 경험하고 깨달은 진리를 믿고 말하고 가르치는데 그치지 않고 인간의 본성을 회복하여 진실과 겸손과 봉사의 삶을 솔선수범한다.

△우리 종교인은 종교에 의해 야기된 어떤 분쟁과 갈등도 용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종교간의 대화를 통해 화해와 협력과 일치를 실현한다.

△우리 종교인은 성차별과 성폭력을 더 이상 방관하지 않으며, 순결한 사랑을 배우고 가꿀 수 있는 가정을 형성하여 건전한 사회를 이루는 데 진력한다.

△우리 종교인은 자유와 평등한 사회를 이루는 데 노력할 것이며, 부조리에 의한 부정과 부패가 자리잡지 못하도록 사회정의 실현에 앞장선다.

△우리 종교인은 파괴된 자연과 환경을 회생시키며 나아가 모든 생명체의 보전과 번영을 위한 생명윤리를 적극 실천한다.

△우리 종교인은 가상공간의 비윤리적 행태를 선도하며, 게놈시대의 불평등과 비인간화를 경계하는 등 미래세대를 위한 윤리형성에 적극 참여한다.

△우리 종교인은 문화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상호존중하며 조화를 이룸으로써 평화문화 창조에 이바지한다. 정성운 기자 (swjung@buddhapia.com)

조계종 "국방부 종교편향 자료 책임추궁"

군종실 법사등 2명 소환

종교편향적 내용을 담고 있는 〈사고예방을 위한 선도 및 상담 백과〉가 만들어진 경위를 조사하기 위해 조계종 포교원이 군승단장 김말환, 국방부 군종실 김규대 선임법사를 소환한다.

조계종 포교원은 지난 12일 국방부장관에게 공식 공문을 보내 문제의 책자가 만들어진 자료를 요청하고, 18일까지 김말환·김규대 법사가 포교원을 방문해 경과를 설명해 줄 것을 요구했다. 포교원이 국방부에 이같이 요구한 것은 지난 9일 제출된 두 법사의 경위서 내용이 부실하고, 이번 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군법사가 군내 종교편향에 대해 불교계의 입장을 대변하기보다는 국방부를 두둔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이번 기회에 군법사들의 보신주의와 업무태만을 바로잡겠다는 것이다. 〈본지 298호 2면 기사 참조〉

군승단장 김말환 법사는 경위서에서 99년 11월 종합행정학교 군종학 처장으로 재직시 책을 편찬할 것을 건의했지만 99년 12월 초 1군사령부 군종참모로 전출되어 편집위원 선정에 대해 알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 문제의 책자가 배포되기 전 목차와 편집자, 감수자만 살펴보고 세밀한 내용을 검토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국방부 김규대 법사도 책이 발간된다는 사실은 알았으나 편집위원 위촉에 대해서는 일체의 요청도 받은바 없고 인쇄직전 편집완료 사실을 통보받고 목차와 구성 부분만 열람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포교원과 종교편향대책위는 국방부에 파견된 군법사가 책자의 기획부터 감수과정에서 조금만 관심을 기울였어도 예방할수 있었던 일이었다며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김두식 기자

참여연대 공원개선위 탈퇴

관람료 인상철회 재촉구

참여연대가 국립공원제도개선위에서 탈퇴했다.

참여연대는 13일 생태보전시민모임 사무실에서 열린 국립공원제도개선위 4차 실무위회의에 참석해 발표한 논평을 통해 "이번 문화재관람료의 일방적 인상은 국립공원제도개선위원회 취지와 합의 정신을 전면 부정하는 것"이라며 "더 이상의 연대활동의 의미를 찾을 수 없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조계종총무원과 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 녹색소비자연대 등 13개 시민·환경단체는 참여연대의 탈퇴와 관계없이 국립공원 구역 재조정 등 국립공원 정책을 정부에 제시하기로 했다. 정성운 기자

조계종 역경·학술상 제정

불학총서 지속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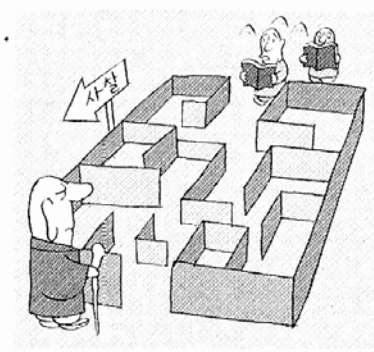
조계종 역경위원회(위원장 장산스님)는 13일 제3기 2차 회의를 개최하고, 위원회 활성화를 위해 분기별 1회 회의 소집, 역경상·학술상 제정, 불학총서 지속발간, 역경및 학술지원에 대한 기준 마련 및 심사 등 위원들의 제안내용을 실시키로 결의했다.

이 같은 역경위원회의 결의는 통합종단 출범이후 역경이 종단의 3대 지표로 채택됐음에도 불구하고 95년 출범한 위원회가 이렇다할 역할을 해오지 못했다는 현실분석에 따른 것으로, 불전번역사업에 대한 총체적 업무수행에 나서겠다는 의미로 평가된다.

이날 회의에서 역경위원회는 〈화엄오교장〉 〈화엄종관행문〉등 불학총서 4, 5권을 내년 1월 간행키로 했으며, 〈화엄경현담〉 역경원고를 3월까지 교육원에 인계키로 했다.

또 2001년 역경지원예산 8천만원과 학술지원비 1억원에 대한 항목변경등을 심의했다. 김원우 기자

현 대 만 평 박구원



관문을 통과해야

중앙승가대학교 2001학년도 신(편)입생 모집

본교는 대한불교 조계종 교육법 제67조에 의해 종단에서 운영하는
종립대학으로서 대한불교 조계종 「기본교육기관」입니다.

《정시모집 "다"군》 신입학생 모집요강

모집학과 및 정원

계 열	학 과	일반전형 (60%)	특별전형 정원내 40% (대교과출신)	특별전형 정원외 (재외국민등)	비 고
인 문	불교학과	18	12	1	
	역경학과	18	12		
사 회	포교사회학과	18	12	1	
	사회복지학과	18	12		
합 계		72명	48명	2명	122명

※특차모집 합격자 및 정시모집 동일학군 타 대학 지원자는 지원할 수 없습니다.
※복수전공이 가능하여 타학과를 같이 전공하실 수 있습니다.

응시자격 및 전형방법

■특별전형
· 지원자격 : 조계종 승려로서 고등학교 졸업자 및 2001년 2월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조계종 교육원에서 인정하는 강원 대교과(4년)졸업(예정)자
· 전형방법 : 입학정원의 40%내에서 서류전형 및 면접(인성)고사로만 선발함

■일반전형
◇ 지원자격
· 조계종 승려로서 고등학교 졸업자 및 2001년 2월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 위의 학력을 갖춘 타종단의 승려로서 해당 소속 총무원장의 추천을 받은자.

◇ 전형방법 : 입학정원의 60%내에서 다음의 방법으로 선발함

고교내신성적	필기(교리)고사	면접(인성)고사	합 계
40% (400점)	40% (400점)	20% (200점)	100% (1,000점)

원서 교부 및 접수

■ 장 소 : 본교 교학처
■ 교부기간 : 2000. 12. 11. ~ 12. 30.
■ 접수기간 : 2000. 12. 27. ~ 12. 30.

■ 제출서류
(1)입학원서(본교 소정양식) 1부.
- 출석 및 중요과목 성적 기록 및 작성교직원 서명 또는 날인후 테이프 부착
(2)고교졸업(예정)증명서 1부
- 대입검정고시 합격자 : 합격증 사본과 성적증명서 각1부
(3)고교생활 기록부 사본 1부 : (2001년 졸업예정자 포함)
(4)승적증명서 1부
- 타종단 승려는 해당 총무원에서 발급
(5)강원 대교과 졸업(예정)증명서 1부 : 특별전형 지원자에 한함
※특별전형 지원자는 조계종 교육원에서 강원졸업증명 확인서 첨부
(6)주민등록 등본 1부
(7)사진 (오조가사 수한 반명함판 3×4Cm) 5매제출 (3매 원서부착, 2매별도)

■ 입학원서대 및 전형료
(1)원서대 및 입시요강 : 3,000원
(2)전형료 : 60,000원

■ 전형일정
· 예비소집(특별 일반전형) : 2001. 1. 17. (수) 09:00 ~ 09:40
· 필기(교리)고사 (일반전형) : 2001. 1. 17. (수) 10:00 ~ 11:10
· 면접 및 인성검사 : 2001. 1. 17. (수) 12:30
※수험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예비소집, 시험, 면접을 하루에 마칩니다.

편 입 생 모 집 요 강

■ 모집학과 및 인원

계열구분	학 년	전산코드	학 과	모집인원
인문·사회 계열	3학년 (일반편입)	13	불교학과	
		23	역경학과	
		33	포교사회학과	
		43	사회복지학과	
	3학년 (학사편입)	14	불교학과	
		24	역경학과	
		34	포교사회학과	
		44	사회복지학과	

※ - 2학년 편입은 1999학년도 2학기부터 모집하지 않습니다.
- 각 학과의 모집인원은 여석 판단후 발표

■ 지원자격
◇ 일반편입 : 대한불교 조계종 승남 만2년 이상 승려로서 대학 2년이상 수료자나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학사편입 : 학사학위 소지 및 예정자로서 조계종 승남 만2년 이상인자
※타종단 승려도 위와 동등한 자격 및 학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편입 지원가능
■ 전형방법 및 일정
- 신입학 전형일정과 같으며 편입생은 특별전형이 없음
■ 기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앙승가대학교 교학처(입시 담당자)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학교법인 승가학원 中央僧伽大學校

136-075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동5가 156
☎ (02)925-5507 (내선 202~5)

목어

내복입고 겨울나기

날씨가 많이 추워지고 있다. 밖의 날씨는 영하의 추운 날씨인데도 실내온도는 좋은 난방시설로 인해 영상 25℃ 이상이고, 자동차를 타고 다니니 추위를 느낄 시간도 없어서 속내의를 입지 않는다. 이 모든 것이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인데, 국제 석유값 폭등과 경제불황마저 겹쳐져서 가정과 나라의 살림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이 겨울 날씨와 국가경제 불황으로 마음마저 엄동설한을 실감케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모두 이겨내야 한다. 이대로 주저앉을 수는 없다.

2000년 11월 30일 4개 종교환경단체가 주축이 되어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에너지 절약 선언식'을 갖고 "난방온도 낮추고 내복입기, 고효율 조명기기·전기제품 사용, 주거·업무공간 최소화 등을 다함께 실천하자"는 결의를 다짐했다. 우선, 모든 종교시설에 포스터를 부착하고 종교인이 먼저 에너지 절약을 실현하면서 국민들에게 이를 계도할 계획이라니 참으로 다행한 일이다.

그 실천사항 중 실내에서도 내복을 입자는 것, 내복을 입으면 실내온도를 5℃ 정도 낮추어도 쾌적한 생활환경을 유지할 수 있으며, 연간 약 8,000억 정도의 난방비를 절감할 수 있다고 한다. 또, 내복을 입으면 피부 보호에도 효과적이고 석유 소비가 줄게 되어 지구온난화 현상도 줄어서 기상재해 걱정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 속담에 "물을 아끼면 용왕이 돌보고, 나무를 아끼면 산신이 돌본다"는 말이 있다. 물과 나무는 예로부터 인간의 생활에 절대적인 필수품이다. 모든 에너지는 자연의 산물이다. 계속 물을 더럽히고 공기를 흐리게 한다면 지구상 어디로 가나 살 곳이 없을 것이다.

따라서, 에너지 절약이 곧 자연에 대한 보답이라고 생각하고 아껴 쓴다면 지구 미래의 생명은 다소 희망적일 것이다. 그러나 에너지를 함부로 낭비한다면 곧 자연자원이 고갈되어 살아있는 생명은 아무 것도 없을 것이다.

한겨울 내복을 입음으로써 조금이라도 에너지를 아낀다면 지구의 생명은 그만큼 늘어날 수 있다. 국민경제와 얼어붙은 마음도 서서히 풀려나가길 기원한다.

법산(동국대 정각원장 · 본지 논설위원)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 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김광삼
논 설 고 문 : 고 은
인 쇄 인 : 김규석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 : 다-3379
대표전화 02-737-8881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인터넷 日刊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정보센터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불교쇼핑 '마하몰' www.mahamall.co.kr
온라인서점 '여시아문' www.yosiamun.com
편집국 (02)722-4162 FAX (02)737-0698
광고국 (02)732-1522 FAX (02)737-0697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737-009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110-170
구독료 : 1개월 4천원 1년 4만원 영구 50만원

'알고 믿고 실천' 교육 체계화

조계종 신도교육 강화 '의미와 과제'

교육공간 확보-사찰 협조 '관건'
"평생교육 프로그램 도입 검토"

한국불교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미래의 청사진을 낼 수 있는 방안의 첫째는 신도교육이다. 신도교육은 불교에 관심 있는 사람들을 불자로 입문케 하고, 기존의 불자들도 불교적 실천의 길로 나서게 만드는 첫 걸음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그 동안 교계에서는 종단 및 사찰차원의 신도교육 도외시로 인해 불교적 가치관을 갖고 있는 불자층이 엷고, 사찰과 지역마다 입문절차와 의식, 교육 등이 다르게 이뤄져 종단차원의 전법교화 성과가 미약한 요인이 됐다.

특히 불교에 관심을 갖고 찾아오는 사람들조차 사찰에서 체계적인 교육없이 기도와 주력에만 치중케 하여 기복화되는 계기가 되고, 절에 30년을 다녀도 불교의 이치를 모르는 불자를 양산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지적이다.

30년간 불교신행을 해왔다는 이 반야행보살(60세·성남시 분당구 수내동)은 "처음 절에 갔을 때 교리나 예법 등 모르는 것이 너무 많았지만 가르쳐 주는 사람과 교육프로그램이 없어 힘들었다"며 "10년전 서울에 있는 조계사 불교대학에 다니면서 불교를 제대로 알게됐다. 교육의 장이 없어 절에 찾아온 초심자들이 오래 머물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상황에 따라 포교원은 법원화 이후 신도교육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신도법 개정을 추진해왔으며, 99년 9월 신도법을 개정했었다.

포교원은 올해 1월 발효된 신도법상의 신도교육 의무화 규정에 따라 연수국을 신도국으로 개편하고 6차에 걸친 준비모임과 전국의 일반불자, 교양대학 졸업생 및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신도의식조사 실시와 신도교육체계화를 위한 공청회 등을 개최해 왔다.

이를 토대로 올해 9월 신도교육위원회를 발족시킨 포교원은 종법에 맞는 신도교육 체계를 잡고, 교육위원 선임 및 교과목 선정, 교재개발, 추진일정 확정 등의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내년 3월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되는 신도교육이 제대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몇 가지 넘어야할 산이 있다.

첫째, 교육공간 및 교육시설의 확보다. 지역이나 소규모 사찰의 경우 가장 큰 문제는 신도교육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다. 또 한곳에 공간을 마련하더라도 지역사찰들의 협력은 필수적이다. 신도교육 실시에 대한 종단 내 사부대중들의 적극적인 공감을 얻지 않는 상태에서 과연 이러한 유기적인 관계가 감자기 형성될 수 있느냐는 것이다.

둘째, 교육전문가 양성이다. 신도교육위의 방안은 현재 각 사찰 주지스님들을 강사로 기용하도록 한다는 것이지만 신도교육 방법에 대한 사전교육이 이뤄지지 않는 상태에서 과연 원만하게 진행 될 수 있겠는가는 의문이다. 이는 교육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뤄지는 만큼 전문적인 신도교육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것이다. 이와 함께 신도들의 일반생활에서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도 병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셋째, 종단차원의 강력한 뒷받침이 미약한 상황에서 신도교육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까? 라는 우려도 높다. 이를 위해 각 사찰에서 신도교육 실시를 강제적으로라도 실시토록 하는 종법 시행령 제정이나 신도교육 실시를 평가하여 주지 인사고과에 반영하는 등의 현실화 조치가 필요하다는 여론이다.

김응철교수(중앙승가대 사회학과)는 "포교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신도교육이 교리일색이기보다는 전문성도 살려주는 교육부 평생교육 프로그램도 도입하여야 한다"며 "일반인들도 자연스럽게 평생교육프로그램에 참가하여 불교교리를 배우고 불자로 입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김원우 기자(wwkim@buddhapia.com)

WFB총회서의 한국불교

"주제발표-토론 없었다"

태국 방콕에서 5일부터 12일까지 열린 제21차 세계불교도우의회(이하 WFB) 총회를 계기로, 한국 불교계의 국제 활동에 변화와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발언도 못하고 토론의 장에도 나서지 못한다"는 말에서 "10여 년 넘게 이 대회에 참석해 온 이유를 묻고 싶다"는 말까지, 총회에 참석한 한국 측 인사를 향한 비판이 거세다.

'불교와 세계'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총회는 WFB 창립 50주년이라는 의미와 맞물려, 37개국 135개 지부가 참가했고, '세계불교대학 개교식'을 비롯해 다양한 문화행사가 열렸다. 한국 측에서는 '한국본부' '연합회지부' '원불교지부' 등 3개 지부에서 30여 명이 함께 했다.

그런데 총회나 관련 행사가 진행되면서, 그 속에서의 한국불교 모습을 찾아 볼 수 없었다는 게 총회 참석자의 전언이다. 9일에는 세계불교대학의 개교식이 열렸다. 이 대학은 WFB에서 유능한 불자 양성을 위해 설립한 것인데, 이날 개교식에서 30여 개국의 불교계는 축하 메시지를 전했다. 그런데 총회에 참석한 한국측 지부에서는 어떤 메시지도 전하지 않았다. 11일까지 계속된 회의나 세미나에서도 한국측 지부 스스로 의견을 내놓지는 못했다.

이에 대해 WFB 관계자는 "한국측 지부는 종단과의 고리를 잃었고, 이에 따라 한국의 불교계를 대표할만한 위상이 없다는 데서 기인하다"고 풀이했다. 즉 WFB는 승가와 재가 모두 참여하는 국제대중[illegible]만큼, 종단 차원의 관심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번 총회[illegible] 승가와 재가의 비율 역시 비슷한 수준이었다.



◇WFB는 5~12일 태국 방콕에서 21차 총회를 열고 내년을 '지비의 해'로 정했다. 조계종은 이번 총회에 가입신청서를 냈다.

이러한 상황에서 조계종이 WFB 참여 의사를 밝힘에 따라 90년에 열린 서울 총회를 기점으로 침체 국면을 맞은 한국 지부의 활동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계종 국제교류위원회 부위원장인 진월 스님이 이번 총회에서 WFB 가입 신청서를 제출한 것이다. 신청서는 6개월마다 열리는 상임위원회 심의를 거쳐 2년 후 열리는 제22차 총회에서 결정된다.

오종욱 기자(gobaoou@buddhapia.com)

도자대장경 만든 성파스님

하루 10시간씩 10년동안
도자경판 16만여장 완성



통도사 서운암(주지 성파)에서 10년 세월 동안 조용히 진행되어 온 도자대장경 불사가 완성되어 원만한 회향 절차만을 남겨 놓고 있다.

통일발원으로 10년을 한결같이 이어온 성파스님의 원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도자대장경. 8만1258장의 목판 해인사 대장경을 16만 2516장의 도판에 옮기는 대불사의 완성을 이룬 성파스님을 만나 도자대장경 조성의 의의와 10년 불사 과정을 들었다.

―도자대장경의 조성 동기는 무엇입니까?

▲불교가 민족의 미래를 위해 기여할 수 있는 길을 찾다 역사에 길이 남을 도자대장경 조성 불사를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해인사 팔만대장경이 고려 때 몽고의 침략을 불심으로 막아 보자는 뜻에서 민관이 함께 16년에 걸쳐 완성한 불사였듯이 현시대 우리민족의 가장 큰 염원인 통일의 발원을 담아 도자대장경 불사를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16만 여장에 통일의 염원을 담고자 함께 불사에 동참한 모든 불자들의 신심과 원력으로 이렇게 원만히 불사를 마치게 되어 고마울 뿐입니다.

―도자대장경 조성 과정을 들려주십시오.

▲도자대장경 불사를 입재한 것은 91년 6월입니다. 그러나 그 훨씬 이전부터 자료를 준비하고 혼자서 마음을 기울여 하나 하나 챙겨온 것을 치면 20년이 걸린 불사인 셈입니다. 무엇보다 가로 54cm 세로 33cm 두께 1.3cm인 도자대장경을 뒤틀림 없이 반듯하게 구워내기 위해서는 좋은 흙을 구해야 했죠. 점력이 강하면 불에 약하고 불에 강하면 점력이 약해 작업이 아주 어려웠습니다. 이런 저런 시행착오 끝에 점력이 강하면서도 불에 강한 흙을 구해 잘 배합하고 9백도의 불에 초벌구이한 판에 해인사 대장경 복사본을 스크린으로 앉힌 후 다시 1250도의 불에 구워내면 한 장의 도자대장경판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루 10시간의 작업을 10년 동안 꼬박 해서 완성된 불사입니다.

―도자대장경은 어떻게 모셔지게 됩니까?

▲불사는 서운암에서 했지만 개인의 불사가 아니라고 판단되어 통도사 큰절에 모시기로 했습니다. 이제 통도사로 모든 것을 일임했으니 큰절에서 알아서 할 것입니다. 장경각을 지어 도자대장경을 모시게 될 때까지는 당분간 도자대장경을 서운암에 그대로 보관할 예정입니다. 큰절에서 장경각을 지어 모시게 되면 원만한 회향절차를 거쳐 10년불사의 뜻을 더욱 널리 전하게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불사가 완성되었는데 앞으로의 계획은?

▲10년 동안 16만 여장의 도자대장경을 구워 온 정성으로 이제 통일을 향한 더욱 간절한 마음을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됩니다. 도자대장경이 하루아침에 완성될 수 없는 것처럼 민족의 통일 역시 내실 있는 노력, 즉 실천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우리 민족이 본래 하나였다는 대 전제에서 출발하여 화합과 교류를 이끌어 내기 위한 마음을 모을 수 있도록 정진할 것이며 통일의 열망을 모으는 일을 계속 할 것입니다.

통도사=천미희 기자(mhcheon@buddhapia.com)

봉행

財團法人 韓國佛教法輪宗 前
第2世宗正 慧蓮堂 一華 大宗師
49齋大法會 案內

혜련당 일화 대종사 49재 대법회를 다음과 같이 봉행함을 문도스님과 사부대중에게 알려드리오니 무루 동참하여 주시기를 앙원하나이다.

다 음

▣ 일 시 : 불기 2545년 1월 20일 토요일 오전 11시
(음력 경진년 12월 26일)
▣ 장 소 : 충남 공주시 금학동 원효사 대법당
▣ 문의처 : 원효사 종무소 (041)855-2839

불기 2545년 1월 1일

재단법인 한국불교 법륜종 원효사
주 지 석 해월
혜련 문도회 일동 합장

인 사 말 씀

財團法人 韓國佛教 法輪宗 前 第2世宗正 慧蓮堂 一華 大宗師 永訣式 및 茶毘式을 宗團葬으로 佛紀 2544年 12月 7日 宗團의 元老 스님 및 大德스님과 在家佛子 및 各界人士 諸賢을 모시고 엄숙히 奉行 하였습니다. 公私間 多忙 하심에도 時間을 아껴 參席하여 주심을 眞心으로 감사를 드리오며 宜當 일일이 찾아뵙고 人事드림이 道理이오나 于先 紙面을 빌어 심심한 感謝의 인사를 代身함을 寬容하시여 慈悲로운 마음으로 攝受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餘不備禮上 하나이다.

불기 2544년 12월 15일

일주문



'생활 속의 불교' 설법

종범 중앙승가대 총장은 12일 통도사 부산포교원에서 열린 부산불교거사림회 초청 강연회에서 '생활속의 불교'를 주제로 설법했다.



백련불교문화원 송년법회

원택 조계종 총무부장 스님은 14일 백련불교문화원 대법당에서 2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2000 회향 송년법회'에서 법문했다.



'부불어 교사의 밤' 열어

정여 부산불교어린이지도자회장은 10일 부산시청 동백홀에서 교사의 밤 행사를 열고 우수지도법사·지도자·지회를 표창했다.



다보법회 회향법문

향적 前 조계종 교육부장 스님은 27일 불교방송 3층 대법당에서 열리는 다보법회 회향식에 초청받아 법문한다. (02)703-0108



불교통신대학원장에

정수 내원사 주지 스님은 16일 채원프라자 3층 웨딩홀에서 열린 '한국불교통신대학 취임법회'에서 제6대 대학원장으로 추대됐다.



능인정사 삼존불 점안법회

법경 서울 능인정사 주지는 10일 능인정사 삼존불 점안법회를 봉행하고 불우 지역주민들에 대한 성금도 전달했다.



원성스님 초청 동지법회

정각 산본 정각사 주지는 21일 원성 스님을 초청 동지법회를 봉행한다. 원성 스님의 저서 '풍경'에 담긴 내용이 법문 형식으로 소개된다.



'불교문학과 자연' 학술회

오출세 한국불교어문학회장(동국대 교수)은 15일 장충동 불광산사에서 '불교문학과 자연'을 주제로 학술발표회를 개최했다.



세계불교도 청년우의회 고문

이치란 前 세계불교도청년우의회 한국본부장은 5일 태국 방콕에서 열린 제12차 세계불교도청년우의회 총회에서 고문으로 임명됐다.



말사 신도회 구성

박희현 조계종 제22교구 본사 대둔사 신도회장은 8일 첫 임원회의를 갖고 각 말사 신도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걸음걸음마다 환자치유 기도"

신장병 어린이 돕기 국토종단 하는 건덕 스님

"신장병 어린이를 돕고 싶은 간절한 마음으로 음성공양을 올렸습니다."

정근 테이프를 제작 신장병 어린이 돕기에 나선 건덕 스님(미륭사)은 자신도 만성 신부전증으로 고통받고 있는 환자다. 15년 전부터 이틀에 한 번 골로 5시간 이상의 투석을 받아야 하는 건덕 스님은 동병상련의 애틋함에 또 일을 저지르고 말았다.

"관음정근, 약사여래 정근을 할 때 정말 지극하게 했습니다. 남의 일이 아니고 바로 내 일이니 더욱 절실할 수 밖에 없지요." 관음·약사·지장 정근 독송 테이프를 내고 신장병 어린이돕기 기금조성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건덕 스님은 내년에 또 한번 큰 일을 계획하고 있다. 바로 국토종단 도보순례.

"국토를 종단하는 발걸음에 신장병 환자들을 위한 기도를 담고, 가는 곳마다 신장병 예방 홍보와 모금운동을 펼쳐 환자들을 도울 것" 이라며 굳은 의지를 보이는 건덕 스님. 벌써부터 하루 만보 걷기 훈련에 들어간 건덕 스님은 처음에는 불가능한 일을 한다고 주위의 만류와 핀잔을 많이 받았다. 그러나 부처님의 가피를 믿기에 국토종단의 용기를 냈다.

국토종단도보순례도 수행의 한 방편이라고 생각한다는 건덕 스님은 "건강해야 부처님을 공양할 수 있기에 건강을 지키는 일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건강의 중요성을 몇 번이나 강조했다.

하루 30km이상 매일 걷고 있는 스님은 "비록 아픈 몸이지만 내 한 몸 부처님께 공양 올리는 정성으로 병에 시달리며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정진하겠다"고 다짐했다. (011)9508-8279



부산=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세무지식 주민에 회향"

덕륜 스님 지방세 책자 2100권 보시



충북 충주시 소태면 오량리 청룡사 주지 덕륜(본명 최수영·사진) 스님이 지방세 종합 안내 책자 2100권을 발간, 7일 충주시에 기탁해 화제가 되고 있다.

48쪽 분량의 이 책자에는 각종 지방세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함께 지방세 월별 납부시기와 수정신고 납부제도, 과·오납분 환부 절차, 중과세 규정, 중고차 매매요령 등이 자세하게 수록돼 있다.

충주시는 이 책자를 민원실과 각 읍·면·동에 비치, 주민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청룡사 장학회도 운영하고 있는 덕륜스님은 "세무공무원으로 재직시 배운 지식을 활용, 주민들에게 지방세에 대해 알려주고 성실 납부를 독려하는 뜻으로 이 책자를 만들게 됐다"고 말했다. 원하는 사찰에는 무료로 보내준다. (043)855-8856 김재경 기자(jgkim@buddhapia.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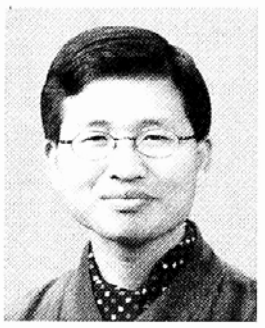
홍자운 법사 포교대상 개인상

단체상 제천 어머니회
봉사대상 대원사 봉사단

청소년열린상담실을 개설 운영하는 등 청소년포교에 앞장서 온 홍자운 법사(사진·디지털 청소년 열린상담실장)가 16일 한국불교금강선원 주최로 채원프라자 3층 웨딩홀에서 열린 '제2회 포교대상·봉사상 시상식'에서 포교대상 개인상을 수상했다.

또 포교대상 단체부문에는 제천어머니회(회장 정보련화)가, 봉사대상 단체부문에는 '좋은일을 하는 사람들의 법당 대원사 자원봉사단'이 각각 차지했다.

불교 포교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보살행을 실천하고 있는 포교사들을 위로하자는 취지로 지난해부터 마련된 금강선원의 포교대상은 해마다 교계 신행 및 자원봉사 단체에서 봉사행을 펼쳐 온 개인과 단체를 선발해 수상하고 있다.



이날 수상의 영광을 안은 홍자운 법사는 "오늘의 영광을 그동안 혜명보육원 자원봉사를 함께 다니며 봉사활동에 매진해 온 디지털 열린 상담실 청소년 회원들에게 돌리고 싶다"며 "앞으로도 청소년 포교를 위해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 개발과 심신 수련활동 개최 등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주일 기자(jkim@buddhapia.com)



북녘추위 녹일 겨울용품

Focus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총재 정대, 상입집행위원장 명진)는 15일 북한동포겨울나기 용품을 선박편으로 보냈다. 지원 물품은 담요 900장, 겨울용 외투 1575벌 등 1억원어치 상당이며, 조선불교도연맹에 지정, 기탁했다.

민족공동체추진본부는 선적에 앞서 13일 청사 앞에서 컨테이너 2대에 지원물품을 실었다. 지원물품 인도식에는 조계종 총무부장 원택 스님, 민족공동체추진본부 정책위원장 학담 스님과 조계사 주지 지홍 스님 등이 참석했다.

정성운 기자(swjung@buddhapia.com)



일붕선교종 종정·총무원장 취임법회

재단법인 대한불교 일붕선교종은 11일 종로구 부암동 하림각에서 제3세 종정 무찰대종사 추대 및 제6대 총무원장 동봉 종사 취임법요식을 봉행했다. 이날 법요식에는 (재)일붕선교종 스님들과 일공 원융종 종정, 총화종 남정 총무원장, 조계종 원택 총무부장 등 1천여명이 참석해 성대하게 치러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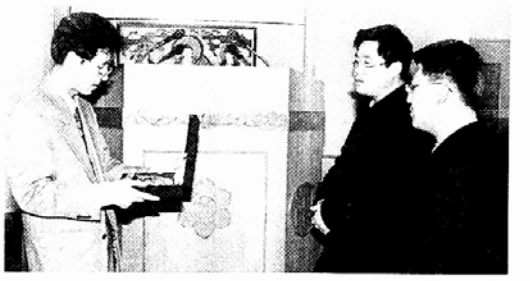
2000 동국인의 밤 행사

동국대총동창회(회장 권노갑)는 14일 장충동 소피텔·엠베서더 호텔 2층 그랜드볼룸에서 '2000 동국인의 밤 행사'를 개최했다. 동국대 이사장 녹원 스님의 축사로 시작된 이번 동창회에는 송석구 총장, 김기재 민주당 국회의원, 황명수 동국대 이사, 백경남 여성특별위원회 위원장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목포교도소 재소자 수계법회

목포교도소 불교교화위원회(회장 정각)와 교도관불자회인 성불회(회장 차재영)는 14일 교도소내 강당에서 재소자 수계법회를 봉행했다. 대둔사 주지 보선스님의 증명으로 거행된 이날 수계법회에는 사부대중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재소자 불자 83명이 수계받았다. 조윤오 목포지국장



제4회 한국불교 기자상 시상식

한국불교기자협회(회장 정성운)는 11일 조계사 문화교육관에서 '제4회 한국불교기자상 시상식'을 거행했다. 조계종 총회의장 지하 스님, 포교원장 정련 스님 등 1백여명이 참석한 이날 행사에서 심사위원장 정병조 동국대 교수는 "최선을 다해 정론직필에 임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01학년도 무불선학대학원 2기 신입생 모집

선의 대중화·생활화·세계화를 지향하는 무불선학대학원에서는 진정한 자아를 찾고 선의 원리를 실용화하기 위해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불교의 선을 배우고자 하시는 분들을 위해 2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원서교부 및 접수
2001년 2월 1일~ 2월 24일

모집 내용
- 주간반 00명, 야간반 00명,
- 통신반 00명(비디오TAPE수강)
- 인터넷 수강가능 (Homepage : http://www.moobool.com)

전형 및 구비서류
- 서류전형(전형료 2만원) 입학원서(본원소정양식) 1통
- 자기소개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자 격
- 기존 불교교양대학 수료자 및 동등한 불교 교리 숙지자
- 선학에 대한 전문적 이해를 희망하는 자

합격자 발표
2001년 2월 26일~ 28일(개별통지)

개강 및 강의시간
- 3월 5일(총 15주) - 매주 월·화요일

등록금(학기당)
- 주·야간반 : 47만원, 통신반: 55만원(분납가능)
- 과목별 수강: 과목당 20만원(통신 23만원)

개설 강좌

과목명	강사	요일 및 시간
선어록 강독	홍선스님(승가대 포교사회학과)	주간 / 14:40~16:10 (화)
		야간 / 18:50~20:20 (화)
선과 서양철학	심재룡(서울대 철학과)	주간 / 14:40~16:10 (월)
		야간 / 20:30~22:00 (화)
한국선사상사	최병헌(서울대 사학과)	주간 / 13:00~14:30 (화)
		야간 / 18:50~20:20 (월)

※ 학과목 및 강사는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입학식
- 2001년 3월 3일 토요일
- 오후 2시 본원 법당

원서교부 및 접수처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17-5 삼윤빌딩 8층(135-010)
전화: 541-0002~3
팩스: 541-0004
Homepage : http://www.moobool.com
E-mail : moobool@netsgo.com

덕숭총림 수덕사 부설
무불선원·한국불교선학연구원
무 불 선 학 대 학 원

임원 개편 공고

불기 2544년 11월 14일 제5차 중앙종회에서 **제3대 총무원장으로 정혜안**(전 종회의장)스님을 선출하고 신임 각 원장 및 종단 간부임원을 다음과 같이 개편 하였음을 공고함.

총무원장(종정권한대행) : 정혜안 스님
원로원장 : 양지은 스님
감찰원장 : 장혜운 스님
문화원장 : 황보현 스님
호계원장 : 전진허 스님

▣ 총무원
총무부장 : 최수홍 스님 재무부장 : 김정열 스님
교무부장 : 김보경 스님 사회부장 : 박규동 스님
규정부장 : 박종한 스님

▣ 종무원장
서울 종무원장 : 채정수 스님
부산 종무원장 : 황덕규 스님
경남 종무원장 : 김형권 스님
경북 종무원장 : 김보명 스님
전남북 종무원장 : 최수홍 스님
충남북 종무원장 : 한상선 스님

▣ 종회의장 : 남원우 부의장 : 전규식
의원 : 김원종, 김형권, 한보각, 박종한, 김보명, 김종분, 최보담, 박규동, 김지암, 정점근, 이대숙

▣ 상벌위원장 : 김원종

서기 2000년 12월 1일

경남 하동군 적량면 서리 550번지.
전화 : (055) 883-7771 · 7790 · 9916

공 고

총무원 이전 및 사찰등록 갱신

대한불교 무량종은 제 5회 중앙 정기 종회에서 종회 결의에 의하여 총무원 사무실을 2000년 12월 1일자로 아래와 같이 이전 하옵고, 종단 행정상 **사찰 재등록과 승려증 및 신분증을 갱신** 하오니 여러 사암 주지 및 종도님들께서는 아래와 같이 미비된 서류를 갖추어 12월 31일까지 재 등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일내에 재등록 하지않는 사암과 승려는 본 종단 등록에 뜻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제적처분 되오니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 **구비서류**
  구 등록중, 여권용 사진 3매, 주민등록 등본 1통
- **새총무원 : 총본산 칠보정사**

서기 2000년 12월 1일

경남하동군 적량면 서리 550번지
전화 (055) 883-7771 · 882-9916 전송 883-7790

대한불교 무량종 총무원장 정혜안

"좌절 인생에 희망 심는다"

노숙자 돌보는 서울시청 불심회 조정봉 법사



◇지난 13일 새벽 서울역 지하도에서 추위에 떨고있는 노숙자에게 조정봉씨가 희망의집 입소를 권유하고 있다.

서울역등 노숙자 찾아 희망의 집 입소 권유

지난 87년 서울시청 불심회를 창립하고, 22개 구청 불심회 창립의 산파역할을 했던 직장불자회의 '산증인'으로 불리는 조정봉씨(53). 서울시청 불심회 상임지도법사이기도 한 그가 요즘 주위사람들로부터 주목받고 있다. 조씨의 주된 업무는 서울시 노숙자 대책을 전담하는 일. 지난 3년간 서울시청 노숙자 대책반에 근무하며 노숙자들과 함께 지내온 조씨는 요즘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노숙자가 늘고 있어 더욱 바빠졌다.

97년 IMF위기로 처음 생긴 이색 부서인 노숙자 대책반. 98년 초 노른자위 부서인 감사실에서 근무하던 그가 노숙자 대책반이 꾸려진다는 이야기를 듣고 주위의 만류에도 불구, 이곳을 자청했다. 그는 이곳에서 서울시에 있는 106개 희망의 집을 관리, 지원하며 새벽에는 서울역, 영등포역 지하도 등 노숙자들이 모여있는 곳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희망의 집에 입소할 것을 권유하고 노숙자 현황을 파악하느라 정신이 없다. 그래서 그는 야예 출퇴근도 포기해 버렸다.

그가 이곳에 자청한 이유는 불교적 삶을 실천하고 싶어서다. 그가 불교를 처음 알게된 것은 지난 80년 가정의 우환과 공직사회의 사정태풍으로 어려운 나날을 보냈던 시절이다. 우연히 서점에 들렀다가 서점주인이 권해준 〈불교대전〉을 읽고 난 후 '바로 이거다'라는 느낌을 받았다. 특히 팔정도 사상을 처음 접했을 때는 정말 환희심을 느껴 지금도 인생의 철학으로 간직하고 있다. 그래서 그는 팔정도를 생활속에서 실천하며 살고 싶어 남들이 꺼려하는 노숙자 대책반에 자원한 것이다.

"어느날 새벽 출근길 서울시청 지하도에서 짐승처럼 웅크리고 자는 노숙자들을 보았을 때 남의 일 같지 않았습니다. 어려운 시절 저 자신도 불법을 접하고 새로운 인생을 얻었기에 앞으로는 부처님의 자비사상을 베풀며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겨울이면 노숙자 대책반은 유난히도 바쁘다. 그러나 조씨는 이런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청 불심회원들과 매월 한차례의 사찰순례와 수련대회, 수계법회를 봉행하며 열심히 신행활동을 하고 있다. 또한 조계종 포교사단 직장포교팀인 심원회 회장을 맡으며 직장직능불자회의 활성화에도 노력하고 있다.

지금까지 서울시청 불심회 행사에 단 한번도 빠지지 않았다는 조씨는 "바쁘게 살다보니 번뇌가 없어지는 것 같다"며 "앞으로도 공직자로서의 맡은 바 최선을 다하고 직장법회의 창립, 후원 등 직장포교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더불어 "불교계에서도 노숙자에 대한 더 많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잊지 않았다.

김두식 기자
(doobi@buddhapia.com)

'환자에 안락' 약사보살 다짐

국립의료원 법당개원 11돌법회

국립의료원 법우회(회장 황영희)는 지난 8일 국립의료원 간호대학 9층 강당에서 법당개원 11주년 기념법회 및 송년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는 보광사 효림, 조계종 포교원 신도국장 덕혜, 봉은사 포교국장 제안스님, 동국대 석림회 학인스님을 비롯해 서울지하철 법우회 민병훈 회장, 보건복지부 불교신행회 이영휘 회장, 한일병원 반야회 이영숙 회장, 감사원 안홍부 총무 등 환자 및 법우회원 200여명이 참석했다.

황영희 회장은 "89년 법당을 개원하고, 90년 법우회를 결성한 이래 어려운 일도 많았지만 되돌아보면 돈독한 불심으로 황무지를 옥답으로 일구어 낸 것 같아 자부심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약사보살의 화신으로 아픈 이웃들의 병고를 치유하고 건강을 얻게 하는 본래의 사명에 더욱 충실하겠다"고 말했다.

김두식 기자



◇국립의료원 법당 개원 11주년 기념법회가 지난 8일 간호대학 9층 강당에서 사부대중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봉행됐다.

우리모임에선

행자부 · 과천청사 송년법회

행정자치부 불자회(회장 하재춘)는 9일 금선사에서 송년법회를 봉행했다. 20여명이 참석한 이날 법회에는 법인스님이 설법했다.

또한 과천정부청사내 농림부, 법무부, 공정거래위, 코건복지부, 건설교통부 불자들은 14일 보광사에서 송년법회를 가졌다. 조계사 포교국장 무각스님이 법문한 이날 법회에서는 50여명의 공무원불자들이 참석해 신심을 다졌다.

석불선양회 통일법회



한국석불선양회는 10일 민통선내 철원평야 철새도래지에서 평화통일 기원법회를 봉행하고 겨울철새 먹이주기 행사를 펼쳤다.

70여명의 회원들은 법회를 봉행한 후 6사단 호국 청원사를 방문해 초코파이, 단주 등 위문품을 전달하고 도피안사, 심원사를 참배했다.

넷츠고 소년가장 돕기

PC통신 넷츠고 불교동호회(지도법사 도홍)는 23일 저녁 6시 천안 상명대학교 앞 레스토랑 '두번째 선택'에서 천안지역 소년소녀 가장 10여명을 초청해 저녁식사 및 다과회를 연다. 이날 행사는 한길래크레이션에서 준비한 게임과 노래자랑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041)555-1919

원우회 유지호회장 재임

조계종 원우회(회장 유지호)는 13일 불교회관 1층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 참석한 70여명의 회원들은 현 유지호 회장을 제7대 원우회장으로 재선출했다.

또한 원우기금을 확대해 광림사연화복지학원과 월곡청소년센터에 매달 일정금액의 후원금을 지원하고 상탁원에서 한달에 한번이상 전화원이 참여하는 봉사활동을 펼치기로 결의했다.



◇지리산살리기댐백지화추진범불교연대가 주도한 지리산살리기운동은 불교환경운동의 지평을 넓혔다는 평가를 받았다. 사진은 10월23일 태백 황지에서 열린 '낙동강 살리기 도보 순례단'(단장 수경스님)의 발대식 장면.

정토세상 만들기 '큰걸음'

불교 NGO

2000 결산

올 해 불교시민단체들은 '달라이 라마', '지리산댐', '통일' 등을 화두로 어느해 보다 활발한 활동을 펼쳐 불교 NGO 운동사의 이정표를 세웠다.

실천불교전국승가회와 불교바로세우기재가연대를 주축으로 종교·사회단체 대표가 결합해 구성한 달라이라마방한 준비위원회는 티베트 불교와 달라이 라마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으며, 타종교단체와의 연대활동으로 인권·평화운동에 대한 불교적 지평을 넓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리산살리기댐백지화추진범불교연대 등 불교단체들은 300여 종교·시민·환경단체가 구성한 지리산살리기국민행동을 통해 전국적인 환경운동을 주도적으로 이끌었다. 또 실천불교전국승가회 등 15개 불교단체들은 장경사 인근을 통과하는 고압송전선로 노선을 변경시킨 성과를 일궈냈다. 특히 13개 불교단체가 조계종 등 각 종단에 제기한 사찰의 내부적 환경훼손에 대한 참회와 사찰환경 개선을 촉구하는 건의문은 생명·환경 사상의 모태가 되는 불교의 환경의식을 대외적으로 천명하는 기회가 되었다.

지리산 살리기 환경운동 주도

달라이라마 방한위 인권 부각

JTS등 北돕기 통일 원력 눈길

조국평화통일불교협회와 좋은벗들 한국JTS 등 통일관련 단체들은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사업을 지속하면서 교계에 북한의 전통사찰 복원, 통일교육 등에 대한 관심을 유도했다. 통일정진불교연대는 '민족의 화합과 통일을 위한 1000일 정진'으로 불자들의 통일 원력을 다지는 계기를 만들었으며, 한국JTS는 북한에 대한 농업기술 지원사업을 펼쳐 주목을 받았다.

불교인권위원회 창립 10돌을 맞은 인권분야 역시 활발한 모습을 보였다. 실천불교전국승가회와 불교장기수후원회는 비전향장기수 북한 송환운동과 국가보안법 철폐운동을 주도했으며 불교인권위원회는 사형제폐지운동, 조계종 승려 사면복권운동에 매진했다. 또 좋은벗들은 아무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북한 동포와 탈북 주민의 인권문제를 제기했으며, 경제정의실천불교시민연합은 외국인노동자 문제에 대한 관심을 이끌어 내었다.

이처럼 올해 불교 시민운동은 전반적으로 대사회적인 통일·인권·환경에 대한 관심영역을 확대시키면서 타종교 및 시민단체와의 연대활동을 강화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달라이라마 방한 운동과 지리산댐 백지화 운동은 전 국민적인 관심을 불러 일으키면서 불교 시민운동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불교 시민운동은 새로운 도약을 위해 많은 난제를 안고 있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불교 통일운동의 경우 전문가 부재와 대북창구 단일화 및 단체간 역할분담 등의 과제를 남기고 있다. 단기적인 성과위주의 일회성 행사 보다는 통일을 대비한 북한불교(사) 연구, 농업기술 지원 등 장기적인 안목으로 교류사업을 펼쳐야 한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인도적 차원의 생필품 및 의약품 지원을 더욱 강화하고, 북한주민의 열악한 인권상황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이밖에 일부 불교단체 종사자들의 전문성 부재와 활동가 부족, 스님과 사찰에 의존한 재정난과 열악한 근무조건, 업무탕 폭주 등에 따른 의욕저하 등 만성적인 개선점도 산적해 있다.

불교시민사회기금(통일기금 등) 설치, 불교시민사회육성위원회 설치, 단체 종사자 교육 및 복지혜택, 사찰 기금출연 및 지원에 따른 분담금 감면 등을 골자로 하는 '불교시민사회단체 육성과 지원을 위한 법률'(가칭)안을 조계종 중앙종회에 상정하는 제도적 지원 노력도 계속되어야 한다.

김재경 기자

게시판

알림

▲사랑나누기 하루찻집=부산 내원정사는 중앙동 쌍계다실에서 지역내 불우이웃을 돕는 사랑나누기 하루찻집을 개최한다.(051)242-0691

▲어르신 송년잔치=서울시립 성북노인종합복지관은 22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복지관 3층 강당에서 어르신 송년잔치를 개최한다. 이날 행사는 축하공연, 어르신 작품전시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02)737-0698

강좌

▲불교교리=조계종 국청회는 내년 1월 5일부터 3월 30일까지 3개월간 불교교리강좌를 개최한다. 강의는 매주 금요일 오후 7시 국청회 법당에서 진행되고 법사는 무진장스님이다.(02)730-1249

▲미황사 한문학당=해남 미황사는 내년 1월 3일~10일, 1월 13일~20일 두차례에 걸쳐 초등학교 4~6학년을 대상으로 한문학당을 연다. 참가자들은 사찰에서 숙식을 하며 붓글씨, 한문, 생활예절, 참선과 요가, 다도를 비롯해 문화체험 프로그램으로 전통등 만들기, 연날리기 등의 지도를 받게 된다.(061)533-3521

모집

▲어린이 겨울불교학교 교사=강남포교원은 28일부터 30일까지 2박 3일간 펼쳐지는 어린이 겨울불교학교를 진행할 지도교사를 모집한다. (011)237-4478 이주영

▲금강율원 학인=봉녕사 금강율원은 강원을 졸업하고 비구니계를 수지한 학인을 대상으로 2001학년도 신입생을 모집한다. 원서교부 및 접수는 내년 1월 3일까지이며 제출서류는 수행이력서, 승려증 사본, 은사스님 추천서, 강원 졸업증명서 등이다.
(051)256-4127

▲사회복지사=송파재가노인복지센터는 20일까지 사회복지사를 모집한다. 사회복지(사업)학과 졸업예정자이면 누구나 응시가능하며 제출서류는 이력서, 자기소개서, 성적증명서, 사회복지사자격증 사본 등이다.(02)2203-3677

이전

▲주간불교신문사는 15일 마포구 서교동 353-1 서교스카이타워빌딩 909호로 이전했다.
대표전화는 (02)734-0777 그대로다.

모집
제6기 불심호스피스 · 간병과정

불교복지보건대학은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들을 돌보기 위하여 불심 호스피스 및 간병봉사 전문과정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보건지식 및 간병에 대한 교육과 실습을 통하여 가족의 건강관리는 물론 이웃의 고통을 덜어주고 사회 봉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교 육 내 용

- 마음, 만 생명의 근원(마음개발)
- 인간의 이해 및 봉사자의 자세
- 사회복지와 보건복지
- 산모간호와 애기 돌보기
- 물리치료 및 재활요법
- 말기환자간호 및 통증관리
- 기초간호 실습
- 만성질환과 간호
- 호스피스 역사와 철학
- 말기 임종환자와의 의사소통
- 임종간호와 영적간호
- 건강증진법
- 음악과 건강
- 건강과 질병(노인간호)
- 경락 이론 및 맛사지
- 한의학 이론과 한방간호
- 심신이완요법(발반사요법)- 3회
- 병원견학 및 실습
- 생명의 의지와 가치
- 거동이 불편한 환자간호
- 불교호스피스

강 사 진 스님, 의대 · 간호학과 교수 및 최고실무 경험자

개 강 일 : 2001년 1월 9일 (화요일)
강의시간 : 2001년 1월 9일(화)~4월 6일(금)
강의시간 : 매주 화 · 금 (오후 2~5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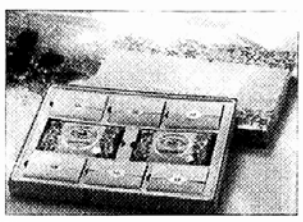
대 상 : 19세이상 ~ 60세까지의 남 · 녀
수 강 료 : 월 5만원(교재비 포함)
특 전 : · 수료증 수여 · 봉사활동 지원
· 유급활동을 위한 지원 가능

불교복지보건대학
명예학장 성오스님(부산광역시 불교연합회 회장)
학 장 혜도스님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3동 1163-5 대야빌딩 4층

문의 및 접수
051) 462-5670

"향기"로 아름을 날린다!!
香妃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 기미, 스트레스가 말끔히…
혈(血)이 맑아지고 모든 통증이 사라집니다.



향비는 1997년 제15회 동경국제박람회에 출품하여 우수상품으로 선정, 향요법을 통한 여성 건강 증진 효과가 또 다시 입증되었고, 현재 독일, 일본, 오스트리아 등 세계 8개국에 수출됨으로써 여성 고민의 근본적인 해결책임이 밝혀졌습니다.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여성 고민은 끝~

이 향비를 신궐혈(배꼽)에 착용하면 방향약용식물의 성분이 신궐혈을 통하여 인체에 흡수, 혈액 순환계통에 진입하여 각종 효과를 냅니다.
향비는 자연향인 피톤치드가 세라토닌이라는 물질을 생성시켜 음식물 과식억제를 하므로 비만이 이루어 질 수 없게 합니다.
태아가 엄마의 탯줄을 통해 모태에서 영양을 공급받는 것처럼 신궐혈(배꼽)에 향비를 착용하면 인체의 음과 양, 기력, 장부 조절을 비롯해 자율신경 내분비 개선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향비는 프로호르몬의 생성을 촉진하는데 이 프리호르몬은 우리 몸의 균형을 조절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증강시킵니다. 그렇습니다. 이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이나 생리불순, 두통이나 불면증, 기미, 괴부 및 혈액순환에 좋으며 자신도 모르게 좋은 향기를 발산하게 됩니다. 이제 향기로 건강을 지키는 향요법 향비를 꼭 기억하십시오.

"배꼽"에 간단하게 착용하면, 침의 효능, 뜸의 효능, 약리작용의 세가지 복합 효능을 동시에 느낄 수 있습니다.

▶ 체험사례

생리통 · 기미

저는 25세의 회사원입니다. 항상 생리때마가 되면 끊어질듯 아프며 거기다 두통까지 겹친 생리통으로 고생해왔습니다. 그래서 양약이며 한약도 여러번 지어 먹어 보았지만 별다른 효과를 얻지 못했던 터에 한방과 건강이라는 책을 통하여 향비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 향 요법을 자세히 읽어보니 매번 약을 먹는 것보다 인체에 전혀 부작용이 없는 향비팩을 배꼽(신궐혈)에 차는 것만으로 좋아진다고 하기에 반신반의하며 착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난후 생리를 하게되었는데 정말 놀랍게도 모든 증상이 말끔히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한달여일이 지난후에는 눈주위의 기미때문에 남몰래 고민해 왔었는데 그런 기미마저도 서서히 없어지는 것을 느끼며 나 자신도 몰라볼 정도로 피부와 혈색까지 좋아졌음을 확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향비를 누구보다도 사랑하게 되었고 그동안 이런 제품이 왜 더 빨리 나오지 않았었나 하는 아쉬움까지 남겨질 정도로 향비에 대한 고마움을 느끼며 모든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게되어 제품을 만드신 분들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서초구 김미선)

※ 전국 대리점 모집중 ※

고려물산 한국방향연구소 080-200-4545, 02)755-9821

해당되는 증상에 (O)하십시오.

1. 피부가 거칠고 탄력이 없다.
2. 두통이 있거나 빈혈이 있다.
3. 불면증이 자주 있다.
4. 허리통증이 있는 편이다.
5. 기미가 있다.
6. 신경이 예민하나 신경성이 있다.
7. 우울증이 있거나 의욕이 없다.
8. 생리주기가 정상적이 아니다.
9. 생리통이 심한 편이다.
10. 생리때 빛깔이 검고 탁하다.
11. 배나 복부 근처에 살이 찐 편이다.
12. 피로를 자주 느끼는 편이다.
13. 가슴이 답답하고 열기가 위로 올라간 것 같다.
14. 발바닥이 갈라지거나 트고 굳은 살이 있다.
15. 전반적으로 혈액순환이 안되는 것 같다.
16. 목이 뻐근하거나 눈이 침침하다.
17. 변비가 심한 편이다.
18. 당뇨나 갑상선으로 고통을 당한다.

※2가지 이상 해당되시는 분은 즉시 전화하세요.

군장병들이 기다리는 '보살들'

신행현장 연천 향지모임

지난 6일 오후 6시 경기도 연천의 평범한 가정집. 노란색 앞치마를 두른 10여명의 보살들이 음식을 준비하느라 분주하다. 이들이 만드는 음식은 다름아닌 군인들이 제일 먹고 싶어한다는 떡볶이. 이미 큰 솥 2개에는 50인분의 떡볶이가 부글부글 끓고 있다.

음식에 간을 보고 있는 신안자 보살이 시계를 쳐다보고는 깜짝 놀란다. "서둘러야겠어. 이러다간 법회시간에 늦겠다." 신 보살은 이미 오늘 저녁 떡볶이를 맛있게 먹을 군인불자들을 생각하고 있다.

음식을 만드는 이들은 모두 '향지모임' 소속 회원들. 대부분 주부로 구성된 '향지모임'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향기롭고 지혜롭게 살자는 취지로 98년 창립했다. 8년전 5사단 군법당인 광복통일사에서 불교교양대학을 수강하며 인연을 맺은 이들은 군포교에 원을 세우고 매주 한차례씩 연천지역 5사단과 25사단 20여개의 군법당을 찾아다니며 불자 장병들에게 떡국, 초코파이, 커피 등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몇몇 보살들은 이에 더하여 별도로 군법당 건립 불사에 앞장서며, 군법사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군법당을 꾸준히 찾아가 군장병들을 보살피고 있다.

이들이 엄마의 마음, 누나의 정성으로 베푸는 손길에서 군인들은 자연스럽게 관세음 보살의 자비를 느낀다. 초코파이 하나 먹기 위해 처음 법당에 나온 장병들도 이들의 따뜻한 마음에 감화받아 불심 깊은 청년불자로 거듭나는 모습이 뿌듯하고, 그러한 모습을 지켜보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하는 일에 혹 나태함이 없는가 자신들을 돌아보곤 한다는 것이 향지모임 회원들의 이구동성.

김이 모락모락 나는 솥을 차에 싣고 향지모임 보살들은 정수포교당으로 달려갔다. 대대급 군법당인 정수포교당 안에는 이미 군장병들로 가득했다.

"야! 어머니 오셨다." 솥과 식기들을 법당 한켠에 옮겨놓은 향지모임 보살들은 곧이어 군장병들과 함께 법회를 봉행한다.

"부처님, 우리 아들들이 아무탈 없이 군생활을 마치게 도와주세요"



◇향지모임 회원들이 군법당인 정수포교당에서 군장병 불자들과 법회를 봉행하고 있다.

군법당 20여곳 후원
매주 음식마련 순회
"아들같은 군불자들
아무탈 없길 기원"

향지모임 보살들은 두손을 곱게 모으고 오늘도 이같이 서원했다.

법회후 다과시간.

"천천히 먹어. 그러다 체할라" 이명자 보살이 걱정이 되는 듯 말을 걸어보지만 군 장병들은 이미 음식삼매에 빠져버린 듯 정신없이 떡볶이를 집어먹는다. 땀을 흘리며 열심히 먹는 장병에게 명공주 보살은 마치 아들에게 하듯 "먹고 싶은거 있으면 이야기해. 다음에 만들어 올테니깐" 하며 등을 쓰다듬어준다.

8년째 군법당을 찾는다는 박미영씨는 "지난 초파일 저녁 연등행렬을 마친 군인들이 보살님을 위해 준비했다며 노래를 부르는 모습에 나오는 눈물을 억지로 참았다"며 "전역해도 어머니 잘 계시냐고 전화나 편지를 하는 장병도 많아 보람을 느낀다"고 말한다.

향지모임 회장 이형숙 보살은 "젊은 군인들에게 불법을 알리면 제대 후 가정을 가졌을 때 적어도 아내와 자식들까지도 불교와 인연을 맺게 할 수 있다"며 "젊은청년들이 미래 불교의 주인공이니 만큼 많은 사람들이 군포교에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보살은 또 "50여명의 회원들이 십시일반 내는 회비로는 군장병들을 후원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군법당에 차(茶)보내기 운동 및 군법당 건립에 관심있는 불자들의 후원을 기다린다"는 말도 잊지 않았다.

향지모임은 군법당 후원 및 군장병을 위문하는 일 외에도 독거노인, 소년소녀 가장돕기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또한 매년 봄 사찰순례를 통해 회원들의 친목과 신심을 다지고 있다.

(031)832-0719. 김두식 기자 (doobi@buddhapia.com)

생활속의 불교 — 스스로 샘물을 찾지 않으면…

계절병 같은 '대학 입시'의 열풍이 온 나라를 휘젓고 다니는 때가 되었다. 희(喜)와 비(悲)의 쌍곡선이 수많은 입시생과 그들 가족들의 기분을 하늘과 땅 차이로 벌려 놓기도 할 것이다. 그리고 그 기분은 직접 관련된 사람이 아니라도 이 나라에 사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느끼는 바다.

한국 사회에서 '대학'이라는 이름은 필요 이상으로 그 의미가 부풀려져 있고, 상당 부분은 누구도 외면하기 힘든 현실적 영향력을 지니고 있다. 대부분의 사람이 '대학'에 집착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다. 오죽했으면 '지옥'이니 '전쟁'이니 하는 살벌한 말까지 생겨났을까.

어쨌거나 한국 사회에서 대학의 의미는 각별하다. 학력(學歷)의 차원에서든 학력(學力)의 이유에서건. 아마 전자의 의미가 더 클 것이다. 왜냐? 보다 나은 조건과 기회를 제공할 것이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학력(學歷)에 따른 차별을 비판하기에 주저하지 않는다. 그러나 자기 자식에 대해서 만큼은 그러한 비판을 차별 적용한다.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지 않느냐는 변명과 함께. 부모의 입장에서는 누구나 비슷할 것이고 보면 이해하지 못할 것도 없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한 이중적 태도가 하루 아침에 바로잡힐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데 있다. 학력 집착이라는 심리 상태의 이면에는 뿌리 깊은 인간의 나약성과 의타심이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러 것에 의지하며 살아간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철석같이 믿는다. 돈·권력·명예·학벌 따위가 대표적인 것들이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밖에 있는 것들이다. 나의 '본래 면목'과는 무관한 것들이다. 원한 대로 되는 것이 아님은 물론이거니와 설사 원한 대로 얻었다 할지라도 한 순간에 사라지는 물거품이나 신기루 같은 것들이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거기에 모든 것을 걸 듯이 덤벼든다. 꽃감 단 맛에 배탈 나는 줄 모르는 격이다.

남이 퍼준 물 한 바가지는 마시고 나면 빈 바가지가 된다. 스스로 자신의 샘물에서 떠 먹지 못하는 한, 누구든 남을 쳐다보며 기갈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학력'이라는 것, 남의 바가지에 뜬 한 모금의 물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龍眼

주제가 있는 법문

'심청정 국토청정' 나와 자연 함께 사는 길



원행스님 구룡사 주지

〈유마경〉에 "맑고 깨끗한 불국토를 원하거든 마땅히 그 마음을 깨끗이 하라. 마음이 맑고 깨끗해짐에 따라 불국토는 깨끗해지는 것이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신을 청정하게 하면 이 국토도 청정해진다는 말입니다.

자신의 수행이 부족하고 깨끗하지 못한 마음이 있다면 불국토는 멀리 있는 것입니다. 바로 심정토(心淨土)가 불국정토(佛國淨土)라는 것이지요. 그러니 우리가 살아가는 곳이 불국정토인지 예토(穢土)인지는 각자가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찰환경의 문제도 사찰과 국가의 행정기관, 기업, 자치단체 사이에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불국정토에 한 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서로간에 진실한 대화가 필요합니다.

그러니 사찰 환경의 보존과

자연생태 해치지 않는 친환경적 불사 절실

보호는 우리의 마음과 육신에 있습니다. 자비행을 실천하는 각자의 마음에 달려있습니다. 자비행은 무엇을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무상보시의 마음입니다. 자연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마음은 심청정이니, 자신을 깨끗이 한다면 그것이 바로 불국정토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청정한 불국토를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부분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자연과 조화할 수 있는 우리 마음부터 먼저 깨끗이 해야 합니다. 정신문화의 발원지인 사찰을 수행도량이게끔 하는 것은 불자 자신을 구하는 길입니다. 그리고 사찰환경의 파괴는 단순히 자연환경의 파괴에 머물지 않고, 불교의 요체인 수행환경을 파괴한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역사에서 사찰은 참으로 중요한 정신적 구심점을 유지해온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찰은 중심적인 문화를 창조하고 새로운 역사를 능동적으로 이끌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정신이 배여 있는 곳이라 말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하지만 전통사찰보존법 문화재보호법 등 불교관련법 어디에도 사찰환경권을 보호하는 조항이 없습니다. 친환경적인 불사와 오염물질 방출을 최소화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시민단체와의 교류를 활성화해 환경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책이 필요합니다.

신라시대의 불교는 '생사일여 일즉다 다즉일(生死一如 一卽多 多卽一)'의 화엄사상을 바탕으로 삼국을 하나로 하는 통일국가를 이루었습니다. 이러한 힘은 다양한 불교문화를 창조하고 민생안정과 국민정신문화를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현대의 물질적이고 기계적인 사고는 이러한 정신적인 구심점을 버리고 개발논리를 앞세워 환경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중한 불교의 정신 및 역사·문화가 국가정책과 기업들의 이윤추구, 각 지자체에 의해 파괴되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또한 사찰의 불사도 무조건 크게 한다거나 화려하게 하지 말고 자연을 거스르지 않는 친환경적인 불사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야 합니다. 자연은 불법(佛法)의 진리와 다르지 않습니다. 자연자체가 하나의 불당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찰의 불사도 자연과 함께 하고 그 형태에 맞는 조건을 갖추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자연생태를 무시한 불사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불교가 융성한 국가들은 그 나라의 조건과 기후, 풍토에 맞는 형태의 가람배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람을 수호하는 측면과 개인적인 수행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함께 고려한 것입니다. 곧 자신과 이웃, 우리 모두가 자각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方便)입니다.

불사는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이 아니며 결국 깨달음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행캘린더

12월 20일 (수)

■ 능인선원 동지철야 용맹정진=능인선원은 오후 11시부터 동지철야 용맹정진 및 기도를 실시한다.(02)577-5800

12월 21일 (목)

■ 영남불교대 송년의 밤=영남불교대학은 오후 7시 대법당에서 송년의 밤 행사를 개최한다.(053)474-8228

■ 소아암환자 돕기 디너쇼=반야연예인 포교단은 오후 6시 부산 동래 허심청에서 소아암환자 돕기 디너쇼를 개최한다. 이번 공연에서는 국악인 공옥진, 가수 머루와다래 탤런트 이미영, 개그우먼 김성은씨등 불자 연예인 다수가 출연한다.(02)765-1519

■ 조계종 국청회 수련법회=조계종 국청회는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천 보탑사와 천안 각원사에서 수련법회를 봉행한다.(02)730-1249~5

12월 22일 (금)

■ 서울불교청년회 수계법회=서울불교청년회는 24일까지 남양주 봉선사에서 기초교육원 100기 수계법회를 봉행한다.(02)730-9108

■ 쌍계사 국사암 산사문화체험=쌍계사 국사암은 25일까지 산사문화체험 행사를 실시한다. 이번 행사는 참선, 불교음악 및 미술 강의로 진행된다.(055)883-8801

■ 한라산 원명선원 삼매체험=제주 한라산 원명선원은 27일까지 재가자 단기 출가프로그램인 삼매체험을 무료로 실시한다.(064)755-3322

12월 23일 (토)

■ 보현문화회관 지산거사 추모법회=보현문화회관은 오후 5시 설팁자 지산거사 추모 4주기를 기념해 수덕사 법장스님을 법사로 법회를 봉행한다.(042)624-6555

■ 신흥사 어린이 겨울불교학교=신흥사는 25일까지 유치원·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제 46차 어린이 겨울 불교학교를 개최한다.(031)-357-2695

■ 상월원각 대조사 90회 탄신 봉축 법요식=천태종은 오전 11시 구인사 대조사전에서 상월원각 대조사 90회 탄신 봉축 법요식을 봉행한다.

■ 전국 교원불자 동계수련법회=천태종 구인사는 유·초·중·고·대학 교원들을 대상으로 25일까지 인광당 5층에서 동계수련법회를 갖는다.(043)420-7310

■ KBS불교연구회 송년법회=KBS불교연구회는 정오에 여의도 불교문화원에서 송년법회를 개최한다.(02)781-16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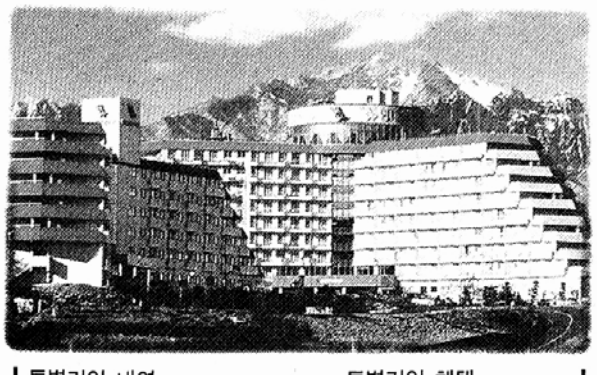
12월 24일 (일)

■ 강남포교원 송년법회=강남포교원은 오전 11시 설법전에서 송년법회를 봉행한다.(02)539-2631

현대 훼미리 설악콘도 특별 혜택

가고싶은 설악 품고싶은 동해

설악 콘도 23평 ~~1,584~~만원을 350만원에



특별가입 내역		
평 형	총분양가	특 별 가
23평형	~~1,584~~	350
사용일수	객실형태	객 실 수
30박	방2/거실1	477

특별가입 혜택
1 계약과 동시에 전국 23곳 이용 가능
2 10년 만기후 전액환불 및 연장가능
3 연회비, 입회비 평생면제
4 초정약수 스파텔 VIP 초대권 증정
5 초정약수 (탄산수) 무료 한정 공급
6 양도, 양수, 매매 상속 가능
7 신용카드 장기분할 가능 (12-18개월)

■ 온라인 카드결재 안내
국민은행 : 805 - 25 - 0012 - 481
예 금 주 : 주) 현대훼미리리조트

문의안내 02) 545-4955

주) 현대 훼미리 리조트
HYUNDAI FAMILY RESORT CO., LTD

골다공증 관절염 류마티스

'물렀거라, 상어연골정제로 완전해방'

퇴행성 류마티스성 통풍성 관절염 자연추출미생물 이온화 '코랄샤크골드' 복용 1개월만에 확연한 화제만발



계단을 오르거나 약간의 활동만으로도 무릎이 쑤시고 저리는 경우(관절염) 관절이 뻣뻣해지면서 심한 통증이 오는 경우(퇴행성 관절염), 여기저기 곳곳이 붓고 아프고 힘들며 물이 고이는 경우(류마티스성 관절염), 걷지 발가락이나 팔꿈치가 붓고 움직이기 힘든 경우(통풍성 관절염). 이 모든 증상으로부터 완전 해방될 수 있는 건강식품이, 수입돼 화제다.

최근 뉴질랜드에서 수십년간에 걸친 연구결과 끝에 개발된 '상어연골정제' 상어에서 추출된 특수갈슘과 마그네슘, 세레늄 등 기타 자연에서 추출된 미생물을 복합 이온화하여 인체의 흡수율을 높여주는 원리로 이루어진 '상어연골정'은 닮아 없어지는 물렁뼈가 생성되고 골이 빈 곳에 인이 채워져 골다공증을 잡아주며 몸에 나쁜 물이나 균을 잡아 정상인으로 회복시키는 효과가 탁월해 세계적으로 인기리에 판매되고 있다.

코랄샤크골드는 불치의 병으로 여겨졌던 관절염, 류마티스, 통풍, 퇴행성 환자들에게 희소식으로 여겨지는 '상어연골정'은 국내 삼일양행(02-790-8200)에서 독점 시판하고 있으며 부작용 없이 1개월 복용부터 확실한 효과가 검증되고 있어 연일 주문이 쇄도하고 있다.〈코랄샤크골드〉

한달분 22만원, 두달분 40만원

IMF다이어트 인기급등

민인들의 희소식. 최근 삼일양행에서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하여 가격을 공장도 가격으로 인하하였고 또한 효과를 최대한 증대시킨 것이 바로 IMF 다이어트이다.

이 다이어트의 특징은 한방에서 추출된 특수성분이 함유되어 부작용없이 자연스럽게 몸에 흡수된다는 것. 현대인들의 운동부족과 영양섭취로 인하여 누적되는 지방분과 기존의 체지방을 감소시키는 방법으로 식전복용이 더욱 효과적이며 단기간 감소요법 보다는 꾸준히 몸에 무리가 가지않는 효과를 가지며 3-4개월 지속적으로 복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말한다.

남성과 여성, 출가를 원하는 여성 출산후 오는 비만 등 많은 분들로부터 희망을 주는 다이어트로 거듭태어났다고 한다. 비만인들의 희소식은 틀림없으며 한방성분의 10여가지 조화가 균형을 잡는 비법이라고 한다. 삼일양행측은 IMF 졸업할 때까지 현재가격을 고수하겠다고 하여 화제가 되고 있다.

IMF다이어트 1개월분 88,000원
■문의 : 삼일양행 서울(02)790-8200

침술 무료 치료 안내

- 50견(견비통, 어깨통증)
- 경추 디스크(목 관절염)
- 요통 허리디스크
- 좌골 신경통
- 무릎 관절염
- 만성 두통
- 위장병(위염, 위산과다, 위궤양)
- 두통
- 아토피성 피부병
- 불임증
- 협심증

영재 한의원 02-762-5510
종로6가 백제약국에서 동대문쪽으로 가다가 첫번째 골목으로 들어옴

현대불교신문사 구독문의 02-七三七-八八一



박태원 교수의 17

불교로 보는 인생

진짜와 가짜의 분기점

일상의 타성적 안락보다 삶의 고통서 얻는 자유

요즘 나는 꽤나 호사를 부린다. 산사의 아늑함을 연상케 하는 전망과 환경에 끌려 지금 있는 거처를 마련한 것이 지난해 여름이다. 베란다에 흔들의자 하나 놓고는 눈앞 가까이 펼쳐진 산에 물드는 계절의 풍광을 만끽하며 공부도 흥내낸다. 부쩍 주위에 넘쳐나는 지친 호흡들을 떠올리면 미안한 마음이 고개를 들곤 할 정도이다. 산색에 물리면 비디오 가게를 기웃거리기도 한다. 언젠가 불연(佛緣) 지우(知友)인 성공회대학 신방과 김용호 교수를 철학과 초청강연회 연사로 불러 세웠더니, 이 친구 수많은 청중 앞에서 하는 말이 "박 교수는 아직도 비디오가 없는 야만인"이라 했던가. 그 말에 자극 받아 지난해 입주할 때 일부러 비디오 재생기를 마련했다. 처음에는 강의 소재 찾는다는 핑계로 시작했지만, 불만한 작품들이 생각보다 많아 요즘은 내킬 때마다 단골 비디오 가게를 찾는다.

오래 여운이 남는 작품 가운데 '세상의 모든 아침'이란 프랑스 영화가 있다. 출세가 보장된 왕궁 악사의 박제된 삶을 외면하고, 고궁극은 언어도 침묵도 아니야. 침묵은 단지 언어의 이면일 뿐. 음악은 지친 자, 길 잃은 자를 위한 것. 빛과 어둠, 생명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이지." 이어 아내의 환상을 보며 혼이 실린 생의 마지막 연주를 마친 스승은 그 사랑을 따라 물 속으로 들어간다.

진짜와 가짜는 어디에서 갈라지는 것일까. 삶의 고통이 그 분기점에 있는 것 같다. 화려해 보이는 삶의 토대가 얼마나 부실하고 위험한 것인지를 절감하느냐에 따라 인생의 진짜 성숙과 가짜 미화가 갈라진다. 진정 깊이 만족하고, 크게 자유롭고, 흔들리지 않는 평온을 누리려면, 일상의 타성적 안락과 허망한 들뜬 기대의 부실한 이면을 일단 거세게 헤집어 보아야 한다. 어설픈 미화나 어중간한 타협이 주는 평안은 비록 그럴 듯해 보이지만 불안할 수밖에 없는 가짜배기. 진짜의 조건은 삶의 불안과 만족스럽지 못함에 대한 깊고 절절한 통찰이다.

영혼을 울리고 정화시키는 위대한 사상과 예술은 모두 어떤 형태로든 격렬한 고통의 문을 통과한 것이다. 일상의 토대가 본질적으로 동요되는 '지침과 헤맴'을 겪어야 구원의 길이 제대로 눈에 들어온다. '크게 죽어야 크게 산다'는 선구(禪句)는 이 대목에서도 통한다. 그 무엇에도 걸리지 않는 마음의 자유와 최고의 만족으로 이끄는 부처님 가르침의 첫 출발은 '삶의 불만족에 대한 통찰(苦聖諦)'이 아니던가.

정치·경제의 엉터리 같은 혼란이 꼬리에 꼬리를 문다. 냉소와 허탈과 분노와 자학이 넘쳐난다. 그러나 밝게 보자. 큰 동요와 혼란, 격렬한 불안과 고통이 대비되어야 위대한 안락과 평안과 만족의 지평이 선명해지는 법. 어물쩍 덮어 버리거나 기만적으로 위장해 버리지 않는 정직함으로 당당하게 대면하자. 그럴 때 이 터무니없어 보이는 현장은 진짜배기를 키우는 기름진 도량일 터. 내 일상의 요즘 호사를 짐짓 눈 치켜 뜨고 지켜본다.

▒ 울산대 철학과 교수
(twpark@uou.ulsan.ac.kr)

손가락 맞잡고 반가부좌 염송

참불자의 길

주력② - 진언 어떻게 하나

주력(呪力)을 얻기 위한 대표적 수행법인 진언(眞言)은 어떻게 해야 할까.

참된 부처님의 말씀이며 깨달음의 깊은 뜻이 담겨 있다는 의미의 진언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주문(呪文)과는 전혀 다르다. 그래서 진언은 주문을 외우듯이 단순하게 입으로만 읊조리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결인(손가락을 맞잡는것)을 하고 염송(念誦)해야 한다.

경문에 나오는 진언은 대개 불·보살의 간절한 서원을 단 몇 마디에 함축한 것이므로 원어 그대로 독송하면 된다. 이때 머릿속으로는 그 뜻을 새기면서 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삼밀관행법' 널리 알려져

이런 진언 수행법 가운데 널리 알려진 것이 진각종의 기본 수행법인 '삼밀관행법(三密觀行法)'이다. 법신 비로자나 부처님의 본성과 나의 본성이 일여평등(一如平等)함을 체험하여 진리를 터득하기 위한 삼밀관행법은 몸으로는 금강권(금강지권)을 결인하고, 입으로는 본존(本尊) 육자대명왕진언 '옴마니반메훔'을 염송하며 머릿속으로는 본존을 관(觀)하는 수행법이다.

삼밀관행법을 행할 때는 절대로 불·보살의 깨달음을 상징하는 결인을 풀지 말아야 하며, '옴마니반메훔' 이외의 다른 말을 해서는 안된다. 또한 결인한 손으로 얼굴을 만지거나 머리를 긁는 등 흐트러진 행동도 삼가해야 한다.

삼밀관행 진언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손가락을 맞잡고 하는 결인이다. 진각종에서는 거의 금강권과 금강지권을 한다. 앉거나 서서 삼밀관행법을 할 때 하는 결인인 '금강권'을 하려면 우선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셋째와 넷째 손가락 사이의 셋째 마디에 놓아야 한다. 그리고 셋째·넷째·다섯째 손가락(이 세 손가락은 삼밀을 나타냄)으로 감싸면서 집게 손가락 끝을 구부려서 엄지 손가락의 첫째 마디에 갖다 놓으면 된다. 이때 왼손 바닥을 포개어 오른손을 덮는다.

정식으로 반가부좌하여 하는 결인인 금강지권은 우선 왼손으로 금강권을 하되, 집게 손가락을 세워야 한다. 다음으로 오른손 엄지 손가락을 셋째와 넷째 사이의 셋째 마디에 놓은 후, 왼손의 집게 손가락을 오른손 엄지 손가락에 연결시킨다. 마지막으로 오른손 집게 손가락 끝을 구부려서 엄지 손가락의 첫째 마디에 갖다 대면 된다.



◇비로자나 부처님과 나의 완전한 상응을 뜻하는 금강지권한 손모습.

진각종 종학연구실장 혜정 대정사는 "진언할 때 결인을 하는 이유는 부처님이 중생에게 법을 전할 때 결인하는 것에서 따온 것"이라며 "손을 맞잡는 인계를 하고 진언하면 법을 듣는 것 뿐만 아니라 설하는 것까지 포함돼 자신이 곧 법신이 되는 의미를 뜻한다"고 설명했다.

염송 할 때도 먼저 호흡을 크게 세번 한 뒤 몸에 맺혀 있는 해로운 기운을 없앤 후, 본존 '옴마니반메훔'을 외우는 것이 좋다. 이때 호흡은 '옴마니반메훔'을 5회 정도 입으로 염송하면서는 날숨을 쉬고, 송함을 멈추면서는 순간적으로 코로 크게 들어마시는 들숨을 취한다.

어디서든 시간 정해놓고

관상하는 방법에도 여러 가지가 있으나 진각종에서는 '육자관(六字觀)'을 사용한다. 본존의 6자를 행자의 몸에 포자(布子)하면서 입으로 부른다.

진언을 부르는 장소는 어디든지 상관이 없으며 매일 10분, 1시간, 3시간, 7시간 등 시간을 정해 놓고 하는 정송(定誦)을 원칙으로 한다. 수를 세면 정신 집중이 안돼 마음이 산란해지기 때문이다.

혜정 대정사는 특히 진언 수행법을 많이 하면 우주 법계를 통합할 수 있는 능력과 자신의 부족이 채워지는 공덕력, 부처님의 가피력 등 세 가지 공덕을 얻을 수 있어 수행에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김주일 기자
(jikim@buddhapia.com)

2000년 기획

禪과 21세기

언어는 견성으로 가는 중요한 수단

39 선과 언어 (3)



김태완
부산대 강사·철학

이제 조사선의 어록에서 언어와 관련한 언급이나 깨달음의 일화를 통하여 선과 언어의 관계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겠다. 먼저 〈육조단경〉에서 혜능이 언어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를 알아보자.

오조 홍인이게 의발을 부촉받고 남쪽으로 피해 가는 혜능을 뒤쫓아와 법을 설해주기를 간청하는 혜명에게 준 혜능의 가르침은, "선도 생각지 않고 악도 생각지 않는 바로 이러한 때에, 무엇이 그대의 본래면목인가?"라는 말이었다. 혜명은 이 말을 듣고 깨달음을 얻어 혜능의 첫 제자가 된다. 여기서 '선도 생각지 않고 악도 생각지 않는 바로 이러한 때'란 곧 모든 사량분별을 쉬어버린 때를 말하며(破邪이다), 모든 사량분별을 쉬어버린 때에 드러나는 것은 오직 여여한 자성뿐인데(顯正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본래면목이다.

이처럼 혜능의 가르침은 언어 곧 사량분별을 쉬어버린 곳에서 자성을 보라는 것이다. 그러나 사량분별을 쉰다는 것이 무언(無言)의 침묵 속에 잠긴다거나 생각이 깨끗이 비어버린 허공 속에 머문다는 말은 아니다. 그렇게 한다면 도리어 공(空)에 집착하는 변견(邊見)에 빠지는 것이라고 혜능은 분명히 말하고 있다.

선문(禪門)에서는 무념(無念)·무상(無相)·무주(無住)를 내세운다고 〈육조단경〉에서 말하는데, 이 때 무념이나 무상은 '생각(念) 속에서 생각이 없는 것'이며 '상 속에서 상을 벗어나는 것'이지, 생각과 상을 버리고 허무(虛無)에 빠지는 것이 아니다. 즉 무념은 생각 속에서 생각이 아닌 자성(自性)을 보는 것이며, 무상은 상 속에서 상이 아닌 자성을 보는 것이다. 이처럼 생각과 상 속에서 생각과 상에 머물지 않는 것이 곧 무주이다.

요컨대 상(相) 속에서 성(性)을 발견하라는 것이지, 상을 버리고 성을 찾으라는 말은 아니다. 성은 상이라는 작용 속에서 드러나는 것이므로, 성만으로는 어떻게도 드러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이것은 달리 말하면 말 속에서 깨달음을 얻으라는 것이지, 말을 버리고 깨달음을 얻으라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깨달음은 말을 잊고 고요히 앉아 삼매에 빠짐으로써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설법과 경청 혹은 문답 속에서 얻어지는 것이다. 자성은 언어라는 상을 드러내는 작용을 통하여 자신의 존재를 알리기 때문에, 자성의 파악은 언어 속에서 가능한 것이다. 조사선에서 깨달음이 늘 '말 아래의 깨달음(言下便悟)'이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 점은 〈육조단경〉의 후반부에 혜능이 이른바 10대 제자들에게 종지(宗旨)를 잃지 않게 법을 설하는 방식을 가르치는 부분에도 잘 나타나고 있다. 혜능이 가르치는 설법(說法)의 방식이란, 법을 설함에는 반드시 두 개의 상대법(한 쌍의 모순개념이나 상대개념)을 함께 제시하여 모든 법은 상대적이고 의존적으로 성립할 뿐 홀로 존재할 수 없음을 보임으로써, 두 상대법의 어느 쪽에도 머물지 않는 중도의 길로 이끄는 것이다. 이리하여 법이란 모두 상대적 사고체계 속에서 연기적으로 드러나는 관념적 구성물일 뿐임을 밝히고, 그와 같이 법을 연기적으로 발생시키는 것이 바로 자성의 작용임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자성은 물론 연기라는 작용으로 드러나지만 어떠한 상대법에도 속하지 않는다. 즉 자성은 다만 연기하는 작용일 뿐 어떤 법은 아니다. 다시 말해 자성은 지금 이 순간의 머무름 없는 작용일 뿐이다.

혜능이 설법이나 문답을 통하여 깨우치고자 한 것은 이처럼 언어동작 속에서 자성의 작용을 깨우치려 한 것이었다. 사실 〈육조단경〉과 그 이후의 조사선에서 기록되어 있는 깨달음의 사건들은 모두 설법을 듣거나 문답 도중에 말을 듣고 깨달았다는 것들이며, 조사선을 계승한 후대의 간화선에서 깨달음의 방편으로서 화두(話頭)를 이용하는 것도 같은 맥락에 있다.

따라서 선에서는 언어를 십분 활용하여 견성을 추구하고 있지, 언어를 버리고 침묵을 지키기를 요구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언어는 견성을 향한 가장 중요한 수단이다.

柱推命學情解書
韓國人의 新 사주팔자
누가 운명(運命)을 논(論)하고
숙명(宿命)을 운운(云云) 하는가!
독학으로 가장 쉽게 배울 수 있는
21C 역학 지침서!
인간(人間)은 누구나 다 행복을 追求한다.
인생이 살아가는데 있어서 자신의 운명(運命)을 알고 그 運命에 대하여 대처(對處) 한다면 흉화(兇禍)의 액(厄)을 면(免)하고 전화위복(轉禍爲福)의 계기로 바뀌지 않겠는가.
■ 중국은왕조의 갑골문의 기록으로부터 3천년이란 장구한 세월동안 수많은 선현석학들에 의해 끊임없는 실험을 거쳐 완성된 이 명리학이 왜 현대에 이르러 더욱 그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는가? 마침내 벽에 부딪치고 그 한계를 드러낸 서양사상이 의지할 곳은 과연 어디인가?
어떠한 과학보다 더욱 과학적이며 어떠한 철학보다 더욱 오묘한 음양오행을 기초로 하여 선천을 파악하고 후천을 예지하는 청산 김성진 선생의「命理玉精」을 읽지않고 어찌 감히 운명을 감정한다 할 수 있겠는가!
화제의 신간

전국 서점 판매중!
정산 김성진 지음 신국판 양장본 값30,000원
관음역서 시리즈
1. 혜서 명리진평 신국판/혜서 조영수 편저/정가 30,000원
2. 21C 최신판 우리말 대운 만세력 4×6배판/혜서 조영수 편저/정가15,000원(大) 신국판/혜서 조영수 편저/정가 10,000원(小)
3. 재미있는 오행철학으로의 여행 신국판/김백만 편저/정가 12,000원(大)
4. 최신 풍수지리 핵심비결 신국판/양장본 김홍식 저/정가 30,000원
5. 신비의 영부적 대사전 신국판/김백만 편저/정가 40,000원
6. 그림 당사주 대전 신국판/이선암·진호일 공저/정가 25,000원
7. 사주학 핵심비결 신국판/양장본/송월스님 지음/정가 25,000원
8. 고전 풍수학 설심부 신국판/양장본/申枰 /정가 25,000원
9. 사주학 강의 신국판/법무博士 /정가 12,000원
10. 관상 수상학 강의 신국판/법무博士 /정가 15,000원
11. 신토정비결 신국판/백광 지음 /정가 8,000원
12. 사주임상록 신국판/양장본 이승욱 지음 /정가 25,000원
13. 전통풍수지리 월계관 신국판/양장본 진소 백 저 /정가 30,000원
14. 실전 사주학 길라잡이 신국판/ 김윤중 편저/정가 15,000원
최신 풍수지리 핵심비결
저자는 생기론(땅기운)을 한국최초로 발견하였다.
국내 제일의 풍수지리서이다!
새 천년 새 풍수를 잡아라.
◆ 땅의 비밀(秘密)을 소개(紹介)한다.
1. 땅은 길지(吉地)와 흉지(凶地)로 나누어져 있다.
2. 집터(陽宅)와 묘터(陰宅)는 좋은(吉地)터와 나쁜터(凶地) 땅기운이 흘어진다.
4. 나쁜 집(凶宅)터에서 살면 각종 질병(各種疾病)이 발생한다.
5. 그러므로 땅에는 명가(名家)와 흉가(凶家)가 있다.
6. 우리는 땅에서 나온 식물(植物)의 열매를 먹고 산다.
7. 그러므로 땅은 만물(萬物)의 어머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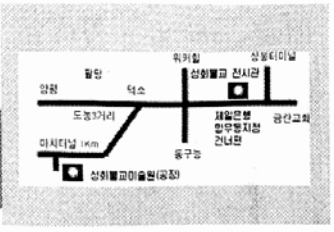
대도 김용식 지음 신국판 양장본 값 30,000원
신비의 영부적 대사전 김백만 편저

지금 절실이 당신이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바로 이 책을 필지 보십시오.
A5신/양장본 값 40,000원
어쨌든 지금 시험을 치르고 주택을 사고 주식을 사고 팔려고 하는 등 중대한 상황에 놓여있을 때 당신은 어떻게 결단을 내리겠습니까?
관음출판사 서울시 동대문구 용두동 751-15광성B/D 3층T.921-8434 F.929-3470

청동불상 제작 전문

지장 보살님

석가모니 부처님

관음 보살님
청동 불상, 천불, 삼천불, 만불, 개금, 탱화
장인정신에 입각해 혼을 불어넣은 조성
대덕스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조성
40여분의 개금불사 전시로 스님들의 폭넓은 선택기회 마련
탁월한 재질, 섬세함, 깨끗한 개금처리의 우수성
카다로그 필요하신 분 전화 주세요.
대덕스님들의 많은 성원과 조언 바랍니다.
대표 이상식 합장
주·야 상담합니다
※ 청동불 40여분 전시중 ※


서울시 중랑구 망우1동 133-33 태창빌딩(1층)
성화불교전시관·성화불교미술원
전시관 : 02)2209-0080, 0081
공장 : 031)591-1022 핸드폰 : 011)302-1022

나라 전체가 경제문제로 떠들썩하다. 자고 일어나면 부도 회사가 줄을잇고, 불법대출 사건으로 문을 닫는 신용금고들이 속출하는 등 경제사정이 말이 아니다. 또 전기세, 수도세와 같은 공공요금이 새해부터 인상되는 등 서민들의 생활은 더욱 힘들어질 전망이다. 저축도 중요하지만 이런 때일수록 현명한 소비, 즉 바른 씀씀이가 이루어져야 한다. 경제 시장이 활성화되려면 무턱대고 허리띠만 졸라매는 것이 능사는 아니기 때문이다. 무엇이 바른 씀씀이인지 경전 말씀에서 들어본다.



바른 씀씀이

나눌줄 알아야 현명한 부자

▩소욕(少欲)은 최상의 쾌락, 만족은 최상의 부귀다. 〈천청문경〉

▩부처님이 사밧티의 기원정사에 있을 때의 일이다. 어느 날 파세나디왕이 부처님을 찾아왔는데 몰골이 말이 아니었다.

"대왕이여, 어디서 오는데 먼지를 뒤집어쓰고 피로한 모습입니까?" "부처님, 이 나라의 유명한 부자였던 마하나마가 며칠 전 목숨을 마쳤습니다. 그에게는 아들이 없어 재산 모두를 국고에 넣었습니다. 며칠 동안 그 일을 하느라고 먼지를 뒤집어썼더니 행색이 이꼴입니다." "그는 어느 정도로 큰 부자였습니까?" "그는 창고에 백천억의 순금을 쌓아둔 부자였습니다. 그는 재산을 모으기 위해 평생 싸라기밥과 썩은 시래기죽을 먹었으며 거칠고 남루한 베옷만을 입었습니다. 그리하여 많은 재산을 모은 부자가 됐습니다. 하지만 그는 돈을 모으기만 했지 쓸 줄을 몰랐습니다. 가난한 사람이나 불쌍한 사람이 찾아오면 문을 닫고 식사를 했습니다. 부모와 처자권속에게까지 인색했으며 수행자를 위해 보시하는 일은 더더욱 없었습니다. 말할 수 없는 구두쇠였습니다." 왕의 얘기를 전해 들은 부처님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그는 결코 훌륭한 재산가가 아니오. 그는 자기의 재물을 널리 써서 큰 이익을 얻을 줄 모르는 바보였오. 비유하면 어떤 사람이 넓은 들판에 물을 가득 가두어 두었으나 그 물을 마시거나 목욕을 하지 않으면 말라서 사라지는 것과 같소. 그는 재산이 있으면서도 복을 짓지 못하고 말았소. 그러나 왕이여, 재산을 모아 먼저 부모를 공양하고 처자권속을 돌보며 가난한 이웃과 친구들에게 나누어줄 줄 아는 사람은 현명한 부자라 할 것이오. 이는 비유하면 어떤 사람이 마을 부근에 연못을 만들고 나무를 심어 사람들이 찾아와 쉬게 해주는 것과 같소. 그는 사람들의 칭찬을 받을 것이며, 그 공덕으로 천상에 태어날 것이오. 돈은 이렇게 쓰려고 아끼고 모으는 것이오." 〈잡아함경〉

▩한 장자가 있었는데 그 집은 매우 부유해서 재물이 헤아릴 수 없을 지경이었다. 다겁중에 부자(父子)가 서로 의지해 재산을 상속해 끊어짐이 없었고 거기다가 모든 선행을 따랐으므로 명성이 멀리까지 전해졌다. 이 장자는 지닌 재산을 넷으로 나누어, 그 한 부분의 재산으로는 항상 이자를 늘려 가업을 풍족하게 했고, 한 부분의 재산으로는 일용에 필요한 물건을 공급했고, 한 부분의 재산으로는 고아와 의지할 데 없는 노인에게 주어 내세의 복을 닦았고, 한 부분의 재산으로는 친척과 오가는 나그네를 구제하였다. 이같이 넷으로 나누어 벌이는 일이 끊어짐이 없었으니 부자가 이어가면서 대대로 그것을 이었다. 〈심지관경〉

불자 세상보기

대리모와 생명 그리고 인권

최근 일부 언론의 보도에 의해 제기된 대리모 문제는 이제 공론의 장으로 나와야 할 사회문제의 하나이다.

불임 부부들에게 마지막 대안의 하나로 은밀히 시행되어 온 대리모에 의한 임신과 출산은, 정자와 난자를 체외 시험관에서 수정시킨 다음 이 수정란을 제3의 여성(대리모)의 자궁내에 의학적 방법을 통해 착상시켜 임신시키는 방법이다. 이후의 과정은 대리모의 입장에서는 통상적 임신 및 출산의 과정과 같다.

현대적 맥락에서의 대리모는 정자 제공자와 접촉없이 임신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과거의 씨받이와는 차이가 있다. 바로 이런 이유에서 대리모는 현실적으로 쉽게 받아들여진다. 과거에는 주로 친인척들이 대리모로 나섰으나, 2~3년 전부터는 중국동포들이 대리모의 역할을 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국내 대리모에 비해 사례비(1~2천만원 정도)가 적게 들 뿐 아니라, 친권 및 상속권 분쟁의

금전 대가 대리모 출산
생명과학 윤리법 '금지'

가능성이 적고 익명성이 확실히 보장된다는 점이 중국동포의 상대적 장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금전을 대가로 한 대리모 출산과 정자·난자 거래를 금지하는 정부의 '생명과학 보건안전윤리법' 시안이 최근 발표되면서 이 문제는 현실적으로 더욱 심각한 함의를 띠고 있다.

우선 불임 부부들의 입장에서는 안타까운 속앓이가 깊어지고 있다. 금전적 대가가 개입되지 않는 대리모제에 대해서는 공청회를 거쳐 결정할 것이라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지만, 시안대로 금전을 대가로 한 대리모 출산 등이 금지되면 1백여만쌍으로 추산되는 불임부부들이 큰 혼란에 빠지게 될 것이다. 불임부부들을 겨냥한 고가의 암시장이 형성되거나, 이들이 외국으로 나가 이러한 대안을 찾게 될 것이라는 것은 쉽게 예상할 수 있는 부작용이다.

결국 대리모 문제는 생명의 탄생을 둘러싼 윤리적 문제들과 개인적·가족적 차원의 정서적·현실적 필요성, 자본주의적 시장메카니즘과 착취 및 인권침해의 우려, 가족제도를 둘러싼 기존 사회적 장치들의 정당성과 그 보호의 필요성, 그리고 무엇보다도 새로 탄생하는 생명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한 의식과 제도들이 만나는 곳에 있는 복합적 문제이다. 따라서 이러한 다양한 관점에서의 논의와 대비들이 함께 어우러져야 할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한 제도적 해결책은 몇 가지 기본적 전제에 대한 이해와 수용을 바탕으로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우선 아이를 갖고자 하는 불임부부들의 욕구를 인정하는 바탕 위에서

입양제 사회적 공감등
가족의 의미 확대 필요

그들이 현실적으로 찾을 수 있는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고 또 활성화함으로써 법과 현실의 괴리를 최대한 막아야 할 것이다. 이 대안에는 물론 입양이 포함된다.

또한 가족의 현대적 의미를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가족을 혈연관계에 한정하는 관행이 반드시 정당한 것은 아니라는 점이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지도록 우리의 의식과 제도들을 바꾸어야 할 것이다.

이와 아울러 대리모 문제가 시장적 거래의 관계임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를 마치 존재하지 않는 듯이 사각지대에 내몰아 제도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대리모들에 대한 착취와



김병관
아주대 교수
사회학

인권유린의 사례들을 만들어 내지 않도록 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현재 대리모를 통해 출생하는 새 생명의 인권을 확실하게 존중·보호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호적의 문제에서부터 국적의 문제, 기형아의 문제, 상속권이나 양육권의 문제, 분쟁시의 문제 등에 대한 법제도적 해결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대리모 문제가 많은 면에서 우리사회의 기존 제도나 의식과 갈등을 일으키는 것은 사실이다. 그럴수록 이 문제는 공개적으로 논의되고 제도적으로 해결책이 모색되어야 한다. 그 궁극적 이유는 인간의 생명 및 인권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생태사찰 가꾸기 나서자"

사찰 생태문화 포럼

사찰을 생태문화의 장으로, 생명력이 충만한 자비의 장으로 가꾸기 위한 방안을 모색한 포럼이 열렸다. 조계종 사회부와 중앙신도회, 맑고향기롭게모임, 인드라망생명공동체, 불교신문사가 공동으로 마련한 사찰생태문화 포럼이 14일 서울 길상사에서 열렸다.

이번 포럼에서는 '사찰생태문화기행의 경험과 과제'를 주제로 환경운동을 펼쳐 온 8개 단체들이 참석해 프로그램 및 사례를 공개하면서 단체간 도농공동체 연결, 산림가꾸기, 방생문화 개선 등을 내용으로 하는 연대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다음은 발제문 요지다.



◇14일 서울 길상사에서 조계종 사회부와 불교단체들이 공동주최한 '사찰생태문화포럼' 장면.

"환경단체 연대 강화"

○…각 단체가 가진 사찰환경운동 경험을 교류하고 사찰과 공동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불자들이 생태사찰 가꾸기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식물생태 및 각종 생태계에 대한 조사 및 교육프로그램과 사찰주변 정화활동, 사찰 답사객을 대상으로 한 홍보활동, 생태계 체험프로그램 등이 연대활동에 포함될 수 있다.

불교단체와 사찰, 신도회의 연대활동을 통해 올바른 방생법회를 위한 모델을 개발하고, 생태문화답사 및 생태문화 강좌를 개설하며 대 정부 및 종단에 대한 환경정책도 제안할 수 있을 것이다.

한정갑〈조계종중앙신도회 문화부장〉

"새로운 방생문화 시급"

○…사찰과 단체의 특성에 맞게 방생에 대한 불자들의 인식을 새롭게 하는 행사들이 필요하다. 방생문화에 대한 연구발표나 강연, 교양대학 강좌, 법문 등으로 바람직한 인간·생태 방생을 유도해야 한다. 또 기존의 방생법회 형식을 바꿔 사찰생태문화 기행을 실시하거나 우리 꽃·나무 심기, 자연체험학교 또는 생태학교 개설 등을 추진해도 좋을 것이다.

특히 불자들이 사찰에 오고 가면서 쓰레기 하나라도 내가 먼저 줍고 들꽃 하나라도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 진정한 방생의 실천임을 몸으로 보여줘야 한다.

김자경〈맑고향기롭게모임 기획실장〉

"불자 환경교육 실시"

○…환경문제는 개개인의 생활양식의 변화 없이는 해결될 수 없기에,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환경문제를 자각케 하는 환경교육이 필요하다.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내면적으로 조명해 보는 정토회의 '깨달음의 장'과 '나눔의 장' 등 수련프로그램이 대표적인 예다.

이밖에 지역활동가들과의 연계교육을 통한 환경지도자(실무자) 워크숍, 생태적 삶의 현장을 찾아 떠나는 선재기행 등도 전문가와 비전문가를 대상으로 생태문제를 체험케 하는 교육프로그램이다. 생태교육프로그램 참가자들을 조직화하는 이점도 있다.

박석동〈불교환경교육원 기획부장〉

"현장교육위주 전환"

○…자연 사랑은 생태에 대한 이해 없이는 불가능하기에, 시민을 위한 환경운동은 이론위주에서 현장교육위주의 생태기행으로 전환돼야 한다.

생태기행은 21세기의 대안 시민교육이자, 시장논리에 좌우되는 생태관광의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기도 하다.

생태기행은 붐은 띠 동여매지 않고 시민환경운동을 해나갈 수 있는 '시민(지지기반)있는 시민운동'을 가능케 한다.

김재일〈두레생태기행 회장〉

"생협운동 폭넓게 전개"

사찰 생활협동조합 활동을 통해 봉사자 자신의 가정이 친환경적으로 변하고, 이것을 주변인들에게 전파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진정한 생협운동은 친환경적인 삶을 살아가는 도시 소비자들이 농민들과의 도농공동체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생태운동을 실천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서는 단순히 유기농법으로 재배한 작물을 사고 파는 정도를 넘어, 일꾼들을 만들어 내고 조합원을 조직하고 교육하는 일이 시급하다.

인드라망생명공동체가 지난 2년간 추진해 온 조직 및 대중교육, 생산, 가공, 유통, 배분 등 모든 분야의 노하우가 사찰 생협운동의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조형선행〈봉은사생협 부장〉

"사찰마다 야생화 심자"

○…통도사 서운암에는 주지 성파 스님이 가꾼 야생화가 지천으로 널려 있다. 2005년까지 서운암 일대 20만평을 100여종의 야생화 군락지로 만들겠다는 원력아래 매년 비닐하우스에서 재배한 야생화를 옮겨 심고 있다.

이같은 일은 대도시에 사는 신도들이 들꽃회를 결성해 한달에 한 번씩 사찰을 찾아 들꽃을 심고 가꾸는 것으로도 가능하다.

야생화 심기는 신도들에게 풀 한 포기의 소중함을 가르쳐 자연과 우리 문화의 소중함을 알리는 계기가 된다. 서운암처럼 야생화 꽃밭에서 전국시조시인대회, 야외사생대회 등을 개최할 경우 포교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김소영(서운암 들꽃회 간사)



소장하면 소장할수록 가치가 높아지는 책

◆ 한국의 불화를 집대성하기 위해 전국의 사찰 및 국공립박물관, 대학박물관, 사립박물관 등 국내외에 산재한 불화를 직접 조사하여 수록하였습니다.
(현재 전국 11개 본말사 564개 사찰, 박물관 7개소, 1,621점, 3,674컷 수록)

◆ 원색도판을 풍부하게 실어 원화를 직접 대하는 느낌이 들도록 하였으며, 각 불화에 대한 해설과 함께 畵記를 원문 그대로 실었습니다.

◆ 이 불화집을 통하여 모든 사람들의 가슴 속에 부처님의 자비심이 피어나고, 민족문화에 대한 새로운 자긍심이 싹트게 되리라 확신합니다.
– 석정 큰스님–

◆ 한국불화의 전체적인 모습을 처음으로 집대성한 이 불화집의 간행은 신앙적인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문화사적인 측면에서도 큰 의의를 지닌다.
– 조선일보 –

原畵 그대로의 화려함이 살아 있습니다



○ 판형 : 가로 257×348㎜ (타블로이드판형)
○ 면수 : 각권 250쪽 내외 (원색화보, 해설, 논문, 화기 수록)
○ 장정 : 전면 컬러 · 양장제본
○ 발행처 : 성보문화재연구원
○ 가격 : 각권 90,000원

韓國의 佛畵

불교출판 사상 최대의 불사, 두 번 다시 하기 힘든 한국불화의 집대성

해를 거듭할수록 훼손으로 인해 친견하기 어려워지는 각종 불화들!
우리의 성보인 이 불화(탱화)들은 장엄한 불국토의 화현이요
신심의 결정체이며, 불보살님의 원만한 상호에서 우러나오는 복덕의 광명은
우리의 어둠을 없애주고 간절한 바람을 성취시켜 줍니다.
사단법인 성보문화재연구원에서는 10년의 조사와 촬영 끝에
『한국의 불화』 1차분 20권을 완간하였습니다.
아울러 완간을 기념하여 2개월 동안 특별 할인판매를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부디 이 기회에 불화집을 구입하시어 불보살님과 함께하는
인연을 맺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성보문화재연구원 이사장 범 하 합장

구입문의 / 성보문화재연구원 ☎ (02) 587-6612, 팩스 (02) 586-9078

5년 전의 약속, 1차분 20권 마침내 완간!



『한국의 불화』 1차분 간행목록(1996년~2000년)

제1권 통도사 본사 편(상)
제2권 통도사 본사 편(중)
제3권 통도사 말사 편(하)
제4권 해인사 본말사 편(상)
제5권 해인사 본말사 편(하)
제6권 송광사 본말사 편(상)
제7권 송광사 본말사 편(하)
제8권 직지사 본말사 편(상)
제9권 직지사 본말사 편(하)
제10권 월정사 본말사 편
제11권 화엄사 본말사 편
제12권 선암사 편
제13권 금산사 본말사 편
제14편 선운사 본말사 편
제15권 마곡사 본말사 편(상)
제16권 마곡사 본말사 편(하)
제17권 법주사 본말사 편
제18권 대학 박물관 편(I)
제19권 대학 박물관 편(II)
제20권 사립 박물관 편

『한국의 불화』 완간 기념 특별가 200질 한정보급
기간 : 2000년 11월 2일 ~ 12월 31일
보급가 : 1백만원(20권 1질, 현금결제에 한함)

사·부·대·중

한글 경전도 전산화하자



안옥선
전남대 강사 · 철학

많은 사람들의 원력과 피땀의 결실로서 부처님의 말씀은 우리나라에서도 디지털 문명의 옷을 입게 되었다. 빨리어 장경의 경우 이미 수년 전에 CD로 출시되었고 또 인터넷상에서 무료로 다운로딩(가져오기)을 할 수도 있지만 그 규모 면에서는 고려대장경 CD에 비할 수 없다.

주지하다시피 부처님의 '말씀'은 구전에서 CD에 이르기까지 양피지, 목판, 필사, 인쇄 등 다양한 매체와 빨리어, 산스크리트어, 한문, 영어, 터국어 등의 다양한 언어로 전승되어 왔다. '말씀'은 시대와 지역에 따라 보다 많은 사람이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식으로 편찬되어 온 것이다.

보존매체의 변화와 보존언어의 다양화는 '말씀'에 대한 접근의 용이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파하는데 필수적이다. 부처님 당시에는 그 분이나 그의 제자들을 직접 만나야만 '말씀'에 접근할 수 있었다. 구전시대에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이다. 그 후 '말씀'은 필사본을 통해 전파되다가 활자매체의 등장을 계기로 놀라울 정도로 널리 퍼져나갈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자면 고려대장경 CD는 우리 모두를 '말씀'에 다가갈 수 있게 해주는 것은 아니다. 고려대장경 CD는 어려운 한문으로 되어 있어서 불교 밖의 사람들, 한글세대 혹은 불교식 한문이나 용어에 친숙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여전히 이해될 수 없는 닫힌 경전이다. 그래서 '말씀'에 직접 접근하려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은, 전문인의 매개가 없는 한, 아직도 그림 속의 떡이다.

부처님의 삶을 나의 삶으로 재창출하는데 있어서 효과적인 방법은 전문가의 매개를 거치지 않고 사람들 각자가 '말씀'에 직접 접근하는 일일 것이다. 그래서 매개를 거치지 않는 '말씀'에 대한 직접적인 접근은 자신의 삶과 말로 불교를 생생하게 느끼고 드러내는데 필수적이다.

말씀에 대한 직접적 접근을 가능케 하기 위해서는 '한문경전의 전산화'가 아니라 '한글경전의 전산화'가 필수적이다. 어찌 보면 경전의 한글화는 디지털 시대 이전인 인쇄매체 시대에 완결되었어야 할 일인지도 모른다. 만시지탄을 금할 수 없지만 경전의 완전한 한글화는 전산화와 병행되어야 할 과제이다. 그러기 때문에 한글화된 경전의 전산화는 현재 일궈낸 불사보다도 더 엄청난 원력과 인내와 지원을 필요로 하는 '말씀' 재창조의 불사이다.

목탁소리

"아니다" 말 못하는 현실

정 성 운 〈취재1부 차장〉

서울 강남의 한 음식점에서 스님들이 상습적으로 도박을 해 구속된 일이 2년 전인 98년 8월에 있었다. 당시 조계종의 상황은 월주 총무원장의 총무원장선거 출마가 3선이냐 아니냐를 놓고 다툼을 벌이는 등 어수선했다. 더구나 당시는 우리 경제가 IMF관리체제에 편입되어 구조조정이 진행중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실직자로 전락해 생존의 문제로 탄식하고 있을 때였다. 그런데 스님들이 억대 도박판을 벌였으니, 스님들과 불교를 욕하는 사람들에게 불자들은 입이 있어도 대꾸할 말이 없었다.

그 해 여름에 승려도박 사건이 터진 데 이어 가을과 겨울 조계종은 총무원 청사를 두고 투석과 할복, 방화의 폭력 장면을 만천하에 보여줬다. 아직도 그 때의 상처가 아물지 않았는데, 이제는 사찰의 주지소임을 맡은 스님이 대마초를 피워 구속됐다.

백담사 주지 득우스님이 대마초 흡연 혐의로 구속된 다음 날인 13일 불교정보센터는 속보 하나를 띄웠다. 최근 일부 승려들의 도덕적 해이 문제에 대해 교단수호 차원에서 단호하게 대처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 불교바로세우기 재가연대에서 특별기자회견을 연다는 내용이었다.

재가연대는 지난 10월 20일 조계종 기획실장에 성혜스님이 임명되자 도박사건 연루자를 종단의 주요요직에 임명하는 것을 재고해야 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한 적이 있다. 당시 총무원과 당사자인 성혜스님은 재가연대의 성명에 대해 일체의 공식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대마초 사건에 대해서도 말이 없다.

백담사 주지 득우스님이 대마초 흡연 혐의로 구속됐다는 기사와 함께 동아닷컴은 잇따른 불미스런 사건으로 종교계의 신뢰가 상실되었다고 꼬집었다.

"종교는 마음을 씻는 거울이 돼야 한다. 사기에다 원조교제까지 하는 목사님에 이어 대마초를 피우는 스님까지 나오는 마당이니, 종교계의 신뢰가 땅에 떨어지는 것을 막을 길이 없어 보인다."

"아니다, 아니다"고 대답하는 스님들과 불자들이 나와야 한다.

참여와 자유-인간과 인간-인간과 자연 '공생'

공동체 운동 "이상사회 꿈 아니다"

애초에 사람들의 삶은 공동체를 기반으로 했다. 일하고 먹는 것, 교육하는 것이 당연히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함께 하는 것이었다.

산업사회의 도래는 공동체성의 급격한 해체를 가져왔으며, 근대 이후의 사상사는 공동체 회복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90년 이후 공동체운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아니, 관심의 정도를 넘어 새로운 삶을 실현하려는 대안으로서 공동체를 바라보기 시작했다.

공동체에 대한 논의도 활발했다. 한국불교환경교육원(이사장 법륜)은 97년 '생태위기시대의 공동체운동'을 주제로 강좌를 열었고, 강의와 토론 내용을 자료집으로 역어냈다. 공동체를 소개하거나 이론적 접근을 시도한 출판도 활발해 90년 이후에만 10여종 가까운 단행본이 나왔다.

비인간적 문명의 대안

공동체를 공상적 사회주의자들의 환상이거나, 일부 종교집단의 반사회적 행위로 보는 시각이 없는 것도 아니다. 일부의 사람들이 실패한 실험을 되풀이하는 것이라는 냉소를 보내기도 하지만, 공동체운동은 사회운동의 한 흐름으로 그 둘줄기를 넓히고 있다. 무소유일체사회를 표방하는 야마기시즘 사회경향실현지와 두레마을의 경우 세대를 이어가며 공동체를 유지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20여개의 공동체들이 새로운 삶의 양태를 실험하고 있다.

공동체에 대한 관심을 구승회씨(서울대 철학사상연구소 연구원)는 산업문명에 대한 반대급부라고 본다. "현대인들의 공동체에 대한 희구는 현대산업문명이 지닌 필연적인 반대급부"이며 "문명이 낳은 필연적인 뒷모습이다." 구씨의 이러한 규정은 "자유로운 개인들의 경쟁은 날로 심화되었고, 계약의 표본인 시장은 언제나 술수와 사기로 가득하게 되었다"는 근대 이후의 사회에 대한 비관에 근거를 두고 있다.

'큰 가족 만들기' 실천

불교환경교육원 사무국장 유정길씨는 생태적으로 지속 가능한 삶과 사회를 실현하는 대안으로서 공동체의 가능성을 모색한다.

"공동체운동과 환경운동을 결합시킨 새로운 운동으로서 과거와는 다른 의미의 공동체운동이어야 한다. 평등과 우애가 넘치는 공동체적 원리를 실현하고 참여와 자유,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이 공생하는 공동체를 실현해나가는 것이다. 생태적으로 지속 가능한 공동체는 인류의 이상을 실현하는 한 형태라고 생각한다."

공동체를 한마디로 정의내리기는 쉽지 않다. 공동체는 이론보다는 실현의 문제로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공동체는 다양한 형태를 띠고 있다. 생태공동체, 종교공동체, 협동조합공동체, 대안학교 등 지향점과 구성원, 기능에 따라 나누어진다.

완전한 무소유를 운영의 원리로 삼고 있는 곳이 있는가 하면, 지역통화운동처럼 개인이 지닌 일부를 교환함으로써 인간관계를 밀착시키는 경우도 있다. 도농공동체처럼 유기농산물을 매개로 일부분을 결합시키는 형태도 공동체로 부른다.

유정길씨는 "인간관계가 파편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인간과 인간이 새로운 이웃, 큰 가족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 하나의 유형이며, 사적 개인이 아닌 사회적 개인으로서 적극적 결단에 의해 '선택한 가난과 절제를 실현하는 집단적 운동이 공동체운동"이라고 정의하고 "많은 공동체들은 산업사회에서의 비인간성을 부정하는 공통점이 있다. 무엇을 거부한다는 공통점과 더불어 물질적인 것보다 정신적인 것을 추구한다는 공통점도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공동체의 불교적 근거

오늘날 실험하고 있거나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공동체의 형태는 많은 부분 승가공동체의 운영 원리와 일치하는 부분이 많다. 승가의 소유물은 개인이 아닌 공동체의 것이다. 개인은 공동체의 일원으로서의 개인이며, 공동체는 개인을 억압하지 않는다. 각자의 소임에 따라 일을 하며 수행을 하고, 필요에 따라 물품을 지급받는다. 규율은 엄하되, 그것을 자발적으로 지킨다.

60년대에 시작되어 우리나라 공동체운동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야마기시즘 실현지의 경우, 운영의 기본 원칙을 사의존중공의행(私意尊重公意行, 개인의 의견은 존중하고 공동의 뜻을 행한다)으로 삼고, 연찬(鍊鑽)이라는 의사결정 방법을 가지고 있다. 토론과 실천 후 검증을 거치는 방법인데, 누구의 의견이던 그르다거나 하는 전제없이 실천해본다. 이후 연찬해서 여러 의견을 모아서 최종적인 것을 실천하는 과정이다.

승가공동체의 운영 원리와 부처님의 가르침은 오늘날 공동체운동에 많은 교훈을 던져주고 있다. 사성제의 첫 번째인 고(苦)의 근본 원인은 욕망(貪)이다. 무제한의 물질 추구는 무명(無明)과 망견(妄見)에서 유래한다. 그래서 부처님은 욕망을 버리라고 했다. 연기법과 '인드라망'은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의 올바른 관계를 제시하고 있다.

정성운 기자
(swjung@buddhapia.com)



◇불교환경교육원이 실시한 '공동체마을 찾아서' 프로그램의 참가자들이 야마기시즘 실현지를 찾아 고구마를 캐고 있다. 야마기시즘 실현지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공동체마을이다.

주요 공동체 현황

공동체명	대표	설립	목 적
인드라망생명공동체	도법	1999.9	협력 협동하며 균형과 조화의 삶 실현
정토수련원	묘당	1990	맑은 마음, 좋은 벗, 깨끗한 땅을 일굼
공생농두레	천규석	1995. 12	도농공생과 생태적 두레
밀알공동체	허병섭	1996. 4	밀알노동(농촌, 자연, 생태계에서 노동의 가치를 실현)
야마기시		1984	천·지·인의 조화 도모
푸른누리	최한실	1995. 12	무소유·무아집·절대평등·늘 행복한 세상
한마음공동체	남상도	1990	생태계보존과 사회체제 결합 (민족·정의·생명공동체)
호저생활협동조합	한경호	1987. 12	자연과의 공생을 통한 생명운동 확대
두레마을	김진홍	1971. 10	성서한국·통일한국·선교한국 추구
다일공동체	최일도	1987. 7	다양성 안에서의 일치 추구
떼제공동체		1979	화해와 일치
예수원 대천덕		1963	기도와 노동으로 십자가 지기
간디학교	양희규	1997. 3	사랑과 자발성에 기초한 새로운 교육
풀무농업기술학교	홍순명	1958. 4	위대한 평민 양성
시골집	임락경	1985	장애인과 더불어 사는 삶

공동체에 관한 자료

〈생태위기시대의 생태공동체〉 한국불교환경교육원, 1998
〈아니키 · 환경 · 공동체〉 구승회 외, 모색, 1996
〈21세기 환경 · 정보화 · 동양의 지혜를 여는 7가지 이야기〉 불교사회연구소 편, 모색, 1998
〈공동체란 무엇인가〉 김윤 역, 심설당, 1983
〈세계의 공동체마을들〉 이천우 역, 정신세계사, 1993
〈생태마을 길잡이〉 이병철 외, 녹색연합, 2000
〈지역통화〉 한국불교환경교육원, 2000
〈공동체를 찾아서〉 한국불교환경교육원, 1996

연말 연시, 신심있는 기도로 불보살님의 가피를 !

신간
월간 『법공양』에 철찬리 연재되었던
불교신행연구원 김 현 준 원장의
참회 · 참회기도법
참회는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고 용서를 구하는 일입니다. 곧 '나'의 참된 행복을 위하여 맺힌 것을 풀고 꿈 것을 더욱 원만하게 이끌어 가는 묘법이 참회인 것입니다.
묵은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이 때, 이기적인 '나'를 비우고 무조건 참회해 보십시오. 진심으로 참회하고 기꺼이 받고자 할 때 모든 것은 풀립니다.
부디 정성스런 참회를 통하여 불보살님의 자비광명 속으로 들어가는 물꼬를 트이 보십시오. 가피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행복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합니다.
4×6판 / 값 3,500원
〈구성〉
Ⅰ 업장과 참회 Ⅱ 가까운 이를 향한 참회
Ⅲ 절을 통한 참회 Ⅳ 참회염불
Ⅴ 참회행자의 마음가짐 Ⅵ 이참법과 대승육정참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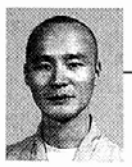
올바른 관음기도를 위한 길잡이
행복한 삶을 이루게하는
관음신앙 · 관음기도법
김현준 지음 / 4×6판 / 값 3,500원
중생의 모든 고통을 없애 행복을 안겨주는 관세음보살. 때문에 불자들은 관세음보살을 가장 많이 신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세음보살의 구원능력과 자비의 참뜻, 관음관법과 관음기도법을 정확히 알지 못하면 관세음보살의 자비광명을 '나'의 것으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이 책에는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관세음보살의 근본 원력과 구원능력, 관음관법과 관음기도법이 상세히 실려있습니다. 올바른 방법으로 행하는 기도는 올바른 결실을 가져다 주는 법! 부디 이 책을 참고로 관음의 자비 속에서 소원을 성취하고 행복의 문을 열기 바랍니다.

"기도는 어떻게 해야합니까?"
일타큰스님의
생활속의 기도법
4×6판 / 값 3,500원
불교계 최대의 베스트셀러 !
여러 가지 상황에 따른 기도 방법은 물론 기도할 때 지녀야 할 마음가짐까지, 큰스님 특유의 자상한 문체로 예화(例話)를 섞어 쉽고 재미있게 엮었습니다.
가정의 평화를 위한 기도, 입시 합격을 위한 기도, 소원성취를 위한 기도, 수행인의 기도, 영가천도를 위한 기도, 제사 때의 기도 등 일상생활에서 누구나 처할 수 있는 일에 대한 구체적인 기도 방법이 《생활 속의 기도법》에 모두 담겨 있습니다.

52가지의 기도성취 영험담 모음집!
불교출판계의 스테디셀러, 『기도』 신드롬을 일으켰던 바로 그 책!
일타큰스님 지음 / 신국판 / 값 5,000원
일타큰스님께서는 자신과 도반 · 선배 · 제자 · 신도들이 직접 체험한 기도성취 영험담들을 모아 이 책을 간행하였습니다. 총 6장 52편의 다양한 이야기로 엮어진 이 책을 읽다보면 기도를 통해 틀림없이 부처님의 가피를 입을 수 있음을 확신할 수 있게 되고, 이야기 끝에 붙인 큰스님의 해설을 통하여 올바른 기도법과 함께 기도성취의 지름길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잘 · 익 · 은 · 생 · 각 · 의 · 집
이양희 시집
B6변형 / 값 7,000원
분에 넘치는 욕심 부리지 않고
너무 걸멋 내지 않고
늘 진실 편에 서려고 애쓰며
힘들 때마다
처음의 마음을 떠올리며
그렇게 시에게 말을 걸다보면
시가 먼저 나에게 말을 건넬까
시가 건네오는 첫마디에
부끄럽지 않으면
더 이상 좋은 일 없으리라.
- 저자의 후기 -
불교 · 사찰 · 자연을 소재로 한 주옥같은 시, 봉사활동을 하며 지은 시 등 우리의 마음을 밝히고 밝히는 좋은 시들로 가득합니다.
◈ 연말연시 선물용으로 권해봅니다
효림의 자회사 도서출판 여음에서 발간한 시집입니다. 주문은 효림으로 하세요.

법보시를 원하시는 분은 출판사로 연락주십시오. 할인혜택을 드립니다.
도서출판 효림 · 전화 : (02)587-6612 · 팩스 : (02)586-9078



승오스님의

경전읽기

승만경 ①

〈승만경〉은 B.C. 3~4세기경 대승사상가들에 의해 성립되어 '여래장사상'을 교설하는 경전이다. 〈승만경〉의 산스크리트어 원본은 현존하지 않으며, 단지 현존하는 불교의 논서에서 원본을 인용하고 있는 단편을 통해서 전체의 10분의 1 정도의 원형을 알 수 있다.

보통 〈승만경〉이라고 불리는 것은 구나발타라 스님이 번역한 〈승만사자후일승대방편방광경〉을 말하는 것이며, 한문으로 된 주석서는 모두 이것에 대한 주석이다. 티베트어 번역은 보리류지 스님의 번역과 마찬가지로 〈대보적경〉의 제48회로서 수록되어 있다. 여기에서는 구나발타라 스님의 번역본을 소개하기로 한다.

초기의 인도 불교는 평등을 주장했지만, 인도사회에서의 여성멸시의 통념을 완전히 타파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했다.

그러나 〈승만경〉에서는 여성의 경시는 말할 것도 없고 변성남자와 같은 관념조차도 문제로 삼고 있지 않다. 한 여성이 당당하게 자신의 사상을 이야기하고 부처님은 그 내용을 칭찬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는 이 경전은 불교 경전 가운데에서 아주 독특한 위치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점이 그 특색이다.

이 경전의 주인공의 이름은 승만(勝鬘; 슈리마라)이라고 하며, 아유타국(阿踰陀國)의 아쇼미트라 왕의 왕비이면서 출가자가 아닌 재가자라는 것이다. 〈승만경〉이 대승경전에서 차지하는 특징 중의 하나는 자가 중심의 수행이 강조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유마경〉에서도 재가불교가 제창되고 있듯이 한 거사의 입을 통해 설해진 경이 〈유마경〉이라면, 〈승만경〉은 한 재가여성의 입을 통해서 설해졌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대승불교운동이 일어났던 시기의 사회 정황과 시대적인 요청에 따라 이상적인 '인물로서의 등장이라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 부처님의 교설 가운데 본질에 입각한 핵심적인 내용을 다만 여성이 설했다고 하여 부처님의 교설을 바꾸려 한다면 경전에서 말하는 업력(業力)의 차이라고 하는 부분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본질적인 입장과 현실적인 입장을 고려한다면, 본래 부처인데 왜 중생과 부처는 나누어졌을까? 그것은 본래 부처였는데 더 확실하게 깨달으려는 생각을 내는 순간부터 업력이 움직여서 나누어지게 되었다고 한다.

〈승만경〉의 내용은 친정 부모인 사위국왕인 파세나디와 말리카부인으로부터 불법에 귀의할 것을 권유하는 편지를 받은 아유타국의 왕비인 승만부인이 편지를 받고 크게 기뻐하면서 부처님의 모습을 뵙고 싶어한다. 이렇게 소원할 때에 부처님은 공중에 모습을 나타내시고 승만부인은 예배를 올리고서 부처님의 공덕을 찬탄한다. "여래의 오묘한 색신(色身)은 세상에 견줄 만한 것이 없네. 무엇으로도 비유할 수 없고 불가사의하네. 그래서 마땅히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노라. 여래의 색신은 무진하며 지혜 역시도 그러하네. 일체의 법은 상주(常住)이고 그렇기에 우리는 지심으로 귀의하는 바이네"(여래진실의 공덕장(如來眞實義功德章)

그러자 부처님께서 대중 속에서 승만부인을 보시고 앞으로 더 없는 완전한 깨달음을 얻을 것이라고 예언하시는 장면으로부터 이 경은 시작된다. 전체 15장 가운데 서분(序分)에 해당하는 1장 여래진실공덕장의 내용이 그것이다. 본론에 해당하는 2장으로부터 14장까지는 정종분(正宗分)이라고 하며 그 내용은 승만부인이 스스로 깨달은 바를 부처님께 토로하고, 부처님은 그것을 인가하는 형식으로 전개된다. 대개 부처님의 설법으로 펼쳐지는 다른 경전에 비해 이 경은 재가여인을 통해서 진리가 설해지고 있는 점이 한 특징이기도 한 것이다.

※ 해인사 승가대 교수

남녀평등 제시 '여래장사상'

승만부인의 당당한 진리 설파 눈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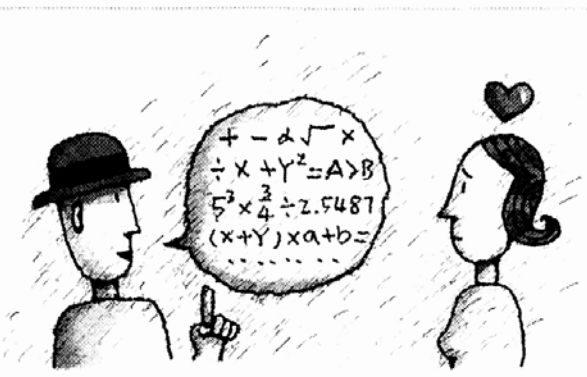


그림 · 문병성

살아있는 존재 계량화 하라

불교와 과학 〈11〉

미적분 대상 고정체로 보고 계량 분석

화엄관 원견통해 사물 참모습 볼수 있어

근대 유럽 철학자이면서 동시에 수학자인 라이프니츠라는 사람이 있었다. 서구 근대철학의 문을 연 철학자라면 데카르트를 들 수 있는데, 라이프니츠는 그의 뒤를 이은 합리론의 철학자이며 동시에 과학자였다. 당시에는 철학과 과학이란 같은 배를 타고 가는 지성의 모험이었다. 그 모험이 지향했던 목표는 세계의 물질적 구성물을 수학으로 환산하여 사물의 실증적 근거를 마련하는 일이었다.

수학과 같은 형식과학이 천문학과 같은 경험과학의 진리근거라는 생각이 바로 서구 과학의 존재론적 배경이었다. 쉽게 말해서 이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자들은 수학으로 환원될 수 있고 또한 환원되어야 한다는 말이다. 이러한 존재론적 배경은 뉴턴의 과학혁명이 잉태되는 결정적인 근거가 되었다. 이런 세계관을 과학적으로 탐구하는 방법론을 일러서 환원론적 과학방법론이라고 말한다. 이러한 환원론적 방법론, 즉 "계량화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계량화하라", 그리고 "계량화할 수 없는 것도 최대한 계량화하라"는 두 명제는 근대 서구 과학정신의 정언명법이었다.

그러나 우리의 자연세계에는 원래 계량가능한 것보다 계량불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수학을 통한 환원의 정언명법을 수행하기에는 혁명적인 사유의 전환이 요청되었다. 다시 말해서 자연 안에는 원이나 사각형처럼 수학으로 계량가능한 기학하적 모델은 희귀하다. 오히려 자연은 정형의 틀이 없는, 그래서 계량할 수 없는 모습이 대부분이다. 냇가에 굴러가는 돌멩이를 계산할 수 없으며 떨어지는 나뭇잎을 계산할 수 없다. 인간의 시치자, 사각형이나 원이 아닌 구불구불한 모양의 면적을 계산하기 위하여 다른 방식의 계산법이 필요했다. 그것이 바로 미적분법이다. 그 면적을 계산하기 위하여 우선 대상을 무한 분할하여 가상적인 미소의 사각형을 만들고, 그렇게 계량화된 미소의 사각형의 계산값을 모두 합하여 다시 전체의 자연대상체를 계량하는 방법이었다. 이러한 계량화의 도구인 미적분법의 덕택으로, 이후에 서양 근대과학은 획기적인 발전을 하게 되었다. 미적분법은 계량화로 상징되는 자연관을 확립시켰지만, 그 대신 원래 연속적인 자연의 모습을 불연속의 기하학적 모델로 환원시킴으로써 불연속의 미소 단위의 사각형과 사각형 사이의 연속적인 미소 자연을 배제하여 버리는 부작용을 초래하였다. 원래의 자연의 모습이 아닌 수학적 가상계가 탄생되었다. 문제는 그러한 수학적 가상계가 자연의 현실계를 대체하고 말았다는 점이다. 이로부터 과학의 권력이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과학의 권력

기심이나 욕망의 마음을 계산할 수 없으며 연인을 사랑하는 마음을 계산할 수 없다. 그래서 서구의 근대 초기 자연과학은 환원적 세계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런데 이러한 난제를 풀어 준 대사건이 일어났는데, 그것이 바로 라이프니츠의 미적분법의 발견이었다.

라이프니츠의 미적분법은 계량불가능의 자연적 대상을 계량화시키는 중요한 역사적 전환이었다. 예를 들어 나뭇잎의 면적을 계산한다고 할 때, 나뭇잎의 면적을 무한분할하여 가상적인 미소의 사각형을 만들고 그 사각형의 계산값을 모두 합하여 다시 전체의 나뭇잎의 면적을 계산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분할과 분석은 죽어 있는 대상에 대해서는 혹시 가능할지라도 살아 있는 대상에 대해서는 타당하지 않다. 살아 있다는 것은 인과율이 살아 있다는 뜻이다. 인과율이 살아 있다는 것은 수학방정식처럼 주어진 변수값에 의해 결과치가 일방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변수값과 결과치가 동시적으로 기승하며(同時頓起), 후 결과치가 선 변수값을 좌우하기도 하며(同時互入), 변수값과 결과치가 독립적이지를 않고 서로에게 영향을 주는(同時互攝) 관계를 말한다. 이 세 관계를 쑤냐타(Sunyata; 空)론의 상입(相入) 관계라고 하며, 달리는 원견(圓見)이라고도 말한다.

그래서 상호작용 속의 살아있는 존재의 인과율은 과학적 인과법칙에 포섭되지 않으며, 쑤냐타론의 원견을 통해서만 사물이 제대로 보일 수 있다. 이것이 서구과학의 미적분법과 대비되는 전형적인 화엄사상의 대상관이다. 서구과학의 미적분법은 대상을 영원한 고정체로 본다는 전제가 깔려있다. 이렇게 보다면 죽어 있는 단순 인과율에 우리의 삶을 맡겨야만 하는 모순이 발생한다. 쑤냐타론에서는 당연히 대상이 독자적인 존재도 아니며, 고정된 실체도 아니다. 그래서 대상을 나누는 순간 그 대상은 그 대상이 아니고 다른 대상일 수 있다. 결론적으로 서구과학의 미적분법은 그 나름대로의 유물론적 의미가 있지만, 그런 수학적 도구를 통해서 살아 있는 삶의 모든 흔적들을 설명한다는 것은 또 하나의 과학의 권력이 되는 것이다.

※ 최종덕 / 상지대 교수
(jdchoi@chiak.sangji.ac.kr)

동포 향수병 달래며 미국내 정착 후원

지구촌 불교 / 난민돕는 스님들

다양한 민족이 살아가고 있는 미국. 이민이나 망명으로 미국에 둥지를 튼 베트남과 티베트 사람들에게 그들의 전통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스님들이 화제다.

화제의 인물은 틱 니구연 한(Thich Nguyen Hanh · 베트남)과 라마 수라 다스(Lama Surya Das · 티베트) 스님. 한 스님은 상좌부, 다른 스님은 밀교의 전통을 따르며 각기 다른 지역에서 포교와 수행을 하고 있지만, 미국에서 출가해 같은 민족이 모여 사는 곳에 도량을 열고 그들의 타향살이를 돕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틱 니구연 한 스님은 텍사스 휴스턴에서 가장 규모가 큰 베트남 사찰의 주지다. 6살 때 보트 피플이라는 딱지를 붙인 채 이 곳에 와서 출가한 그는, 1994년 이 사원을 개원하고, 미국에 처음 온 베트남 이민자에게 미국의 삶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집과 일자리를 알선하고 언어를 가르치고 있다.



◇라마 수라 다스 스님

이 외에도 틱 니구연 한 스님은 이 지역에 살고 있는 베트남 이민 2세들에게 아시아의 불교 문화를 현장에서 체험할 수 있는 여행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민 2세들이 스스로 출가의 길을 선택하게 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베트남 이민자 가운데 성공한 사업가들의 도움과 사찰의 보시금 일부로 진행되고 있다.

지난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해 1개월 동안 아시아 불교유적을 답사한 이민 2세 추 타이 빈(Chu Thai Binh · 26)은 "지난 여름 아시아 여행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무스유'의 삶에 더 없이 감동했다"며 "가족의 생활이 더 나아지면 출가해 틱 니구연 한 스님과 같이 민족을 위해 일하고 싶다"고 말했다.

한스님 보트피플에 집 · 일자리 제공

다스스님 티베트인 무료 정신 상담

휴스턴은 로스앤젤레스에 이어 미국에서 두 번째로 베트남 이민자가 많은 곳인데, 98년도 미국 인구통계에 따르면 휴스턴 남서부 지역에만 약 10만 여명의 베트남인들이 살고 있다.

라마 수라 다스 스님 역시 티베트 망명자 지원에 앞장서며, 동포 돌보기에 열의를 보이는 신세대 티베트 스님이다. 그의 이력은 남다르다. 어릴 때 유대교 집안에 입양돼 '제프리 밀러'라는 이름으로 자신의 뿌리를 잊은 채 살아오다, 20대 중반 아시아 여행을 기점으로 티베트 불교에 귀의해 오늘에 이르고 있다.

현재 불교재단을 운영하고 있는 라마 수라 다스 스님의 티베트 지원 사업 가운데 특징적인 것은 '정신과 의사와 자매결연 맺기'. 이 사업은 티베트 난민 대부분 수개월 동안 생명의 위험을 느끼며 망명길에 올랐던 이력이 있다는 데 착안한 것이다.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겪은 티베트 난민에게 무료 정신 상담의 기회를 만들어 준다는 것이데, 현재 적잖은 성과를 올리고 있다.

라마 수라 다스 스님은 "죽음을 무릅쓴 탈출을 시도한 사람들이 또다시 이 곳에서 냉대를 받게 할 수 없다"며 "우선 정신적 건강을 찾게 하고, 그 다음에 삶이 방편을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스님은 〈내면의 불성을 닦기〉, 〈성스러운 깨달음〉 등을 쓴 베스트셀러 작가이기도 하다.

오종욱 기자(gobaoou@buddhapia.com)

天蓊 토종 오가피의 신비

— 재배자가 직접 만들어 화제 —



국내최대 오가피 재배자
성 광 수 氏



舊소련에서는 국가대표선수들에게 오가피를 복용시켜 올림픽 및 각종 국제대회에서 놀라운 성적을 거둔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복용했던 소련산 가시오가피는 그 유효성분이 **우리나라 토종오가피의 25%**에 불과했습니다. (노벨수상자인 독일 와그너박사의 논문에서…) 왜냐하면 오가피의 원산지가 우리나라이기 때문입니다.

◐事得一把五加 不用金玉滿車
(영득일파오가 불용금옥만차)
하줌의 오가피를 얻으니 한마차의 금옥보다 낫구나…
(本草綱目)

◐延年 不老 仙經藥也(연년 불로 선경약야)
(오가피를 먹어) 수를 더하고 늙지 않으니 실로 신선의 약이로구나…
(東醫寶鑑)

◐Acanthopanax (오가피의 학명)
'아칸토'는 가시나무를 뜻하며 '파낙스'는 만병을 치유한다는 뜻으로 만병을 다스리는 가시나무란 이름을 가지고 있다…
(공주교대 조선행박사)

■융네낼수 없는 것이 있다!
수신 토종오가피는 TV건강문화(i-TV 2000년 1월15일) KBS "6시 내고향", "나의 영농체험"에 출현한 17년간 오가피를 키워온 재배자 성광수씨가 직접 재배한 100% 국내산 토종오가피로 만듭니다. 가오가피나 수입 오가피로 만든 제품과 비교하지 마십시요.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지금 전화주시면 오가피에 대한 보다 자세한 자료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오가피 건강상담 : 02)447-9114



(대한민국 통일서예대전 입상 및 대한민국 동양미술대전 제11회 특선 작품)

동경국제서화대전 제19회에서 준대상 당선

- 동양철학의 초보자 및 영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에게 희소식
- 동양근본철학으로 인격완성과 수명, 재산, 건강관리법
- 현대의학과 한방으로도 치유가, 되기 어려운 마음의 문을 여는 심연의 법과 운명을 관리하는 법
- 풍수지리 비장법인 상통천문 하달지리의 비전「감여보감」과「일사보감」에 감추어진 비법 – 장풍법, 황천법, 팔효법, 산삼채법
- 12생띠들이 들어가야 할 명당비법과 사주학, 운명학, 성명학, 풍수지리학, 양택 · 음택, 사주변형법을 매주 일요일 오후 5시 직강최첨단기 강의법, 명당은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법입니다.
- 당신은 무엇이 궁금하십니까?

상담전화 : 02)821-6622 016)239-3119 야간 : 02)923-3110

귀하는 인생의 스승이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진인육신 도통으로 영과 혼을 담아그린 달마상의 비법은 새태양의 운기로써 흉한일을 당하려면 조용했던 집안이 시끄러운 집과 흉한터, 수백차단 초상상문, 사업장, 이사 개업 노력해도 안되는 도통과 학업, 진학, 고시등 일체 마장을 소멸할 수 있는달마도상을 집에 소장하시고 순금골드 99.9 달마지상 지니시여 건강, 부귀영화, 수명장수 말문이 터지지 않는 분 및 각종 경쟁에서 승리하시고 삼재소멸하소서.

대한 역학 풍수지리 학술원장 합장

용맹정진 0과1수의 대운맞이 제61회 眞人道通 庚申大法會
하늘의 법도와 서성명성의 대운 받아 도통군자되소서

하늘의 음성 영혼의 천문도법인 눈과 귀과 있어도 보고듣지 못하는 원방각에 감추어진 해인도법의 대비밀장임을 명심할지어다. 이 기도에 입문하는 분들에게는 대인류의 스승이 되는 특별기도를 양력 12월 27일 12월 28일, 자시와 오시에 사명자들에게 다시 없는 상통천문 하달지리의 도통군자 잣대를 얻어 증상운 120세 180세의 천안통 숙명통에 도전하여 종교의 병, 육신의 병, 마음의 병, 정신의 병, 잡신의 병을 제도할 수 있는 도통군자 연기법에 도전하시어 12식의 법장보살 즉 염라대왕을 제도할 수 있는 사명자 도인 되소서. 하늘의 **근본법도를 알재 못하면서 제멋대로 지껴리는 잡도에 끌리여 눈먼거북의 종행 동타죽음을 알지 못하고 도인즉하면 하늘이 그냥 두시겠습니까? 日本은 우리의 강산에 쇠못을 밖고 중궁헌원황제는 우리의 마음에 쇠못을 밖은 사실을 당신은 알고계십니까?**

이 법의 소식은 象 · 形 · 萬有 법의 잣대로 설계 법측, 법척 천공, 만유의 각 5대 주문이 없는 것은 하늘의 권능으로 어떠한 도통도 불가하며, 다만 잡신에 끌리여 억망진창을 왜 모르며 몸에 태산같은 중병과 육심과 명예의 삼독을 벗고 말문이 열리는 영통비법과 자성통을 득히 이번 법회는 하늘이 열리는 달이므로 몸에 천병, 잡신, 살이찌는병을 소멸 이기도 입문자들에게는 수명이 늘어나고, 육신을 보호하는 만법을 통할 수 있는 법회에 동참하시고 소원성취하시어 사명자, 진인도통하시어 일류의 스승 되소서.

- **입 제** : 양력 12월 27일 밤10시 ~ 12월28일 亥時시
- **회 비** : 일금 5만원 (1박 2일 간편한 복장) 수요일 밤 입제
- **온라인** : 농협 029-01-167866 곽태일 선착순 목요일밤 해제
- **전 화** : 02)821-6622 / 야 923-3110 / 016)239-3110

(1호선 노량진역 하차, 2호선 신림역7번출구, 7호선 신대방역 하차
버스 85,25,95,26,303,26,142,26-3 모자원고개 하차 전화요망)

※ 그간 등참하셨던 도인들에게 대회의 공정으로 새천년 Y2K의 해결 비법을 토론하오니 빠짐없이 동참하시어 기량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천지인 해인법도의 지대로 가름합니다.

雄祖. 진인경신도통회장 天龍眞人 泰日法師
악사도량 달마선원



◇사찰에 많은 은행을 재료로 만든 은행죽 상차림.

'겨울에는 풍병, 황열병 등이 생기니 시고 떫고 미끈미끈하고 단것을 먹어라.'〈금광명최승왕경〉

부처님께서는 건강을 위해 반드시 제철음식을 먹으라고 강조하셨다. 그러면 사찰에서 스님들은 추운 겨울 건강과 수행식으로 어떤 음식을 즐겨 먹을까.

두부, 비지, 청국장 등 콩음식과 장아찌, 그리고 김치류 등이 겨울철 사찰식단의 주요 차림표다. 이 중에서 콩 음식은 영양분의 체내 축적을 위해서도 필수적이지만, 콜레스테롤을 없애주고 동맥의 노화를 방지해 줘 중풍 예방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

이러한 사찰 음식들은 속가의 음식과 달리 맛을 음미하는 데 중점을 두기 보다 마음 닦기에 필요한 정신과 육체의 힘을 보충해 주는 역할을 주로 한다. 따라서 단순한 먹거리라기 보다는 올바른 수행을 하기 위해 수행자의 육체적·정신적 건강을 유지해 주는 역할 수행의 기능이 더욱 크다.

겨울철 사찰음식에서 빼놓을 수 없는 특징 하나가 바로 저장 음식의 발달이다. 요즘같이 비닐하우스나 온상 재배로 사시사철 푸른 채소를 얻기 쉬운 시대에는 큰 의미가 없을지 모른다. 하지만 깊은 산중에서는 철지난 다음에도 푸른 채소와 야채를 즐기기 위해 겨울철 저장식품이 발달됐다. 그 대표격이 제철의 채소를 된장, 간장, 고추장에 박아 만드는 장아찌와 김치류다. 특히 절에서 담가 먹는 김치는 파, 마늘, 젓갈을 넣지 않고 된장이나 간장으로 맛을 내는 등 우리의 가정에서 즐겨 먹는 김치와는 맛과 종류에서 큰 차이가 있다.

겨울철 사찰음식

정갈하고 담백한 절밥 한 상

식욕 채우기보다 '마음 맑히는 약'

콩류·장아찌·김치류 독특하고 깊은 맛 가정서도 인기식단

사찰의 겨울 장아찌로는 무청 장아찌, 배춧잎 장아찌, 양하 장아찌, 느타리버섯 장아찌, 무고추 장아찌, 고춧잎 장아찌, 깻 장아찌 등 수십 가지에 이른다. 이외에도 동치미나 된장 갓 김치, 총각김치 등도 대표적인 저장 음식들이다.

또한 겨울철 주식으로는 보리밥 보다는 쌀밥이 공식상에 많이 오른다. 쌀은 여름의 뜨거운 햇볕 아래서 성숙된 열매이기 때문에 보리보다 많은 열량을 함유하고 있고, 그 잘이 보리보다 끈끈해 땀을 통한 체열의 발산을 막아주는 힘이 강한 이유에서다.

튀김류와 부각류도 특별히 먹을 것이 콩 부하지 않은 겨울철 사찰 음식상에서 반찬으로는 물론 군것질 대용으로 좋다. 그뿐 아니라, 육류를 먹지 않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따를 수밖에 없는 부족한 열량과 단백질을 채워주는 중요한 음식인 부각은 깻, 젓잎, 다시마, 가죽잎, 산뽕백잎, 국화잎, 계송아리 등에 찹쌀밥이나 찹쌀풀을 발라 만든다. 부각은 햇볕이 좋아 말리기에 적합한 가을에 많이 만들어 겨울에 주로 먹는 것이 특징이다.

겨울철에만 먹는 음식은 아니지만, 수행자들이 정신을 맑게 하고 위에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먹는 선식(禪食)도 사찰음식 중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요즘 시중에는 곡류, 해조류 등 수십가지의 성분을 섞어 만든 선식 제품이 나와 있지만, 사찰에서 먹는 선식은 현미, 찹쌀, 보리, 검정콩, 들깨, 율무 등 주로 7가지 곡류로 구성돼 있다. 특히 이 선식들은 패스트푸드 식품의 발달로 각종 성인병이 늘어나고 있는 요즈음 현대인들의 건강식으로도 널리 애용되고 있다.

곡물과 채소의 경작이 주춤한 겨울철이라도 패스트푸드와 인스턴트 식품의 발달, 채소의 온상 재배 등으로 우리 주변에는 먹을 것이 넘쳐 나고 있지만, 산중에서 먹는 음식은 바깥 세상 만큼 다양하지는 않다. 그렇다고 수행자들이 다양하고 많은 음식을 원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수행자들은 음식을 단순한 먹거리로 보지 않으며, 맛을 즐기는 일조차도 수행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즉 수행자들에게는 음식 먹는 행위도 하나의 수행 과정이다.

김주일 기자(jkim@buddhapia.com)



◇겨울철 사찰에서는 두부, 김치, 장아찌, 부각 등을 주로 먹는다. 사진은 동국대에서 열린 선재 스님의 사찰음식 특별전 '음식도 약이다'에 전시된 1백여 가지의 사찰음식.



◇겨울철 산사에서 즐겨 먹는 동치미 국수.

사찰음식 특별전 연 선재스님



"음식공양으로 부처님 가르침 전하고 있어요"

산사에서나 볼 수 있는 전통 사찰음식이 서울 도심으로 나들이를 했다.

선재 스님(여주 보리사 주지)의 사찰 음식 1백여점이 특별 전시된 '약이 되는 사찰 음식전'이 8·9일 동국대 상록원 3층 교직원 식당에서 열려 호응을 얻었다.

이번 전시회는 선재 스님이 4계절용 사찰 음식 요리법을 소개한 책 〈선재 스님의 사찰음식〉(디자인하우스) 출판 기념회를 겸해 마련된 것이다.

현재 불교TV에서 '푸른 맛, 푸른 요리' 프로그램에 출연하고 있는 선재 스님은 "불교에서 음식은 단순히 식욕을 달래는 수단이 아니라 수행을 돕는 약"이라며 "수행하는 스님들을 위해 음식을 연구하는 과정도 또 하나의 수행이라는 생각에서 사찰음식을 20여년간 연구해왔다"고 말했다.

스님이 사찰음식이라는 화두를 붙잡은 직접적인 계기는 자신의 병치료 경험 때문이다. 스님은 지난 93년 승가대학을 다니면서 화성 신흥사 청소년 수련원 일도 함께 병행해 과로로 인한 심한 간경변증을 앓게 됐다. 당시 담당의사가 자연식을 권했고, 스님은 이를 계기로 전통사찰의 자연식을 연구해 만들어 먹으면서 병을 치료했다.

자연의 산물에서 독은 제거하고 약성분을 강화해 음식을 약으로 만들어 먹으라고 강조한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선재 스님은 이번 특별 전시회에서도 약초로 만든 30가지 장아찌, 철따라 봄에 좋은 음식 10가지, 정신을 맑게 하는 약차 20가지 등 1백여 가지 사찰 요리를 선보였다.

선재스님 권하는 겨울철 사찰음식

무 고추 장아찌

▲재료:고추 1kg, 무 3개, 진간장 6컵, 집간장 4컵, 설탕 2컵, 식초 2컵, 소주 ½병



▲만드는 법:고추는 씻어 끝부분에 이쑤시개로 구멍을 뚫는다. 가운데에 구멍을 뚫으면 먹을 때 국물이 나와 옷을 버리기 쉽다. 진간장과 집간장을 섞고 설탕을 넣어 녹인후 식초를 탄다. 또 무는 껍질째 씻어 반으로 가른다. 독 밑에 무를 깔고 손질한 고추는 망에 담아 무 위에 얹고 돌로 누른다. 그 위로 간한 간장을 붓고 일주일 후에 따라내 끓인 다음 식혔다가 다시 붓는다. 이때 소주를 함께 붓는다. 날씨가 춥지 않거나 시원한 곳에 보관하기가 어려울 때는 간장을 따라내 끓여 식혔다가 붓기를 반복한다.

죽순 장아찌

▲재료:죽순 1kg, 쌀뜨물·된장 적당량, 진간장 1½컵, 집간장 ½컵, 다시마 1장, 물 ½컵, 물엿 ½컵



▲만드는 법:죽순은 생으로 먹으면 독이 있으므로 쌀뜨물에 된장을 넣고 센 불에서 20분 정도, 이어서 약한 불에서 30~40분 정도 삶는다. 삶은 후에는 물에 씻지 않고 그대로 식히는데 찬물에 씻으면 영양소가 빠져 나가고 질겨지기 때문이다. 식힌 후에는 껍질을 벗겨 내고 물에 30분 정도 담가 놓으면 독성이 빠져 나간다. 냄비에 분량의 진간장, 집간장, 물, 물엿, 다시마를 넣고 끓으면 죽순을 넣고 살짝 끓인 후 죽순만 건져 항아리에 담는다. 간장이 식으면 죽순 위에 붓는다. 간장에 죽순을 넣고 끓인 것을 그대로 보관하면 장아찌가 너무 짜다.

된장 갓 김치

▲재료:돌산 갓 2단, 된장 4큰술, 고춧가루 ½컵, 찹쌀풀(찹쌀 ½컵, 다시마 1장, 물 5컵), 굵은 소금 약간



▲만드는 법:돌산 갓을 다듬어 씻어서 건진다. 돌산 갓은 배추보다 작고, 일반 갓이나 열무보다는 크고 파랗다. 냄비에 찹쌀, 물, 다시마를 넣고 풀을 쑨 후 식기 전에 된장을 체에 걸러가며 푼다. 여기에 고춧가루를 넣고 소금으로 간한다. 식기 전에 돌산 갓을 찹쌀풀에 적셔 단지에 담는다.



정세채와 떠나는

선·식·기·행



맥문동죽

지혈작용…구토·기침 멎게

언기 대사를 은사로 출가한 지안 스님은 경전에 통달했다고 한다. 그래서 스님의 법회가 열릴 때면 유생들까지 몰릴 정도로 성황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관가에서는 지안 스님을 보는 시선이 곱지 않았다. 1725년 늦가을, 금산사 회엄법회를 마치고 지리산으로 떠나는 길에 날이 저물었다. 남원을 지나 산동의 밤티재에 이르자 불빛 하나가 스님의 발길을 잡아끌었다.

허름한 초가에는 두 노인이 살고 있었다. 할아버지가 할머니에게 먹일 죽을 끓여 나오고 있었다. 할머니의 안색을 보니 폐농양(폐암)에 시달려 기력이 탈진해 있었다. "노인장, 할머니 병에는 흰죽보다는 맥문동죽이 좋을 겁니다. 맥문동은 위에 열이 있고 출혈을 막는 데는 아주 좋거든요." 그러자 노인은 언짢은 표정으로 대답했다. "관한 남의 일에 걱정말고, 스님이야말로 금강산으로 떠나시구려."

지안 스님이 깜짝 놀라 그 이유를 묻자, 할아버지는 "남의 일보다 스님의 앞일이나 걱정하라"며 지금 당장 이곳을 떠나라고만 말했다. 그때서야 지안 스님이 자신의 일을 짚어보니 '관재수'가 보였다. 그러나 지안 스님은 자신이 당할 일을 애써 피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날이 밝아 노인장과 작별하고 길을 나선, 지안 스님은 결국 회엄사에서 역모로 몰렸고, 전라감영으로 압송되는 길에 다시 밤티재를 넘게 되었다. 그런데 초막은 간 데 없고 그곳에는 맥문동 밭만 넓게 펼쳐져 있지 않은가.

지금도 남원에서 구례로 넘어가는 밤티재에는 3천여 평의 맥문동 밭이 자리하고 있어 지안 스님의 설법의 메아리가 다시 들리는 듯하다. 그래서일까? 이곳의 맥문동은 전국 어느 지역의 맥문동보다 폐병과 각종 염증 치료에 특효를 보인다고 한다.

■ 약선식 연구가, 〈산사에 가면 특별한 식단이 있다〉 저자

만드는 법(1~2인분)

재료 맥문동 30g, 현미찹쌀 100g.

요리법 ①맥문동을 두 조각으로 쪼개어 물 500㎖를 넣고 30분간 끓인다.

②체에 위의 맥문동을 걸러 약액을 만든 후, 충분히 불린 현미찹쌀과 적당량의 물을 부어 죽을 쑨다.

효능 ① 폐와 위의 나쁜 열을 제거하며 과로로 악해진 몸을 보양한다. ② 지혈작용을 하며, 구토와 기침을 멎게 한다. 또 갈증을 다스리고 얼굴과 피부를 부드럽게 한다. ③ 관상동맥경화증과 위염에 좋다.

*죽을 끓이고 남은 건지는 물엿을 넣어 정과를 만들거나, 간장을 넣어 조림 반찬을 만들어 먹으면 좋다.

다시 푸는 경서

정혜결사문(定慧結社文) ⑫

雖有寶玩珍財
수유보완진재
一無將去 雖有豪族眷屬
일무장거 수유호족권속
竟無一人追隨救護者 是謂自作自受
경무일인추수구호자 시위자작자수
無人替代矣 當是時也 將何眼目
무인체대의 당시시야 장하안목
以爲苦海之津梁
이위고해지진량
莫言有少分有爲功德 免此患難
막언유소분유위공덕 면차환란

재산이 많으나 하나도 못가져 가고, 귀한 종족의 권속들이 있으나 한 사람도 따라와 보호해줄 이도 없다.

이는 제가 지어 제가 받는 것이니 대신할 사람이 없다. 이 때 어떤 안목(眼目)으로 이 고해(苦海)를 건너는 다리로 삼겠는가. 약간의 유위(有爲)의 공덕이 있다 해서 이 환란을 면할 것으로 생각하지 말라.

百丈和尙云 縱有福智多聞 都不相救
종불가취 약수세연 유소시작
悉當觀察應作不應作 萬行無廢
실당관찰응작불응작 만행무폐
雖有所作 不失虛明 湛然常住
수유소작 불실허명 담연상주

이 무거운 곳에 태어나므로 전연 자유가 없다. 그래서 용이나 축생, 양민이나 천민으로 태어나도 마음대로 결정하지 못한다' 하였다.

是以凡有高識遠志之人
시이범유고식원지지인
先須深觀三世業報 毫髮不差
선수심관삼세업보 호발불차
無地可逃 今若緣差 不能進修
무지가도 금약연차 불능수진
後必受苦 良可傷哉 卽於初中後夜
후필수고 양가상재 즉어초중후야
閉爾忘緣 兀然端坐 不取外相
폐이망연 올연단좌 불취외상
攝心內照 先以寂寂 治於緣慮
섭심내조 선이적적 치어연려
次以惺惺 治於昏沈 均調昏散
차이성성 치어혼침 균조산혼
而無取捨之念 令心歷歷 廓然不昧
이무취사지염 영심역력 확연불매
無念而知 非彼所聞 一切境界
무념이지 비피소문 일체경계
終不可取 若隨世緣 有所施作

마음의 문 열리지 않으면
바깥경계 끌려 혼미에 빠진다

백장화상운 종유복지다문 도불상구
爲心眼未開 唯緣念諸境 不知返照
위심안미개 유연념제경 부지반조
復不見佛道 一生所有惡業
부불견불도 일생소유악업
悉現於前 或怖或懼 六道五蘊現前
실현어전 혹포혹환 육도오온현전
盡見嚴好舍宅 舟船車輿 光明現赫
진견엄호사택 주선거여 광명현혁
爲縱自心 貪愛所見
위종자심 탐애소견
悉變爲好境 隨所見 重處受生
실변위호경 수소견 중처수생
都無自由分 龍畜良賤 亦摠未定
도무자유분 용축양천 역총미정

백장 스님은 '복과 지혜가 있고 많이 들은 것만으로는 구제되지 않는다. 마음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바깥 경계에 끌려 마음을 비춰볼 줄 모른다. 결국 불도를 알지 못하므로 일생의 악업이 앞에 나타나면 두렵기도 하고 즐겁기도 하고, 육도와 오온이 앞이 나타나면 모두가 아름다운 좋은 집이나 배나 수레나 빛나는 광명으로 보이게 된다. 그래서 자기 마음을 함부로 굴려 탐애하는 소견이 일어나 모두가 좋은 경계로만 변하게 되고 그 소견을 따르다 보면 마침내 죄업

종불가취 약수세연 유소시작
悉當觀察應作不應作 萬行無廢
실당관찰응작불응작 만행무폐
雖有所作 不失虛明 湛然常住
수유소작 불실허명 담연상주

그러므로 높은 식견과 원대한 뜻이 있는 사람은 먼저 삼세의 업보란 털끝만큼도 어긋남이 없어 도망할 곳이 없으니, 만일 지금의 인연을 어그러뜨려 마음을 닦지 못하면 뒤에 반드시 괴로움을 받을 것이니 참으로 마음 아픈 일이다. 깊이 관찰하여 항상 고요히 하여 온갖 인연을 잊고, 단정하게 앉아 바깥 세상을 버리고 안으로 마음을 비춰보되 먼저 고요함으로써 생각을 다스리고, 다음에는 깨어 있음으로써 혼미함을 다스려야 한다. 혼미함과 산만함을 다스리되 취하고 버리는 생각이 없이 마음이 밝고 확 트이어야 생각 없이 알게 되고, 들어서 아는 것이 아니므로 어떤 경계도 취하지 않아야 한다. 혹 세상 인연 따라 어떤 일을 하더라도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잘 관찰하면서 수행을 폐하지 않는다면 비록 하는 일이 있더라도 밝음을 잃지 않고 고요히 머물게 될 것이다.

김원각 〈시인 · 역경위원〉

큰 스님과의 대화

금산스님

목포 목우암 주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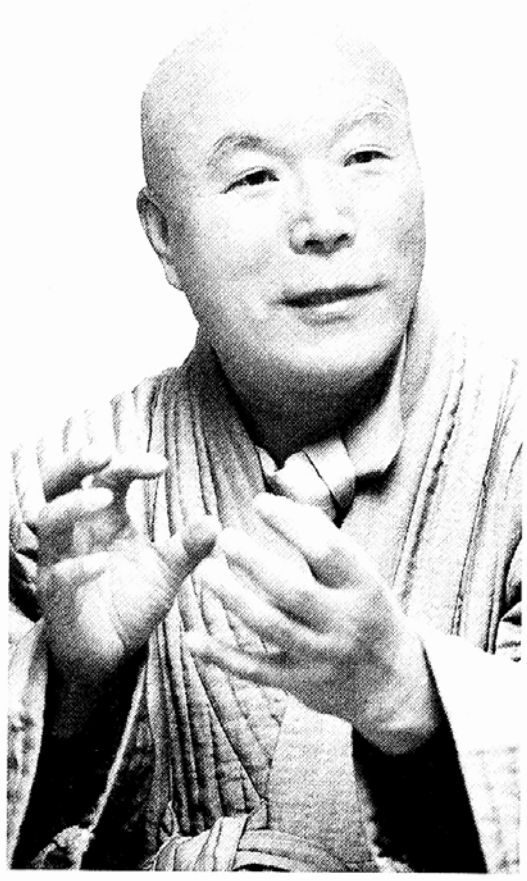
혼탁한 세상에서 올곧은 중심을 지니고 삶을 산다는 것은 수행이나 다름없다. 자기 안의 탐욕과 번뇌, 자기 밖의 혼돈과 무질서를 감당해 내기란 역부족인 일. 그러니 출가하여 수행자가 되겠다는 것이 어찌 작은 일이랴. 편하고 한가함을 구해서가 아니며, 따뜻이 입고 배불리 먹으려고 한 것도 아니고, 명예나 재산을 구해서도 아니다. 오로지 번뇌의 속박을 끊고 해탈의 길을 가기 위함일 뿐이다.

혹자는 '세간(世間)'과 '출세간(出世間)'을 뚜렷이 구분 짓는다. 하지만 머리와 옷모양으로 구분지을 일은 분명 아니다. 세간에 있어도 해탈을 향한다면 출세간이요, 출세간에 있어도 탐욕을 끊지 못한다면 세간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출세(出世)'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금산스님에게 여쭈었다. 20여년간 선원을 지키며 수좌들을 지도해 온 스님이 아니던가.

"왔으니 차나 한 잔 하고 가시게." 차를 따르던 스님은 한참만에 다시 입을 열었다. "몰라서 물었나, 그렇다면 나도 몰라…. 알면서 물었다면 그게 답일 테고…"

전심전력이 바로 불성찾기



· 1928년 生
· 56년 월정사서 출가, 지암스님을 은사로 사미계 · 비구계 수지. 이후 31하 성만
· 63년 월출산 도갑사 주지
· 64년 조계종 감찰원 감찰국장, 조사국장 감찰부장 역임
· 67년 지리산 화엄사 주지
· 81년 동리산 태안사 금강선원장
· 91년 내장산 내장사 백련선원장
· 99년 미주 삼보사 금강선원장
· 현재 목포 승달산 목우암에 주석

—'출세(出世)'의 의미가 단순히 머리를 깎는데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출세'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입니까.

▲내 젊은 시절 얘기를 해 드리지. 20대 초반까지 나는 허무주의에 깊이 빠져 있었어요. 무엇하나 명쾌히 보이는 게 없더란 말이에요. 기독교 사상도 접해보고, 사상가로 유명한 다석 유영모 선생을 찾아가 강의도 듣고 직접 만나 얘기도 해 보았지만 의심을 풀지는 못했어요. 무슨 큰 욕심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는데 왜 그렇게 혼란스러웠는지 지금 생각해보아도 스스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지. 그러던 차에 해방이 되고 나서는 자살까지 생각할 정도로 허무감이 깊어졌어요. 도대체 갈피를 잡을 수 없었지요. 안되겠다 싶은 마음이 들고나서야 한 가지 생각을 해냈지. 깊숙한 산골에서 좋은 스승을 만나 공부해야겠다고 결심하고는 곧바로 출가했어요. 하지만 이것으로 '출세'했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우스운 일이 되지. 머리를 깎은 본 뜻과 의지, 그리고 행함이 깨달음을 향하지 않는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말이오.

큰스님이 사미계를 받은 제자들에게 일러주는 게송이 있어요. '선재대장부(善哉大丈夫) 능요세무상(能了世無常) 기욕취열반(棄欲就涅槃) 희유난사이(希有難思易)'라. '착하도다 대장부여, 능히 세상의 무상함을 깨달았구나. 욕심 버리고 열반을 취하니, 해아리기 힘든 어려운 일이구나'라는 뜻입니다.

큰스님이 사미들의 구도열을 격려하기 위해 내리는 말씀이지만 바로 여기에 '출세'의 참 뜻이 들어있어요. 단순히 세상과의 인연을 끊는다고 해서 출가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출가는 자신을 부정하고 상대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의 근원과 불법의 이치를 알아 해탈의 길로 나아가겠다는 일념을 따를 때 비로소 출가했다고 이를 수 있어요.

—세속에 있을 때보다 산에서는 출세의 의미를 더욱 깊이 느낄 만도 합니다. 스님께서는 오랫동안 산에서만 사셨는데 그 마음은 어떤 것입니까

▲내장사 선원에 있을 때 한 비구니스님이 기도하겠다고 온 적이 있어요. 그 스님에게 기도와 선이 둘이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라고 말했더니, 그 스님이 기도를 끝내고 가면서 공부 잘했다고 하더군요.

산에서 사는 사람은 고집이 없습니다. 산이 좋아 산에 사는 것뿐이니까요. 선을 했다고 해서 선이 좋다고 하지도, 교를 했다고 해서 교가 좋다고 하지도 않지요. 그게 어디 둘입니까? 내가 가진 것을 전부라고 하지 않는 것, 모든 것이 진리라는 평범한 생각, 바로 그런 것들이 산에서 느끼는 즐거움이죠. 어디 그뿐입니까. 욕심부릴 것도, 밖으로 구할 것도 없으니 마음은 어디에도 매이지 않게 되고, 그 마음이 또한 업을 짓지 않으니 자유로운 지혜가 생겨나기도 하지요.

부처님께서는 "집에 있거나 집을 나와 있거나 도를 배우고 바른 행을 행하면 나는 그를 칭찬할 것이다"라고 하셨습니다. 바른 행을 행하는 사람이라면 어디에 있더라도 법다움을 알기 때문이지요. 이 말씀을 돌이켜보면 '출세(出世)'라는 것은 공간과 형태에 의해 그 의미가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을 겁니다.

인도의 유마거사나 중국의 방거사, 한국의 부설거사를 생각해 보세요. 이 선지식들은 출가하지는 않았지만 출가자 못지않은 수행으로 높은 공덕을 쌓았습니다. 어느 누가 이 선지식들을 세간의 범부로 여깁니까. 형식에 얽매인 출가자가 있다면 그는 이미 출가자가 아니요, 형식에 구애없이 진리를 좇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이미 수행자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간과 출세간의 경계가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세간이 어디에 있고 출세간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어디까지나 자신의 마음과 행(行)에 의해 결정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출가 자체가 곧 수행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행주좌와 어묵동정(行住坐臥 語默動靜)'이 모두 선이고 공부입니다. 생활 속에 이런 진리가 있는데 이것을 모르니 안타까울 뿐이죠.

지금은 시대적으로 참선이 스님의 전유물이 아닌 세상이 되었습니다. 유럽에서도 그 기류를 뚜렷이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마음가짐으로 하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일상삼매(一相三昧) 일행삼매(一行三昧)'의 경지라면 세간에 있다 해도 출세간이나 다름없지요.

'일상삼매'란 비유를 하자면 '여묘포서(如猫捕鼠)'와 같습니다. 고양이는 쥐를 사냥할 때 한 눈을 팔지 않고 온 사력을 다해 쥐구멍을 노립니다. 고양이가 조금만 딴 생각을 해도 쥐사냥은 실패하게 됩니다. 일상삼매란 바로 생활 속에서도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부처요, 천지가 부처라는 그 마음을 놓지 말라는 것이지요.

'일행삼매'는 '여계포란(如鷄捕卵)'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마치 어미닭이 계란을 품듯이 하라는 것입니다. 계란은 오래 품고 있어야 병아리가 됩니다. 합부로 퍼덕거리면 온도와 시간이 맞지 않아 부화되지 않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비록 우리가 지금 천지 우주를 부처로 보지는 못하더라도 내가 부처요 천지가 부처인 것을 항상 느껴야 합니다. 항상 느끼고

아봐타 합동코스

〈뜻대로 사는 길〉

若人欲了知
三世一切佛
應觀法界性
一切唯心造 - 화엄경 4구게 -

당신이 성취하길 원하는 목표와 당신의 신념들을 일치시키고 싶으십니까?
당신 자신의 삶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더욱 확실하게 보장받기를 원하십니까?
세상을 살면서 겪는 고통과 투쟁들에서 벗어나 그것들이 과연 무엇인지 알고 싶으십니까?
깨달음이라고 불리우는 의식의 상태를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아마도 아봐타는 그러한 당신을 안내할 것입니다.

▶일 시 : 2000년 12월 23일(토) - 31일(일) 8박 9일
▶장 소 : 봉인사 한길 정진원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면 송릉리 304)
▶참 가 비 : 180만원 / 초, 중, 고등학생 100만원(숙식포함)
▶신청문의 : · 서울 혜원 아봐타 센터 : 011-733-9379 · 02-579-9379
· 광주 해산 아봐타 센터 : 011-606-1976
· 봉 인 사 한 길 정 진 원 : 031- 574- 5585 · 031-528-5585
※ 아봐타 마스터들의 동참을 환영합니다.

봉인사 한길 정진원 합장

3개월 특별속성반 — 한국불교법사대학

불교의식(범음 범패) 수련생 모집

본 대학에서는 다음과 같이 제4기 불교의식(범음 범패)을 3개월 속성으로 수련하실 분을 특별 모집합니다.

● 수련과정 : 특별속성반 3개월 과정
● 교육방법 : ① 출강 … 매주 수요일 · 금요일 오후 5시~7시(2시간)
② 통신 … 교재 및 테이프, 기타 교육자료 우송
● 교육내용

① 송주편(도량석 · 조석종성 등)
② 예경편(상단예불 · 조석예불 · 각단예불 · 향수헤레 · 사성례 · 신중단 등)
③ 헌공편(삼보통청 · 중단퇴공 · 불공시식 · 관음 · 지장 · 신중청 등)
④ 재의식편(천도재 · 49재 · 시다림 · 기제사 · 명절제사 · 방생의식 등)
⑤ 시식편(관음시식 · 화엄시식 · 구병시식 등)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부, 사진 3매, 주민등록등본 1통
● 접수마감 : 2001년 1월 4일까지(현재 접수중)
● 접수방법 : 전화 접수 후 서류 제출
● 개강일시 : 2001년 1월 5일 금요일 오후 5시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화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대학은 한국불교법사총연합회 부설 법사양성 교육도량으로서 불교의식(범음 범패)을 여법히 교수함
· 초심자라도 의식 집전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히 지도함
· 속성 3개월 과정으로 특별 모집함

☞ 위치 : 서울 조계사 근처

한국불교법사대학
불교전통의식연구원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1 (견지빌딩 3층)
☎ (02) 720-1836 · 733-1959
Fax. (02) 737-5305
http://pubsa.buddhism.org

연밥(연꽃씨)을 드셔 보세요!

연밥은 풍부한 녹말이 다량 함유되어있으며, 아미노산 조성분인 리신이 상당량 포함된 양질의 단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더스 문명 유적에서 연꽃 장식이 출토되었고, 불교 전래 이전의 고대 인도에서는 이미 다산(多産)이나 생명연장(生命延長)의 상징 또는 대지와 그 창조력, 신성의 상징으로 삼았다고 합니다. 진흙 속에서도 청순한 꽃을 피우는 연(蓮)을 극락정토(極樂淨土)라 하는 견해도 있어 불교와 깊은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味甘無毒養氣力 연밥은 맛이 달고 독이 없으며 기력을 돕는다
除百疾補五臟 인체의 온갖 병을 낫게 하는데 도움이 되며
止渴益神安心 오장을 보호하고 갈증을 멈추게 한다
多食令人喜 정신을 좋게 하고 마음을 안정시키며
많이 먹으면 몸이 좋아진다

- - 동의보감 탕액편 중에서 - -

1KG포장속에는 연꽃씨의 겉과 속의껍질을 제거함과동시에 속의 파란심을 빼내어 원형 알곡 그대로 모양을 살렸습니다. 제품을 충분히 물에 불리신후 사찰이나 각가정에서 밥지으실때, 혹은 연자죽, 연자차로 훌륭한 사찰음식을 만들어 잡수실수 있습니다.
1KG의 제품을 포장하기 위해서는 40여개의 연꽃봉오리가 사용되며, 구입하신 제품속에는 사용법 및 연꽃에 관한 자료가 들어 있습니다.

제품안내	1KG	15,000원	각각 포장 판매 〈택배 포함 가격〉
	3KG	35,000원	
	5KG	55,000원	

☎ 구입문의 : 인창 물산
서울시 마포구 망원동 456-49 전화 (02)323-2562
예 금 주 : 기업은행 (377-009547-04-018) 여진구
농 협 (217028-52-013565) 여진구

있으면 그 때 번뇌가 녹아 부처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참선은 바로 이렇게 일상삼매 일행삼매의 경지로 해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어찌 세간과 출세간의 구분이 필요하겠습니까.

선에는 공안 즉, 화두를 드는 선도 있고, 묵조하는 선도 있고, 또 염불하는 선도 있습니다. 어느 것이 좋다 나쁘다 말할 것은 아닙니다. 자신에게 맞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화두를 드는 선은 참구하기를 좋아하는 지적(知的)인 사람들에게 알맞고, 묵조선은 화두 없이 그냥 앉아서 자기를 비추는 방식이라 의지가 강한 사람에게 적당합니다.

염불선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염불이 무슨 선이냐"고 하는데,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내 마음이 바로 부처라, 내 마음의 본 바탕이 부처라' 느끼려서 염불을 한다면 이것이 바로 염불선입니다. 참선이 무엇입니까. 내 안의 부처를 구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염불선을 선이라고 못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염불선은 지(知)와 정(情)과 의(意)를 모두 조화적으로 구하는 선법입니다. 따라서 염불선은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꼭 선을 해야만 깨달음에 가까이 갈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계를 잘 지키고 실천하는 것도 그에 못지 않다고 생각되는데요…

▲물론입니다. 선을 예로 들어 얘기한 것이지 모든 것을 다 선을 통해 이룰 수 있다는 말은 아닙니다.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행주좌와 어묵동정'이 모두 공부입니다. 아무리 길이 달라도 종착은 견성성불에



◇금산스님은 생활 속에서도 '일상삼매' '일행삼매'를 할수 있다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내가 부처' 이 마음 놓지마세요
삼독 끊을 수행자리 '지금-여기'

을 찾는 길입니다. 철학자 칸트는 집중력을 키우기 위해 하루 2시간씩 방안에서 창문만 바라보았다고 합니다. 창문을 바라보면서 칸트는 과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망상을 했다면 위대한 철학자가 되지는 못했을 겁니다. 무엇인가 일념으로 묻고 또 물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일반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생활 주변에서 흔히 들을 수 있는 물소리, 바람소리, 매미소리에 집중하다 보면 귀가 밝아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나무나 강, 하늘이나 촛불 같은 것을 오래 바라보면 눈이 맑아지면서 정신이 맑아짐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언제 어느 곳에서도 마음을 집중하고 공부할 수 있는 방편이 있습니다. 다만 생활 속에서 그것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지요.

계율을 지키는 것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불교의 계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계율과는 다릅니다. 불살생을 예로 들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불살생은 절대적입니다. 임진왜란때 서산대사는 나라를 지키기 위해 살생을 했지만 그것을 합리화하지 않았습니다. 죽어서도 그 죄를 다 씻지 못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지요. 하지만 기독교는 다릅니다. 기독교에서도 분명히 살생을 하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살생을 해도 된다고 인정하고 있어요. 사탄에는 자신들과 뜻을 달리하는 사람들도 포함됩니다. 걸프전 당시 미국의 한 목사는 성경에 손을 얹고 공습을 합리화했지 않습니까. 불교의 계율은 그래서 지키기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계율만 잘 지켜도 깨달음의 길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승가에서 출가가 곧 계를 지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만 보아도 계율을 지키는 공덕은 어느 것 못지않게 큽니다.

—일상에서 참다운 삶을 사는 지혜는 어떤 것입니까.

▲독일에 있을 때 "전쟁을 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것이냐"는 질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는 "싸우지 않는 지혜를 배워라. 그 지혜는 자나깨나 공부해야만 얻을 수 있다"고 대답해 주었지요. 언뜻 들으면 말도 안되는 소리 같고,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런 당연한 말이야 누군들 못하겠는가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살면서 가장 어려운 것이 탐욕에서 벗어나는 일이예요. 탐욕에는 독선과 아집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 갈등과 대결을 피할 수 없게 되고, 시비가 끊이지 않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또 한가지 생각해보아야 할 것은 누구나 갈등에서 벗어나길 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얼마나 이율배반적입니까. 둔제는 이런 이율배반에 우리의 이분법적 사고가 자리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분법적 사고는 단순히 흑백논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와 나를 둘로 보는 사고방식입니다. 부처님법은 8만 4천가지지만 결국엔 해탈의 문으로 연결돼 있어요. 아무리 사는 방식이 달라도 근원엔 불성이 있으니 어찌 나와 남이 다르겠습니까.

—출가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스님들에게 해 주실 말씀은.

▲선방에서 수좌들을 가르치며 20년을 넘게 살면서 훌륭한 스승이 되기가 쉽지 않다는 생각을 늘 했어요. 요즘 젊은 스님들은 혈기는 왕성한데 노스님들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아요. 나라든 단체든 율이 바로 서있지 않으면 제대로 조화를 이룰 수 없습니다. 자기 주장만 내세우다 보면 정작 얻을 것을 못얻게 되고 마음이 좁아집니다.

출가한 지 얼마 안돼 대흥사 진불암에서 탁발하며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소금에 김치 하나 놓고 하루 한끼 먹으면서도 한철을 나니까 가슴에 무엇인가 꽉 찬 느낌을 얻었습니다. '아 진리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라는 느낌이었는데, 초발심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의 환희심이었지요. 아마도 공부하는 스님이라면 누구나 한번쯤은 이런 환희심을 느꼈을 거예요. 다시 그 때로 돌아가 보도록 하세요.

> "세간-출세간 구분없어 행주좌와 어묵동정 모두가 선이고 공부 생활속에 진리있지요"

—재가불자들에게도 한 말씀 해주십시오

▲줄탁동시(啐啄同時)라는 말이 있습니다. 줄(啐)은 병아리가 부화되려 할 때 알 속에서 소리를 내는 것을 말하고, 탁(啄)이란 어미가 알을 깨려고 껍질을 쪼는 것을 말합니다. 이 말은 스스로 깨치기 위해 끊임없이 자기를 돌아보고, 그 과정에서 좋은 스승을 만나 가르침을 받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스스로 노력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좋은 가르침을 준다 해도 그 뜻을 알지 못해요. 훌륭한 스승을 찾는 일도 게을리 해서는 안됩니다. '여묘포서'라는 말처럼 삶을 고양이가 쥐사냥하듯 한다면 생활 속에서도 분명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대담=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사진=고영배 기자 (ybgo@buddhapia.com)

호산스님의 스님이야기

영호스님



사시 삼철을 관광객이며 등산객에게 몸살을 앓더니 짧은 계절의 긴 한가로움으로 겨울 품에 깊이 잠들어 있다.

간밤에 내린 함박눈 속에 홀로 버티던 늙은 소나무가 제몸에 걸터앉은 눈 더미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스러지며 내는 옅은 파열음만이 계곡의 바람 속에서 외마디 소리를 질렀을 뿐 겨울산은 그저 침묵 속에 서 있을 뿐이다. 그러나 이렇게 소리 없는 침묵 속에서도 결제중인 스님들의 치열한 구도의 열기가 얼어붙은 대지를 녹이며 길을 가르고 적정삼매에서 부처님의 혼과 법을 닦고 있으리라.

이제 얼마후면 성도일이다.

해인사에는 해마다 부처님 성도일에 맞춰 산중의 모든 스님네들이 용맹정진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때만큼은 강원의 학인 스님들이나 소임 보는 스님들, 그리고 선방의 수좌스님들이 한자리에 모여 공양시간을 제외한 모든 시간을 좌선해야 한다.

오후불식은 물론이고 절대 잠을 자지 못하며 입선 십분이 지나도 큰방에 들어오지 못하면 퇴방조치가 되는 자못 엄격한 일주일간의 용맹정진이다.

선방에 오래 계신 수좌스님 들이야 익숙한 생활일 수 있겠지만 아직 장판때 덜 묻은 강원의 학인들은 여간 힘드는 게 아니다.

> "천진한 웃음으로 첫만남 올 동안거 어디서 보내는지"

특히 오후불식을 하면 배에 힘이 없어 머리는 맑을지언정 좌선의 자세는 흐트러지게 마련인데 그렇게 삼사일 이야 어떻게 버틴다지만 사오일이 지나면 솔아지는 수마와 다리의 저림이 더욱 깊어져 고통으로 몸과 마음이 경직되기 십상이다.

처음 입선때 들었던 화두의 몸통은 커녕 꼬리도 보지 못하고 깊은 망상 속에서 헤매게 되는데 이럴 때 죽비의 효능은 크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잠들지 않으려 애를 쓰면 쓸수록 눈꺼풀은 더욱 무거워지고 두 무릎이 아프고 저려서 요령 필 긍리만 하게 된다.

그때였다. 앞에 앉은 선방 수좌스님께서 싱긋 미소를 지으며 윙크를 보냈다. 아마도 한생각 놓고 정진하라는 당부와 긴장의 고삐를 잠시 늦추고 여유를 가지라는 무언의 메시지일 게다. 그것이 영호스님의 첫모습으로 기억된다.

영호스님은 해인사 선방에만 수십 년간 수행한 구참납자다. 그러나 항상 아이 같은 천진한 웃음을 잃지 않고 장난을 무척 즐기는 스님이다. 어쩌다 도량에서 만나면 항상 윙크를 잊지 않고 해주며 책 한 권 사달라고 조르면 서슴없이 외상 줄을 긋고는 사 주는 따뜻한 성품의 스님이다.

해인사를 떠난 몇 년의 시간 속에서도 그 웃음과 미소가 간간히 생각나더니 불교대학 졸업생들과 성지순례때 용문사에서 스님을 잠시 만날 수 있었다.

법당참배를 마치고 지장전에 들른 후 목탁치고 계시는 스님이 안면이 있어 유심히 보았더니 영호스님이었다. 도무지 선방수좌였던 영호스님과 목탁이 어울려 보이지 않는 의외의 모습이었다.

선방에 오래 있다보니 병을 얻게 되고 병을 얻으니 쉴 곳이 마땅치 않아 도반스님이 주지로 있는 이곳에 잠시 요양하며 약값이라도 받아 쓸려고 왔는데 온지 얼마 되지 않아 주지가 바뀌고 보니 당장 올데갈데 없다고 했다.

다시 선방에 가서 정진하려니 몸이 예전 같지 않고 또 젊은 수좌스님들과 같이 정진하려니 근기가 달려 몹시 힘들게 느껴져 자신감을 잃었다고도 했다. 어쩔 수 없이 밥값이라도 하고 지낼려면 목탁을 잡아야 하니 이 지장전을 맡아 기도중이라고 했다.

같이 나누는 차한잔의 여유 속에서도 예전의 그 호탕하고 밝은 웃음을 보지 못하고 일



어서며 "우리 종단이 안고 있는 과제중의 하나가 노후복지 문제일텐데 오랫동안 공부하던 스님이 막상 잠시 쉬려고 하면 몸 하나 의탁할 곳 없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위로하는 나에게 "무슨 소리, 내가 좀더 열심히 정진하고 수행했으면 병도 나지 않았을 것"이라며 정색을 하던 영호스님이었다. 그러나 일주문까지 배웅하며 너털웃음을 짓고 돌아서는 그 스님의 모습이 왜 그렇게 공허하게 들렸으며 초라하게 보였을까. 언제 또 한번, 함박웃음을 지으며 윙크하는 영호스님의 모습을 보게 될까를 생각하니 그저 착잡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다.

서점에서 외상 줄을 그어가며 책을 사 주시던 영호스님. 을 동안거는 어디에서 정진하고 있을지…

며칠 새에 바람이 무척 날카로워졌다. 그러나 바람이 아무리 날카로워도 겨울산을 잠에서 깨우기는 힘들다. 스님들도 겨울 산처럼 푹 쉬어 갈수 있는 그런 여정은 언제쯤 마련되어질까.

※고려대장경연구소 기획실장

EBS불교방송(길을 찾아서) 출연
특허에 의한 승복의 우수성을 설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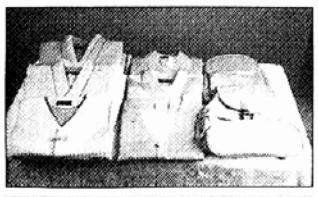
국내 최초특허청에 의장등록 (제0246178호)

승복·법복·누비·바랑판매안내

행복을 기원하는 저희 기원섬유에서는 "수레바퀴"라는 상표로 승복 및 법복을 전문으로 생산하는 업체로서 특허청에 의장 등록 되었습니다.

특 징

1.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특허청에 연꽃·옴자·만자무늬를 의장등록함.
2. 원단에 무늬가 입체적으로 은은하게 들어 있어 아주 특수함.
3. 누비로 만든 저고리, 바지, 방한복에도 무늬가 들어 있으며, 복수하게 제작하여 소매끝에도 바람이 들지않게 고급스럽게 디자인함.
4. 바랑에도 여러가지 무늬가 있어 아주 세련되고 편리하며 100%방수 처리함.
5. 개량한복처럼 세련되게 디자인 되었으며 원가를 많이 절감함.



스님께 가사 불사 보시하면 十善을 지어 5가지 큰 공덕으로 삼재 팔난을 소멸함.

판매가격표

저고리 바지, 조끼	男女	130,000
누비 (上,下)	男女	180,000
누비방한복 (上)	男女	130,000
누비조끼	男女	60,000
누비동방 (두루막)	男女	180,000
바랑		30,000

■ 유사품이나 모방할 경우 법적인 제재를 받음
· 부산, 경남 대리점 (051) 514-8896
· 지역 대리점 모집 중
· 지역 판매점 모집 중

30년 전통의 승복 전문업체 "수레바퀴" 기 원 섬 유

대구시 동구 신천 3동 74-1 (창신빌딩 1층)
상담전화 (053)764-4114/팩스 (053)741-4119
휴대폰 011)9850-4400

레이키(Reiki)법이 왜 화제인가?

드디어 『박회준식』 레이키(Reiki)법을 확립해 국내외에 보급하기 시작했습니다.
- 누구나 그날부터 氣치료능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

레이키(Reiki)는 우주 창조와 만물의 조화의 원동력이 되고 있는 근원적인 사랑의 생명 에너지이며, 이것을 질병의 치료와 생활의 다방면에 이용하는 법이 레이키법입니다.

이법을 처음으로 발견하고 개발한 사람은 일본의 우스이 미카오(1865-1926년)씨인데 현재는 미국을 거쳐 세계로 보급이 확대되어 전세계에서 1억명 이상의 인류가 이미 이것을 경험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또한 세계 1백개국에 보급되고 있는 21세기 「氣의 과학」이기 도 합니다.

레이키법에는 어튠먼트라는 비법이 있기때문에 누구나 그날부터 氣치료 능력자(레이키 요법가)로 만들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박회준)는 동양의 天人相應의 원리를 이용하고 특별한 방법으로 마음 수련에 힘쓴 결과 이 능력을 더욱 높여 세계 굴지의 어튠먼트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무슨 병이나 잘 나을 정도로 힐링 파워(치료 능력)도 높아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공수련을 했어도 氣치료 능력자가 되지 못했던 분이나 더욱 치료능력을 보강하고 싶은 분은 주저말고 오십시오.

교육대상 : 의료 건강 분야 종사자, 호스피스 봉사자, 환자나 그 가족, 일반 국민
교육단계 : 제1-제3단계, 3일정도 소요.
어려운 국민 경제 상황을 고려해 50만원으로 가격 인하 단행!

현대생활 레이키연구회
전화 : 02) 720-5682/725-2311 팩스 : 725-2312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 2가 89-27 피어선빌딩 809호실
인터넷 홈페이지 http : // www.Reiki.co.kr

입 방 안 내

금강선원 선문장은 재가불자들을 위한 참선수행 정진도량입니다.

일년내내 개방하며,

수행일정은 수행자 본인의 자유의사대로 결정할 수 있으므로

입·출소가 자유롭고,

남·녀 구분 없이 누구나 수행하실 수 있는 공간입니다.

▣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에는 혜거스님의 법문과 개인 상담이 있습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선수련원 禪門莊
강원도 홍천군 내촌면 화상대 1리
전화 033) 433-5845 ~ 6

순수한 경면주사로 쓴
운장(스님) 법사의 생필(眞本)
'五色광채'의 氣를 발하는 신비의 기적 '용린佛字체'

"오복을 가져오는 새천년시대 용의 꿈을 꾸세요~"





꼭 소장하여 할 가장 고귀한 진품 명품

⊙ 신기·영기 발하는 佛자 달마(달마대사)그림, 龍자그림(수백과 차단) 특별보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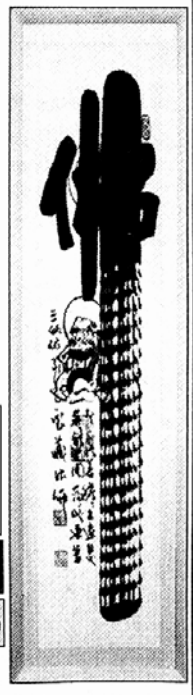
2000년 대통령상 수상하신 운장법사의 진품명품 TV에서 방영된 달마대사(붓자 용자)

한국 수맥파 방지 총연합회 인증 100% 효과

복사품 및 유사품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대한민국 미술작품 화랑방 (korea art gallery) http://www.korea-art-gallery.org

사업실패, 가정불화, 자녀문제, 부부갈등 등 답답하고 고민 하시는 분 서슴없이 전화하세요!



■ 생명의 전화 : (033)766-0057 · 0058
E-mail :unjang21@ kornet21. net

●주문 신청방법 우체국 013698-02-045909 조정순
※ 전화로 주문하시면 곧 보내 드립니다.

덕회산 雲藏寺 운장선원

겨울 산사 문화체험 '참나' 찾아 떠나보자

백양사 '참사랑 수행결사' 원명선원 '삼매체험 선수행' 도심 재가선방도 문 활짝

또 한 해를 보내고 새 해를 맞이하는 시기. 연말 분위기에 괜스레 마음이 들뜨다가도 지난 해를 돌아보며 가슴 한 구석 갑갑함을 느낀다.

일상에 지친 마음을 정리하고 새로움을 준비하고 싶은 시간. 그렇다면 겨울 산사를 찾자. 그리고 가부좌를 틀고 앉자. 왜 지금 내가 힘든지, 그 힘듦이 어디서 왔는지를 물으며 자기에게 한 발짝 다가가 보자.

선에 대한 일반인들의 높은 관심을 반영하듯 겨울철 산사 문화체험을 마련하는 사찰이 늘고 있다. 이 같은 겨울 수련회는 교구 본사급 사찰들이 대규모로 개최하는 여름수련회에 비해 짧은 기간, 적은 인원으로 진행되는 게 특징이다. 대부분 참선 위주의 프로그램이라 번잡하지 않은 분위기 속에서 '참나'를 보는 뜻깊은 시간이 될 것이다.

고불총림 백양사는 큰 사찰로는 유일하게 27~31일, 1월 7~11일 두 차례에 걸쳐 '참사랑 수행 결사' 수련회를 갖는다. 전 조계종 종정 서옹 큰 스님의 법문과 화두간택, 좌선의, 선종사 등의 불교교리 강의가 있으며 마음과 몸을 동시에 닦을 수 있도록 참선과 겨울 산행 프로그램을 병행한다. (061)392-7502

경남 하동 쌍계사의 산내 암자인 국사암은 올해 처음으로 산사 문화 체험을 마련했다. 23일부터 25일까지 2박3일 동안 열릴 수련회는 차와 법패의 고장답게 참선과 함께 불교음악, 차 마시는 법, 불교예술 등 불가의 전통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자리다. (055)883-8801~3

96년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겨울철 선수련회를 시작한 전남 고흥 송광암은 22일부터 내년 1월 14일까지 모두 네 차례에 걸쳐 3박4일 일정으로 단기출가 프로그램을 연다. 적대봉과 금강 해수욕장 등에서 펼쳐지는 좌선과 행선, 선 체조, 호흡법, 화두잡는 법, 발우공양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061)843-8488



◇ 연말이다. 일상에 지친 마음을 추스리고 새로움을 준비하고 싶다면 사찰의 겨울철 선수련회를 찾아 '참나'를 보는 시간을 가져보자.

전남 구례 연기암도 겨울철 선수련회를 개설했다. (박5일 일정으로 22~26일, 내년 1월 3~7일 열리는 수련회는 하루 8시간 참선을 중심으로 예불, 선강좌, 화엄사 및 주변 암자 순례, 금강경 독송 등을 준비했다. (061)782-0588

제주 한라산 원명선원은 23~27일 '삼매 체험 선 수련'을 개최한다. 타력에 의존하지 않는 자기 수행을 체질화하기 위해 4박5일 동안 수행중심 철저한 묵언과 좌선, 행선 위주로 프로그램을 짰다. (064)755-3322

도심 속에도 시민들을 위한 재가선방이 문을 열어놓고 있다. 시민선방으로는 선학원, 무불선원, 봉은사, 법련사, 도선사 등 서울지역 사찰과 함께 부산 해운정사, 인천 용화사, 양산 통도사, 부산 불교교육원, 강원 홍천 금강선원, 청주 용화사 등이 손꼽힌다. 이들 선방은 동안거 기간에 시민선방을 개방해 시민들의 참선을 돕고 있다.

권형진 기자(jnny@buddhapia.com)

사이버 문화

한국의 석탑

석탑 순례와 유적 여행

다보탑, 감은사지 삼층석탑, 화엄사 4사자 삼층석탑 등 빼어난 조형미를 자랑하는 석탑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한국의 석탑(http://my.netian.com/~avao34)에서는 불탑의 기원에서부터 불탑신앙과 사리, 석탑 양식 등이 한눈에 들어오도록 상세하게 설명한다. 김인식씨는 67세의 고령에도 불구하고 불교유적지 여행을 통해 보고 느낀 석탑과 불교문화를 사이버 세상에 전파하고 있다.

신라말 선덕여왕 때 자장율사가 중국에서 불두골(佛頭骨), 치아사리, 사리 등 1백립을 가져와 황룡사 구층탑의 건립 동기가 되었던 역사 속의 이야기도 찾아볼 수 있다. 삼국시대 말기에 발생하기 시작한 석탑의 건립설화에서 알 수 있듯 부처님 사리의 전래는 사리 봉안을 위한 탑이 사원 내에 건립되는 결과를 낳았다.

이 홈페이지에서는 대국 중국 등의 불교유적 사진도 곁들여 다양한 석탑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다. 국보, 보물로 지정된 중요 석탑 목록을 제공하는 코너도 마련했다. 홈페이지를 들어서면 들려오는 종소리와 맑은 풍경소리는 산사에 들어선 듯한 느낌을 준다. 쉽게 지나칠 수 있는 석탑의 부분명칭과 설명도 이 홈페이지의 특장 중 하나다.

강지연 기자(jygang@buddhapia.com)



연말연시 마음의 선물

향…합장주…참선용 방석…
'주고 받고 부담없다'

여기저기 선물할 때가 늘어나는 때다. 그냥 넘어가기에는 그 동안 제대로 챙겨주지 못한 마음이 걸린다면 부담없는 작은 선물, 마음의 선물이라도 준비해 보자.

불자라면 선물의 크고 작음보다 그 정성이 문제일 것이다. 향이나 초, 합장주, 염주 등은 흔하게 볼 수 있지만 받으면 마음까지 차분해지는 선물이다. 합장주나 염주의 경우 옥으로 만든 다양한 제품이 인기를 끌고있다.





목걸이나 휴대폰 걸이도 즐겨 찾는 것 중의 하나다. 목탁은 전통적인 메뉴고 호신불이나 경전 한 구절이 새겨진 것도 골라볼 만하다. 뒷면에 자기 띠가 그려진 호신불은 휴대폰 스티커로도 많이 쓰인다. 차걸이도 많이 찾는다.



부모님을 위해서는 건강제품이나 패션 소품을 준비하는 것이 좋겠다. 털장갑이나 모자, 덧버선 종류 등이 나와 있다. 체형에 맞춰 제작한 참선용 방석은 자세 교정에도 도움을 준다.

어느 때든 선물 목록에서 빠지지 않는 게 책이다. 요즘은 주머니 속에 넣어 다닐 수 있는 작은 경전 시리즈가 인기를 끌고 있다. 준비한 선물을 예쁘게 포장하고, 카드나 연하장에 간단한 마음의 글을 적어 함께 전하면 더욱 효과적으로 감사의 표현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권형진 기자

○위에서부터 항꽃이, 합장주와 복주머니, 초.

화엄석경과 법화석경의 만남



'한국서예 2000년전'
29일부터 예술의 전당

전남 구례 화엄사 화엄석경(보물 제1040호)은 통일신라시대 때 의상대사가 장육전(현 각황전)을 건립하면서 석판에 화엄경을 새겼다고 전해지는 유물이다. 화재로 조각나 파편으로 전하지만 불교사 연구뿐만 아니라 금석학 등의 분야에서도 학술적 가치를 지닌다.

이 화엄석경을 탁본으로나마 볼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다. 29일부터 서울 예술의 전당 서예관에서 열리는 '한국서예 2000년전'은 한국 서예사 2000년의 흐름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자리다.

내년 2월 11일까지 열리는 이번 전시회에 출품된 유물은 모두 160여 점. 우리 서예사의 큰 흐름을 밝히는 데 기준으로 삼을 만한 작품들만 엄선해서 내놨다. 삼국~통일신라 시대 작품은 주로 금석문 탁본이며, 고려시대는 사경, 조선시대의 것은 묵적이 주종을 이룬다.

이 가운데 금석문 탁본과 사경은 종교적 차원을 넘어 서예사의 흐름을 알 수 있는 귀중한 자료들이다. 김생의 '태자사낭공대사탑비명' 최치원의 '쌍계사진감선사대공탑비' 탄연의 '칭경산문수원 중수기' 이환추의 '수미산광조사진철대사탑비명' 등 희귀 고탁본들이 출품됐다. 경주 창림사지 출토 법화석경도 첫 선을 보인다.

이밖에 안평대군의 '업상좌찬' 퇴계 이황의 '퇴도필법' 석봉 한호의 '천자문'과 추사 김정희의 '세한도' 등 당대의 문장가, 명필들의 주옥같은 작품도 볼 수 있다. (02)580-1300 권형진 기자

조선시대 대표작가 30명 작품 '한 자리'

대림화랑 '…좋은 그림전'

개관 이후 꾸준히 조선조 회화전을 열고 있는 대림화랑에서 97년 고금명현 유묵전 이후 3년만에 조선시대 고서화전을 연다. 21일부터 29일까지 열리는 '조선시대 좋은 그림전'이다.

이번에 내놓은 작품은 모두 50여 점. 탄은 이정을 비롯해 겸재 정선, 수은 유덕장, 현재 심사정, 표암 강세황, 오원 장승업, 심전 안중식 등 조선시대를 대표하는 작가 30여 명의 작품을 모았다.

중국적인 그림을 잘 그렸던 것으로 알려진 현재 심사정(1707~1769)의 작품은 북송시대 그림을 모방한 것들이다. 그 중 말년에 절에 머물며 그렸다는 '관자재보살도'가 눈길을 끈다. 북송시대 명화가 과회의 그림을 모방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필의(筆意)는 약간 떨어져 아쉬움을 준다. 조선후기에서 근세 초에 활약했던 석재 서병오(1862~1935)와 해강 김규진(1868~1933)의 연꽃 그림 두 점도 눈 여겨볼 만하다.

대나무 묵죽화의 대가 탄은 이정(1541~1622)의 묵죽도 두 폭은 소품이지만 단아하고 그윽하다. 반면 대나무 그림으로 두 번째라면 서운해할 수은 유덕장(1694~1774)의 묵죽도는 보는 사람의 가슴까지 시원하게 해준다. (02)733-3738 권형진 기자



문화소식

이애주 승무공연

28·29일 문화회관 중요무형문화재 승무 기능보유자인 이애주씨가 28·29일 동숭동 문예회관 대극장에서 연말공연을 갖는다. 한성준·한영숙 계열의 승무를 비롯해 살풀이춤, 태평무, 동래학춤, 도당굿춤을 선보인다. 이씨는 "절 드리기, 숨쉬기에서부터 시작해 우리 춤의 기본동작을 정리한다는 마음가짐으로 공연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도자비엔날레 국제 공모전 2001 세계도자기엑스포 조직위원회는 2001년 8월 10일부터 경기도 이천·여주·광주에서 열리는 '제1회 경기도 세계도자비엔날레 국제공모전'에 참가할 작품을 모집한다.

생활도자, 조형도자 구분 없이 신청 가능하며 대상 수상자에게는 3천만 원과 연수경비 1천만 원을 지원한다.

심사는 1차 슬라이드 심사와 2차 실물작품 심사로 진행되며 1차 심사를 위한 슬라이드 제출기간은 2001년 1월 1일(화)부터 2월 10일(토)까지다. (031)237-4291

새천년의 발원 - 온 국토를 장엄 하겠습니다

찬덕 연등은 최고 품질과 기술력을 자랑합니다.

- 각 사찰이름 인쇄시 30일전에 미리 주문 부탁드립니다.(만월등)
- 연등의 종류별로 영가등이 있습니다.
- 연등용 전선 케이블 - 원하시는 규격에 맞추어 직접 제작 · 시공해야 드립니다.

안뜰원 제조특허(특허 제122168호)/ 불각등 실용신안(등록 제098634호)외 의장등록 다수 보유업체

팔모주름등 — (빨강) (연두) (노랑)

공단등(비단등 실크등) — (빨강) (노랑) (오색)

팔모조립등 — (빨강) (노랑)

육각등 — (핑크) (노랑) (오색)

만월등

찬덕 연등제작사

전화 :031)792-6288, 794-4055 / FAX 031)794-6288

주소:경기도 하남시 춘궁동 180-1

슬기샘 慧泉 박물관 건립 기금 마련 불사



석혜천「釋慧泉」
「진리로 만나는 반야등불」저자
· 강의없이도 무지는 입다
· 복락이야기 에세이 집필중
· 동림 동문회 회원
· 전통 판화각 연구 소장
· 다담불교 명대산천 순례
· 명림전화 심행심심상량
· 전화명상기 목판화가

1.복덕송전 2.반상판화전
3.무지보살전 4.선 판화전
5.느림명림전 6.학반상도전
7.동경도보로이 초대전
8.동림대전초대작전
· 슬기샘 박물관 건립추진

地藏堂 혜천스님의 원력이 담긴 세계최초의 선물상(禪物相) 화두 수행에 결정체인 복덕행 방편으로 불가사의한 힘을 발휘하는 학 반상도 시리즈 친필 선서화 특별 보급안내!

※ 각 사암에서는 불사의 방편으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봉운불사기획
주 소 인천광역시 중구 선화동 39번지
전 화 032)884-9332
FAX : 032)884-9333
은행 국민은행 예금주 전승희 175-25-0001-318

위 반상도는 저작권법으로 영리를 목적으로한 복사 도용 판매를 금합니다

○위 수익금은 슬기샘 박물관 건립 기금에 쓰여집니다.

○ 위 학 반상도 및 수신도는 혜천스님이 참선기도 수행후 직접 그린 작품으로서 다소 규격이 변형될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학(鶴)이란 옛부터 차태가 희호하고 고귀하여 신성한 새로 여겼으며 천년만에 푸른색으로 변하여 청학(靑鶴)이 되고 다시 천년이 되면 검은 색으로 변하여 현학(玄鶴)이 되는 장생불사의 새로 알려져 있다. 불가에서는 성인이나 보살의 화신으로서 학을 구축하고 선으로 인도하는 이적을 베푸는 존재로 표상되었으며 주로 법당 안천장이나 벽면 높은 곳에서 하늘을 날며 부처님 신변에 접귀가 나타나지 않게 늘 지키고 있다

鶴學相圖 학반상도 (지역별 각 사암 특별 보급처 문의 요망)

* 학(鶴)이라는 특수적인 대상에서 기호와 문자로 변상되어 인간의 내면 세계를 표현하려는 신학(神學)로서 일명 학(鶴)변상도(學相圖)라고 이름 하는 것이다. 학(鶴)이 주는 주관적인 삶에 소망을 이루어주며 객관적으로 자신에게 업장(業障)을 멸(滅)을 줄 수 있다는 상징의 본질인 것이다. 따라서 신 사업적(神 事業的)에서 보면 전각삼형론자(篆刻象形文字)의 언어라고도 한다

삶과 세월속에 핀 돌의 아름다움

◇선암사 승선교



은광준 외 3인 공저 '징검다리 건너 석성에 오르다'



가람 흔적 찾게하고 깨달음·신앙심 깃든 돌의 역사·의미 읽기

인류가 최초로 사용한 도구는 돌이었다. 구석기, 신석기 시대로 부르는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돌 다루는 기술의 발달은 문명의 발달을 의미한다. 인간은 지금보다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 싶다는 바람을 돌 속에 담았고, 이렇게 탄생된 조형물들은 시대를 초월해 모두의 마음 속에 새겨져 같은 희망을 품게 한다. 수천년이 지난 지금 옛 사람들은 없지만 돌은 남아 있다. 이처럼 돌이 인류의 역사와 함께 해 왔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상식이다. 물론 불교에 있어서도 예외는 아니다. 그런 점에서 불교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는 데 있어 돌 조형물은 주요한 키워드가 된다.

은광준(한국고고학발굴연구회장)·손영식(전통건축연구소장) 씨 등 고고미술사학과 건축 전문가 4명이 쓴 〈징검다리 건너 석성에 오르다〉(다른세상)는 '돌로 이룬 우리 문화'라는 주제로 석축, 돌다리, 석성, 고인돌, 석물 등에 돋보기를 들이댄다. 이를 통해 글쓴이들은 수백, 수천년이 지난 지금까지 전해오는 돌 건축물에서 우리 민족의 문화와 미학은 물론 불심의 세계까지 읽어낸다.

그렇다면 불교에 있어 돌은 어떠한 의미를 지니고 있을까. '석축'에 대해 연구한 박방룡(국립경주박물관 학예연구원) 씨는 '사라진 옛 절터를 소생시키는 단서'라고 강조한다. 그리고 그는 이 점에 대해 깊이 있게 탐구한다. 즉 옛 절들의 존재를 알려주는 것이 바로 석축이라는 것이다. 불상 불전 탑 등이 모두 사라지고 흔적만 남은 옛 절터에서 가람배치를 추측할 수 있는 것이 주춧돌이다. 이 주춧돌은 가람배치를 추측할 수 있는 단서이고, 가람의 전체적인 위치가 파악되면 그것을 토대로 남아 있는 탑과 문양 등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옛 절터에서의 돌은 법당은 물론 절의 구조를 알 수 있는 실마리가 된다는 것이다. 경주 황룡사지와 감은사지가 대표적 예이다.

또 석축은 이러한 의미뿐만 아니라 상징적 의미도 지니고 있다. 바로 두 개의 세계를 나누는 매개의 구실을 한다는 것이다. 하나는 번뇌와 고통으로 괴로워하는 중생이 있는 현실세계이고, 다른 하나는 부처님이 계시는 세계이다. 또 석축을 부처님의 집을 떠받드는 연화대좌로도 여긴다. 가장 낮은 위치에 있으면서 항상 맑은 상태를 유지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석축은 부처님을 잠어짐으로써 불국의 세계로 인도하는 디딤돌 역할을 한다. 사찰의 돌다리는 통행을 위한 수단 외에 피안으로 가는 길목이란 의미도 내포하고 있다.

이처럼 우리가 살아온 공간과 시간 속에서 태어난 돌 조형물에는 우리네 삶의 이상이 오롯이 함축돼 있다. 특히 사찰의 석축과 석탑 등에는 깨달음을 향한 치열한 신앙과 불교문화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

지금도 우리는 사찰의 석축이나 돌다리, 그리고 여러 돌 조형물을 보면서 정교하고 과학적인 면에 놀라고 자연과 조화를 이룬 아름다움에 감탄한다. 그런데 이러한 선조들의 조형적 기예는 생활문화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모든 문화예술이 그렇듯이, 삶을 떠나서 조작된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따라서 이 책은 돌을 매개체로 한 한국의 역사와 한국미의 원형 탐색이라 할 수 있겠다. 값 9천원.

김중근 기자(gamja@buddhapia.com)

이책의 한구절

■ "사찰을 장엄하고 있는 여러 장식문양과 조형물은 불교의 정신세계뿐만 아니라, 부처님을 향한 구도자들의 염원을 드러내는 표상이다. 일주문은 일승법문을, 탑은 부처님을, 용은 불법수호와 함께 법당이 곧 반야용선임을 상징한다."

—전국 250여 사찰의 그림, 조각, 건축물 등 장식들을 일일이 답사하고 쓴 〈사찰 장식 그 빛나는 상징의 세계〉(돌베개). 글쓴이는 문화관광부 문화재 전문위원 허균 씨. 값 1만5천원.

■ "높은 산 깊은 골을 찾으면 번거로운 세속의 잡사를 잊을 만한 옛 절이 많이 있다. 이런 옛 절 대부분은 한국 불교사를 빛낸 고승·대덕·거사들의 수행의 자취가 서린 역사의 현장이다. 이런 현장을 단순한 관광지나 유원지로 보아 넘겨서는 결코 안될 것이다."

—한국불교사를 빛낸 고승·대덕·거사 25명의 생애와 수행, 그리고 그들이 주석하며 불법의 진리를 펼쳐나간 명찰 순례기. 〈고승과 명찰〉(책이있는 마을). 황원갑 지음. 값 1만5천원.

"번뇌 가득찬 인생이지만 참되게 살려고 노력하면 진여불성 깨달을 수 있다"

■ "불교음악은 불교음악으로서뿐 아니라 불교를 신앙하고 있는 나라의 민족음악과 직결된다. 대승불교권에 속하는 중국과 우리나라, 그리고 일본은 불교음악뿐만 아니라 문화 전반에 걸쳐 불교의 영향을 받지 않은 분야가 없을 정도이다. 결과적으로 불교음악 연구는 불교국가의 민족음악 비교연구에까지 그 범위를 확장될 수 있다."

—경전을 토대로 불교의 음악과 악기, 그리고 전래과정을 집성한 불교음악 연구서. 〈한국불교음악사연구〉(장경각). 글쓴이는 국립국악관현악단장을 역임한 박범훈 씨. 값 2만5천원.

■ "인생은 헛 사는 것이 아니다. 생사와 열반이 항상 같이 이룬다는 말이 있다. 번뇌에 가득찬 인생이지만 참답게 살려는 마음으로 정진한다면 그 속에서 진여불성의 빛을 깨달을 수 있으리라 믿는다. 번뇌 즉 보리의 부처님의 가르침 그대로 말이다."

—이화여대 등 대학에서 후학을 가르치다 지난 86년 정년 퇴임하고 경기도 포천 죽엽산 자락 말구리 마을과 갑사 대자암에서 구도생활을 하고 있는 이남덕 씨의 수상집. 〈여든 살의 연꽃 한송이〉(불광). 값 8천원.

왜 참회해야 하는가



김현준 지음 '참회·참회기도법'

참회의 일반적 의미는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고 용서를 구하는 일이다. 곧 '나'의 참된 행복을 위하여 맺힌 것을 풀고 푼 것을 더욱 원만하게 이끌어 가는 묘법이 참회인 것이다.

도서출판 효림에서 불교신행총서 6째 권으로 펴낸 〈참회·참회 기도법〉(효림)은 이기적인 '나'를 바우고 참회하기를 권하고 있다. 불·보살에게 진심으로 참회할 때 과거의 모든 죄악이 소멸된다는 것이 참회를 권하는 이 책의 주된 이유다.

무엇보다 이 책의 강점은 참회의 의미부터 기도법까지 막힘 없이 환히 알게 하는 참고서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우리가 고통을 받고 죄업을 짓게 되는 까닭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업장과 참회'를 비롯 '절을 통한 참회', '참회 염불', '참회행자의 마음가짐', '이참법과 대승육정참회'까지 참회에 대한 모든 것을 담고 있다. 값 3천5백원.

김중근 기자

'적게' 쓰고 '다시' 쓰는 환경보호 비결

최종덕 교수 지음 '함께 하는 환경철학'



환경철학에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짧은 이야기를 수록한 〈함께 하는 환경철학〉(동연)이 나왔다. 글쓴이는 본지에 '불교와 과학'을 연재하고 있는 최종덕(상지대 철학과) 교수. 그는 환경철학의 기본 사상은 인간에 대한 사랑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래서 이 책이 말하는 환경철학의 밑바닥에는 인간성 회복과 사회 비판의식이 깔려 있다. 환경문제도 사회문제인 만큼 이를 제대로 인식하기 위해서는 사회와 역사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비판적 시각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들머리에서 "우리의 자연을 보존하고 내가 남과 함께 잘 살 수 있는 환경을 위해 필요한 지식은 간단하다"고 조언한다. 적게 쓰는 것과 그 쓴 것을 다시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그것. 이렇게 간단한 논리를 너무 유치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현대인의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이다. 그 잘못은 개인에게 있기보다는 우리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 이 책의 기본적인 시각이다. 그는 또 이러한 방향으로 끌어가기 위해서는 자연을 물질로만 보는 입장이 아니라, 자연을 바라보는 인간의 자세가 더 중요하다고 말한다. 그래서 그는 올바른 환경관을 갖기 위해서는 인간학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설명한다.

이러한 그의 환경철학은 '마음', '사회', '철학' 등 세 부분으로 나누어 묶었다. 교육환경과 환경교육, 녹색의 마음, 일하는 마음 등의 글을 싣고, 환경문제는 사회문제, 자연의 흐름과 환경 등 환경철학을 대변하는 글들이다. 값 7천원. 김중근 기자

◇금주의 베스트불서 10

책방 역시아문 집계

순위	도 서 명	저·편자	출 판 사
1	선재스님의 사찰음식	선 재	디자인하우스
2	산사에서 부치는 마음의 편지	명 정	좋 은 날
3	선, 신비주의인가 철학인가	변 상 섭	컬처라인
4	마음 하나에 펼쳐진 우주	정 화	법 공 양
5	그들은 마음을 보고 있었다	세 등	문학동네
6	사원예법과 불자에절	성 수	여 래
7	선방일기	지 허	여시아문
8	절을 기차게 잘하는 법	청 견	붓다의 마을
9	원효의 금강삼매경론	은 정 희	일 지 사
10	이른 아침에 나를 기억하라	틱 낫 한	지혜의 나무

도서 안내:(02)737-0695

풋풋하고 따뜻한 인간애

박일문 소설 '추억'



〈살아남은 자의 슬픔〉의 작가 박일문 씨가 자신의 기억을 더듬는 산문소설 〈추억〉(실천문학사)을 내놓았다.

'내 최초의 기억은 대청마루에서 엉금엉금 기던 기억이다'로 시작되는 이 책은, 단순한 개인사를 넘어 현재를 살아가는 세대가 뿌리 깊이 감춘 풋풋하고 따뜻한 인간 본연의 모습을 들추어낸다.

시간의 흐름을 따라 좇아가는 추억여행은 우리가 잊어버렸던 일을 다시 기억하게 해준다. 이책은 아장아장 걷던 최초의 여행길과 사랑채에 드나들던 사람들, 방 한 귀퉁이를 차지하고 누워 있던 죽부인과 키른 수수밭을 지날 때의 느낌을 우리에게 다시 돌려준다. 또한 글쓴이의 승려생활과 여러 선지식을 찾아다니는 구도행도 엿볼 수 있다. 값 7천원.

김중근 기자

동자승 자아 깨닫는 구도 이야기



마하제바

〈비사론〉에 나오는 마하제바(mahadeba), 즉 대천 스님의 이야기를 모티브로 한 장편 구도소설 〈마하제바〉(노가원 지음, 선영사)가 나왔다. 마하제바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죽이는 등 악행을 서슴지 않았으나, 이를 크게 뉘우치고 출가하여 깨달음을 이룬 스님이다.

이 소설은 이 마하제바의 이야기를 소재로, 지리산 영원사를 무대로 전통지향적인 불일과, 개혁지향적인 벽파를 통해 극단적인 전통지향과 개혁지향을 거부하고 중도적 조화를 이루는 과정 속에서 한 천진난만한 동승 홍운이 자아를 깨달아 가는 구도소설이다.

이 작품은 복잡하면서도 하나로 통일되어 있다. 전체적인 흐름은 벽파와 그의 제자 홍운의 만행을 따라가는 이중적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값 9천원.

김중근 기자

氣(마음)와 영혼의 신비한 세계 ※본인들의 의식수준에 한해 개별적인 영기전도 능력 전수가 가능함

모습없는 모습으로 다가온 사람들

저자 : 윤정주

고차원 의 元極學 진여(眞如) 氣 수련원

우리 인간만이 가질 수있는 초월된 정신세계에 관한 아름다운 체험 이야기로 그에 뒤따른 아름다운 마음의 묘법을 누구든지 소유할 수 있다는 이치를 아주 쉽고 재미있게 밝혀놓은 도깨비방망이 같은 책입니다.

전국 서점에서 판매 중!

도서출판 유림 전화 : 02-736-7148, 723-3856 / 팩스 : 02-736-7148

Culture line 컬처라인

수행의 체험에서 나온 책이라야 매력 있는 법

"잘 썼습니다. 눈을 열어주는 길이 있어요"

-통도사 한주 호명 스님



변상섭 지음 / 신국판 336면 / 값 12,000원

참선에 대한 모든 오해와 혼란은 '선의 정신이론'이 없었기 때문이다!!

간화선의 교학적 근거(제1편 선의 정신이론)와 수행이론(제2편 수행론)을 함께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시대적 요구를 수용한 시의적절한 대응 -조선일보

서양철학에 대해 학문적으로 강도높은 비판을 가한 예는 드물었다. -불교신문

불교의 팔만 대장경을 근거로 '선'에 대한 정신이론을 확립 -동아일보

며칠 전에 변상섭이라는 사람의 책을 봤는데, 잘 썼습니다. 눈을 열어주는 길이 있어요 -현대불교 [큰스님과의 대화] 중에서

서양철학이 개념의 이론화 작업에 그친 데 비해 선은 수행과 결부시켜 실천으로 나아갔다는 점에서 한발짝 진전된 이론 -경향신문

'선'이 철학의 궁극적 실천이라고 강조 -대한매일

팔만대장경으로 세운 선의 정신이론

禪 신비주의인가, 철학인가?

저자 강연: 원효의 『대승기신론소/별기』
장 소: (사)우리는선우 사무실(☎ 2278-8672)
시 간: 오후 7:00~9:30(매주 복요일)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464-41 미진빌딩 4층 Tel (02)336-2260(대표) : Fax (02)336-2151 http://www.cultureline.co.kr

연구단체 늘고 토론-논쟁 활발

2000 결산 - 학술

대장경 CD 등 자료 구축
연구성과 인터넷 공개
정기학술지 20여개 간행
타학문과 교류 지지부진

2000년 한 해 동안 국내 불교학계는 다양한 변화를 경험했다. 연구 단체는 늘고, 소장학자의 참여가 두드러져, 예년과 달리 토론과 논쟁이 활발해졌다. 또한 국내 불교학 발전의 초석이 될 기초 연구 자료 역시 증가했다. 그럼에도 다른 학계나 주변국 불교학계와의 교류는 부족하고 '종조 논쟁 무용론'나 '간화선의 현대적 수용' 등과 같이 한국불교의 정체성을 묻는 질문에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구태를 벗지는 못한 한 해였다. 〈편집자〉

◑ 학술단체 창립 '붐'

올해는 불교 관련 학술단체들이 잇따라 창립되면서 불교학계에 새 바람을 불러일으킨 한 해였다. 3월 한국선학회와 회당학회가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고, 5월말에는 불교계가 주도하는 장례문화학회가 창립됐다. 또 불교심리학준비모임, 선어록연구회 등은 올 한 해 동안의 정기 모임을 토대로 2001년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새로 창립하는 이들 학회를 비롯해 현재 교계 학술단체는 약 30여 개. 정기적으로 학술지를 간행하는 학회도 20여 곳 이상 된다. 이 중 대각사상연구원, 한국불교선학연구원, 밀교문화연구원, 정토학회, 전자불전연구소, 불교학연구회 등은 교계 학술의 흐름을 주도했다는 평이다. 이와 함께 한국선, 밀교, 정토, 진각사상 등 각 학회의 지향점에 따라 연구 방향과 참여 인물이 다양한 것도 올해 학회들의 두드러진 점 가운데 하나다.

◑ 불교학 기초 자료 집대성

국내 불교학 발전에 전기를 마련할 '기초자료'들도 집대성되기 시작했다. 가산불교문화연구원은 〈한국고승비문총서〉를 발간했고, 성보문화재연구원도 10년 간의 작업 끝에 〈한국의 불화〉 1차 완간본 발간했다. 임기중(동국대) 교수는 〈불교가사 원전연구〉를 출간했고, 대한불교진흥원은 3년 간의 작업 끝에 〈한국사찰의 편액과 주련〉을 펴냈고, 국제원효학회는 〈원효전서〉영역본 발간을 앞두고 있다. 또한 인터넷이나 CD로 열람할 수 있는 전산본 〈한국불교전서〉(전자불전연구소), 〈고려대장경〉(고려대장경연구소) 등도 나왔다. 이러한 기초자료들은 한국불교를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토대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그 동안 기초자료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았던 불교계가 학문적인 성과를 축적하고 연구를 진행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를 확보하게 된 것이다.

◑ 학회 · 학자 홈페이지 증가

인터넷이 대중화되면서 불교학계에서도 이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현재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교계 학술단체는 대략 10여 곳. 한국선학회, 불교학연구회, 한국불교학회, 한국불교연구원, 고려대장경연구소, 동국대 전자불전연구소, 인도철학회, 동국대 불교사회문화연구원, 원효학연구원, 성철선사상연구원, 선어록연구회 등이 대표적인 사이트이다. 이들 사이트는 자신들의 연구성과를 게시판이나 자료실을 통해 공개하고 있으며, 세미나 일정과 내용을 미리 밝히고 있다. 불교학자들의 홈페이지 운영도 눈길을 끈다. 윤원철(서울대 철학과), 이태승(위덕대 불교학과), 김호성(동국대 인도철학과) 교수 등이 운영하는 사이트가 대표적이다.

◑ 1발표 2논평 체제



◇보조사상연구원 월례발표회에서 전북대 강건기 교수에게 질문하고 있는 이덕진(고려대 강사) 박사.

쟁점과 토론 없는 불교학계 세미나나 발표회에 '1발표 2논평' 체제가 정착됐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교계 학술대회의 모습은 '성의 없는 발표', '형식적인 토론'이 주류였다. 그런데 올해 초부터 신진 · 소장학자들이 세미나에 대거 진출하여 자신들의 주장을 당당히 드러내기 시작했고, 예년 같으면 구색에 불과했던 논평이 활발히 진행됐다.

◑ 반성과 과제

국내 불교학계의 긍정적인 변화에도 불구하고, 특정 인물이나 시대 연구에 치우친 지금의 불교학계 연구 풍토에서 벗어나 철학이나 사회복지와 같은 타 분야와 교류하며 우리의 구체적 현실을 화두로 삼아 불교학적 관점에서 재해석해야 한다는 주장이 적잖다. 또한 '종조'나 '간화선' 등 한국불교의 정체성에 대한 물음이 생산적인 논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이러한 반응은, 한국불교의 주류인 조계종의 정체성, 나아가 한국불교의 정체성을 밝히기 위해서도 사상적, 역사적 양면에서 불교를 연구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즉 방법론으로는 학제간 연구가 활성화되고, 내용에서는 한국의 선불교 연구와 주변국의 불교학 연구를 학문적 에너지로 삼으면서, 현대인의 다변화된 삶을 불교적 시각을 통하여 해석해 내는 데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는 것이다. 오종욱 기자 (gobaoou@buddhapia.com)

문화재 발굴 민간기구 역할 커졌다

조계종 불적조사단 등 10곳 활동
"대학 박물관과 협력체계 구축 필요"

최근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 형태의 민간 발굴전담기구들이 전국적으로 속속 설립되면서 이들이 전체 발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국내 최초의 민간 발굴전문법인은 94년 설립된 영남문화재연구원, 이어 95년 한국문화재보호재단 발굴조사사업단, 97년 충청매장문화재연구원, 경남고고학연구소, 경북문화재연구원, 98년 경남문화재연구원, 99년 기전매장문화재연구원, 호남문화재연구원, 조계종불적조사단 등이 설립됐다. 올해 들어서는 울산문화재연구원이 새롭게 발족했다.

이처럼 최근 민간 발굴전담법인이 급속도로 늘어난 것은 90년대 후반 들어 대규모 개발공사로 긴급 구제발굴의 필요성이 급증한 것이 가장 큰 이유. 실제 96년 191건에 불과하던 발굴건수가 지난해에는 331건으로 급증했다. 여기에다 발굴 기간과 비용 단축을 고려한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설립지원도 한 몫을 차지했다.

민간 발굴전담법인들의 발굴 비율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지난해 전체 발굴건수 331건 가운데 108건(33%)을 이들 법인이 실시했으며, 올해 들어서는 267건 중 102건(38%)을 이들이 맡았다.

이에 대해 최태선(중앙승가대) 교수는 "발굴기간과 용역비를 효율적으로 줄일 수 있어 앞으로 민간 발굴전담기구들이 더욱 확대될 것"이라며 "발굴전담기구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발굴의 질적 수준 유지를 위해 대학과의 역할 분담과 인적 · 물적 교류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역할 분담이 안된 상태에서 민간 발굴전담기구의 증가는 곧 발굴건 확보를 위한 경쟁으로 이어져 자칫 부실발굴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전매장문화재연구원의 경기도 양주 회암사지 발굴조사 모습.

이 때문에 학계에서는 대학과 발굴전담기구의 역할분담과 협력관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발굴전담기구는 구제발굴을 전담하고, 대학은 특수한 발굴이나 학술목적의 발굴을 담당토록 함으로써 연구 및 교육이라는 본래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는 것이다. 오종욱 기자

'한국불교학' A등급

학술진흥재단 분야별 평가

학술진흥재단이 최근 인문 · 사회 · 자연과학 등 13개 학문의 분야별 학술지 369개를 종합 평가한 결과, 〈한국불교학〉은 '국제적 수준' 〈가산학보〉는 '우수 학술지' 평가를 받았다.

정부 차원에서 처음으로 국내 학술지에 대해 등급을 매겨 객관적인 평가를 내리는 이번 평가는 A · B · C 등급으로 차등화해 평점을 매겼다. 평가결과 '국제적 수준 또는 국제적 수준에 근접할 수 있는' A등급은 112개(30.3%), '국내 우수 학술지'인 B등급이 146개(39.6%), '우수 학술지로 도약단계에 있는' C등급은 111개(30.1%)였다. 이 가운데 불교계 학술지로는 〈한국불교학〉이 A등급, 〈가산학보〉가 B등급, 〈대각사상〉, 〈보조사상〉, 〈인도철학〉, 〈정토학연구〉 등이 C등급을 받았다.

한편 이 같은 정부 평가에 대한 학계의 일부 견해는 부정적이다. 학술지 등급을 분야별로 A등급 30%, B등급 40%, C등급 30%로 안배해 상대 평가함으로써, 학술지 수준에 대한 검증작업이 원천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게 지배적인 평가다. 분야별로 납득이 안될 만큼 저평가되거나 고평가된 사례들도 보이고 있다. 더구나 A등급을 받은 학술지들은 소장학자들에 대해 진입장벽이 높아 논문조차 게재하기 힘든 상황에서는 객관성을 확보하기가 어렵다는 지적이다. 오종욱 기자

사찰 편액을 찾아서

㉜ 동산의 범어사 편액



◇부산 범어사 〈금강계단〉편액.



◇부산 범어사 〈원응정사〉편액.

동산 혜일(東山慧日, 1890~1965)은 충북 단양 출생으로 1913년 동래 범어사에서 용성(龍城)을 은사로 득도하여, 평남 맹산의 우두암(牛頭庵)에서 한암(漢岩)에게 사교과를 수학했고, 1917년 범어사 강원의 영명(永明)으로부터 대교과를 배웠으며, 1923년 범어사 금강계단에서 성월(惺月)에게 구족계를 받았다. 이후 그는 금강산 마하연사, 범어사 등의 조실을 지냈으며, 1954년에는 비구 종단의 초대 종정에 추대되기도 하였다.

동산은 어려서부터 향숙에 입학하여 한학과 서법을 배웠으며, 이어 보통학교와 중동중학교를 마치고, 1912년 경성의학전문학교를 졸업하였다. 동산은 서법에 매인 글씨를 쓰지는 않았지만, 간혹 당(唐) 유공권(柳公權)의 서미가 엿보이는 단아한 글씨를 즐겨 썼다. 그가 사찰에 남긴 글씨로는 부산 범어사 〈금강계단〉, 〈원응정사〉 편액 등이 대표적이고, 이외에도 범어사 대웅전, 천왕문, 불이문에 걸린 주련이 그의 필적이다.

부산 범어사 대웅전 아래쪽의 보제루 후면 〈보제루〉 편액 아래에 걸린 〈금강계단〉 편액에는 '계묘초하 석동산(癸卯初夏 釋東山)' 이라는 관지와 '석동산인(釋東山印)' 이라는 도서가 있다. 이 편액은 동산이 입적하기 두 해 전인 1963년에 쓴 글씨로, 위쪽에 걸린 〈보제루〉 편액이 정면 5칸의 규모와 어울리는 매우 큰 것이어서 작은 편액이 상대적으로 더욱 왜소해 보인다. 편액의 글씨는 당(唐) 유공권(柳公權)의 서미가 엿보이는 해서로 군더더기를 다 떨어내고 근골(筋骨)만 남긴 청경(淸勁)한 글씨이다.

부산 범어사 보제루 우측에 자리한 원응정사는 1925년에 성월이 중건한 건물로 강원으로 사용되던 곳이다. 요당의 앞쪽에 걸린 〈원응정사〉 편액은 서법(書法)을 뛰어넘은 동산의 노건(老健)한 선필로 도서나 관지는 따로 없다. 편액의 형태는 액판을 직사각형으로 파내고 글씨를 양각으로 새긴 민관 형태인데, 후에 변죽을 덧붙인 것으로 테두리의 구획이 중복되어 어색한 느낌이 든다.

금강계단

당 유공권의 서미 엿보여

원응정사

민판에 새긴 노건한 선필

안병인 〈대한불교진흥원〉

"제주 수정사지 복토 후 보존 바람직"

제주대 박물관 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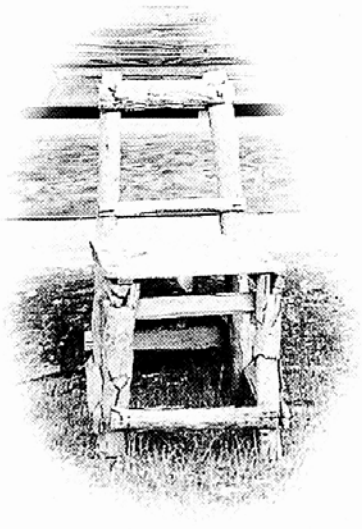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에 포함돼 유적훼손 우려와 함께 보존여부가 관심을 끌고 있는 제주시 외도동 수정사지는 원상을 복토하여 보존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지적됐다.

제주대박물관은 최근 지난 1998년 6월부터 10월까지의 시굴조사와 올해 2월부터 6월까지의 발굴조사 결과를 묶은 조사보고서를 통해 현재의 상태로는 외도동 수정사지의 전체를 복원할 수 있는 입장이 못되지만 노출된 유구와 출토된 유물의 가치는 매우 높다며 "발굴지만이라도 원상을 복토하여 보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제주대박물관의 발굴결과 사찰의 규모는 남북 120~150미터 동서 50~60미터 정도이며 12등의 건물지와 도로와 보도, 탑지, 석등지, 담장지, 폐와무지, 적석유구 등이 확인됐다. 특히 '2월수정선사'(二月修正禪師), '목사겸만호'(牧使兼萬戶)라고 쓰여진 명문기와와 6~8엽 연관문이 새겨진 숫막새 등의 유물이 출토됐다.

이로 미루어 수정사는 적어도 12세기경에 창건된 탐라의 고찰이지만 18세기 이후의 유물이 확인되지 않아 이 시기에 폐찰됐음으로 보여주고 있다. 오종욱 기자

누구라도 붓다를 닮아 해탈에 이른다



가슴에 다가오는 친근한 붓다!

붓다의 바탕이 되는 가르침은 가능한 한 남을 돕고 남에게 해를 끼치지 말라는 것이다. 또한 붓다는 자비와 지혜가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말한다. 선한 마음과 깨인 마음이 곧 해탈에 이르는 길이기 때문이다. - 달라이라마

이 책을 작업하는 동안 내내 붓다의 참모습에 감동했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솔직히 나는 내 눈에 들어와 있던 붓다라는 흐릿한 피사체가 이 책을 통하여 아주 선명해지는 느낌이었다. 실체를 모호하게 했던 결막이 사라지고 생생한 모습이 망막에 투사됐을 때의 기쁨이란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리라. -〈엮은이의 말〉 중에서

날마다
가슴에 새겨듣는
붓다의 말씀
정찬주 엮음


4×6 양장, 값 7,500원

정찬주
불교소설 전문작가로 성철스님의 일대기를 다룬 장편소설 《산은 산 물은 물》, 만해 한용운 님의 전기소설 《만행》, 인도를 여행하고 돌아와서 집필한 《그곳에 부처가 있다》 등이 있고 산문집으로는 《암자로 가는 길》, 《길 끝나는 곳에 암자가 있다》, 《암자에는 물 흐르고 꽃이 피네》가 있으며, 현재 '암자를 좋아하는 사람들' 대표로 있다.

이 세상은
나의 사랑이며 또한 나다

혼란스럽고 험한 세상에서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고 늘 맑고 새로운 정신을 솟아나게 해주는 책!

달라이라마, 틱낫한, 잭 캔필드, 게리 스나이더, 조애나 메이시 같은 불교계의 위대한 스승들이 선방이나 명상센터에 국한된 불교가 아니라 생활 속에 실천하는 불교에 대해 이야기해 준다. 평범한 사람들도 불교의 관점과 지혜를 일터와 인간관계 속에서 아름답게 조화시킬 수 있음을 일깨워 주고 있다.

신국판 | 틱낫한 외 지음 | 값 9,200원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9번지 동일빌딩 7층
전화 02-722-7181 팩스 02-738-6167
yang

스님께서 이토록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원로 언론인 **이규행**이 쓰는

달마 이야기 ⑫

(11) 도견왕의 참회

도견왕의 사과를 받은 바라제는 부드러운 미소로 화답했다. 제왕이 승려에게 머리 숙여 잘못을 비는 경우란 흔치 않은 일이기에 더욱 지극하게 말했다.

"대왕께서는 예가 지나치십니다."

그러나 도견왕은 막무가내였다.

"나가 덕이 모자라 큰 잘못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부디 스님께서 불법의 요체를 일러 주시어 어리석음을 깨우쳐 주십시오!"

바라제는 고개를 들어 밤하늘에 걸린 초승달을 바라보았다. 어슴푸레한 달빛이 므성한 대나무숲을 비추고 있었다. 바라제는 그런 풍광과 촛불에 비치는 도견왕의 얼굴이 묘하게 조화를 이룬다고 생각하면서 입을 열었다.

"대왕께 제가 옛날 이야기를 하나 해 드리지요. 우리가 모시는 석가모니 부처님은 전생에 대차국(大車國) 국왕의 셋째 아들이었습니다. 어느 날 국왕께서 세 왕자를 데리고 산골짜기로 놀이를 나갔더랍니다. 그 곳엔 호랑이 한 마리가 새끼를 일곱 마리나 낳고 나서 이레 동안 음식을 먹지 못해 앙상하게 뼈가 보일 정도로 말라서 헐떡이고 있더랍니다. 그런 광경을 본 첫째 왕자는 호랑이가 배고픔이 극에 달하면 반드시 새끼라도 잡아먹을 것이므로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둘째 왕자는 굶주린 호랑이를 구해 주긴 해야겠는데도 도와 줄 방법이 없다고 한탄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셋째 왕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버지와 형들이 한참을 앞서 갔는데도 그 자리에 못이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덕이 모자라 큰 잘못을…

'일반적인 생령은 다만 자기 몸만 아끼고 사랑하는 것이 아닐까. 그러나 대자대비란 그런 것을 넘어설 수 있어야 한다. 남을 돕기 위해서는 자신을 버리고 몸마저 내놓을 수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셋째 왕자는 큰 서원을 세운 듯 굶주린 호랑이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옷을 다 벗은 맨몸이 되어 호랑이 앞에 엎드려 다음과 같은 게송을 읊었다고 합니다. '나는 법계중생을 위하여 무상의 보리를 구하려고 뜻을 세웠도다. 큰 자비심을 일으켰지만 사람들을 감동시키지 못하니 이제 마땅히 범부의 몸을 버리려 한다.' 셋째 왕자는 호랑이가 잡아먹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호랑이는 왕자의 장엄한 행동에 놀랐는지 한 발짝도 움직이질 못했습니다. 왕자는 호랑이가 너무 굶어서 기력이 쇠잔하여 움직이지 못하는 것이라 여기고 높은 바위 위로 올라가 호랑이가 있는 곳을 향해 몸을 던져 먹이가 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호랑이는 여전히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왕자는 옆에 있는 대나무를 꺾어 죽창을 만들어 자신의 목을 찔렀습니다. 목에서 피가 흘러나오자 비로소 호랑이는 그것을 혀로 핥기 시작했습니다. 피 맛을 본 호랑이는 거침없이 왕자의 몸을 다 먹어 치웠고 왕자는 뼈만 남게 되었답니다. 이 때 하늘에선 꽃송이가 비처럼 쏟아지고 대지가 진동했답니다. 심상치 않은 상황에 놀란 국왕과 두 왕자가 되돌아와서 보니 호랑이 주위로 유혈이 낭자한 가운데 뼈만 이리저리 흩어져 있더랍니다. 국왕과 두 왕자는 너무나 슬퍼 한없이 통곡하며 유골을 수습한 뒤 탑을 세우고 공양했답니다. 셋째 왕자의 남을 위해 자기를 버리는 이런 정신이 바로 불교가 지향하는 보시(布施)의 전범(典範)인 것입니다. 이러한 보시야말로 최고 경지의 보시이며 이렇게 될 때 비로소 생사고해(生死苦海)를 넘어서 불성(佛性)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 **"천학비재한 몸으로 욕되게 왕위를 계승하고 삿된 것을 좇았으니…"**

도견왕은 바라제가 들려준 고사에서 크게 느낀 바가 있었다. 그는 생각했다. 셋째 왕자는 귀하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조금도 교만하지 않았고 하찮은 짐승조차 천시하기는커녕 오히려 구제하려고 자기 몸을 던지지 않았는가. 그러한 숭고한 정신과 행위에 비추어 볼 때, 내가 지금까지 한 것이 과연 무엇이었단 말인가.

도견왕은 생각할수록 얼굴을 들 수가 없었다. 지난날을 사죄하는 뜻에서도 삼보(三寶)를 진심으로 받들어야 한다고 스스로 다짐했다. 그는 바라제에게 몸을 굽혀 몇 번이나 절을 하며 말했다.

"스님께서 이토록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데 여쭈어 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스님께서는 어느 분을 스승으로 모시고 계시는지요?"

바라제는 도견왕이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는 것을 알고 흐뭇해 했다. 그러나 도견왕을 올바로 교화시킬 수 있는 사람은 보리달마 말고는 없다는 것도 잘 알고 있었다. 바라제는 한참을 뜸 들이더니 나직하게 대답했다.

"제가 지금 모시고 있는 스승은 바로 대왕숙(大王叔)이신 보리달마이십니다."

도견왕은 보리달마의 이름을 듣자 소스라치게 놀랐다. 마치 얼이라도 나간 듯 멍하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한참 동안 침묵이 흐른 뒤에야 비로소 입을 열었다.

얼굴을 들 수가 없었다

"제가 큰 죄를 지었습니다. 천학비재한 몸으로 욕되게 왕위를 계승하고 삿된 것을 좇아 바른 것을 내치려고 했을 뿐만 아니라 존경하는 대조사이신 숙부조차도 잊고 있었으니 이보다 죄가 더 클 수는 없을 것입니다. 청컨대 스님께서는 이 불경스런 죄인을 용서해 달라고 왕숙께 말씀드려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어느 곳에 계신지, 당장 왕숙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대왕의 청을 받아들이지요. 이것도 다 인연이 아닙니까."

바라제가 말을 마치자 한 줄기 바람소리가 나더니 갑자기 구름이 일고 안개가 피어 올랐다. 그 속으로 바라제는 몸을 날려 표표히 사라졌다.

도견왕은 무엇에 홀린 듯 어안이 벙벙했다. 하지만 바라제가 사라진 방향을 향해 예를 올리는 것을 잊지 않았다. 도견왕은 정신을 가다듬어 칠흑같이 어두운 사방을 돌아보았다. 밤의 고요함이 몸 속으로 스며들어 마음까지 숙연해졌다. 거듭 반성하는 속내가 그의 등줄기 구석구석에서 땀방울로 흘러내렸다.

바라제는 청봉산으로 발길을 재촉했다. 때마침 보리달마는 여러 제자들과 함께 예불을 끝마친 상태였다. 바라제는 기쁜 얼굴로 보고했다.

"도견왕이 사신을 보내서 성조(聖祖)를 모셔가기로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보리달마는 흐뭇해하면서 치하의 말을 아끼지 않았다. 도견왕이 비속한 인간이 아닌 것은 누구보다도 보리달마가 잘 알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인연있는 사람을 만나 심요(心要)의 강설을 들으면 다시 삼보(三寶)를 숭배하고 불교를 빛내는 길에 들어서리라고 확신했었다.

보리달마가 바라제와 함께 뭇 제자들에 둘러싸여 이야기를 나누려고 할 때 멀리 산 아래서 음악을 연주하는 소리가 들려 왔다. 바라제가 말했다.

"벌써 사신들이 당도한 것 같습니다. 조사께서는 준비를 서두르시지요."

보리달마는 제자들이 말하는 대로 따르기로 했다. 자신이 절을 비운 동안의 모든 일을 바라제에게 맡기며 꼭 해야 할 일을 당부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보리달마는 사신들의 안내를 받으며 왕궁을 향해 떠났다. 도견왕은 왕궁 10리 밖까지 향을 피워 보리달마를 영접했다. 도견왕은 새삼스럽게 숙부인 대조사의 얼굴을 우러러보았다.

보리달마의 얼굴은 밝게 빛을 발산하고 있었다. 표정은 장엄했고 걸음걸이는 느린 듯싶었으나 장중했다. 온 몸에선 성스런 기운이 감돌고 있었다. 도견왕은 마음 속으로 중얼거렸다.

'숙부는 진정한 활불(活佛)이시구나!'

도견왕은 땅에 꿇어 엎드려 눈물을 흩뿌렸다. 자기의 잘못을 빌면서 숙부께 참회의 기도를 올릴 것을 다짐했다.

보리달마는 두 손으로 도견왕을 부축해 일으켜 세웠다. 담담히 미소 지으면서 말했다.

"조카는 진심으로 참회하시오?"

"제가 어찌 실없는 소리를 감히 겉치레로 할 수 있겠습니까?"

도견왕은 몸을 굽혀 절하면서 대답했다.

"그럼, 좋소이다!"

보리달마는 웃음을 거두고 정색을 하며 말했다.

"일찍이 부처님이 한 비구(比丘)에게 이렇게 말한 일이 있습니다. '스스로 나의 법대로 참회하는 자는 곧 많은 보탬을 얻을 것이니라' 고 했습니다. 이것은 계율을 범한 사람이 참회하는 길을 제시해 준 것입니다.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려면 우선 그 마음을 깨끗이 하고 생각을 거두어 고요히 해야 하며, 몸가짐을 단정히 하고 엄숙하고도 공손한 태도를 보여야 함은 물론이고 안으로 참회하는 마음이 가득하고 밖으로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보리심을 발하여 일체 중생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이 모두 해탈하도록 서원하는 그런 마음가짐이 있어야 합니다. 이밖에 여법(如法)해야 함은 물론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들고 잘못을 고백하며 중생에게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죄업이 사라지고 과거의 잘못이 녹아 없어져서 심령이 정화되는 목적을 이룰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김명국作 달마도(종이에 수묵,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97.6×48.2cm)

종승은 과연 살았는가?

이 훈계를 듣는 순간 도견왕은 전날 밤 쫓아버린 종승이 머리에 떠올랐다. 그를 모욕하며 내친 것이 못내 마음 아팠다. 자기도 모르게 참회의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그는 보리달마에게 말했다.

"숙부님의 훈계를 어리석은 조카는 삼가 영원히 간직하겠습니다. 제가 깊은 참회와 함께 또 한 가지 용서를 빌 일이 있습니다. 숙부께서도 짐작하시겠지만 종승 대사를 내쫓은 일이 있는데 그 대사를 불러 와서 용서를 구하고 싶습니다. 숙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보리달마는 엷은 웃음을 입가에 보일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도견왕은 즉시 신하들을 불러 명령을 내렸다.

"그대들은 속히 총림(叢林)으로 가서 종승 대사를 찾아 모셔와라."

이때 신하 한 사람이 꿇어 엎드려 아뢰었다.

"심가 아뢰옵니다. 신이 듣건대 종승 대사는 왕궁에서 쫓겨난 뒤 절벽에서 투신하여 이미 죽었다고 합니다."

"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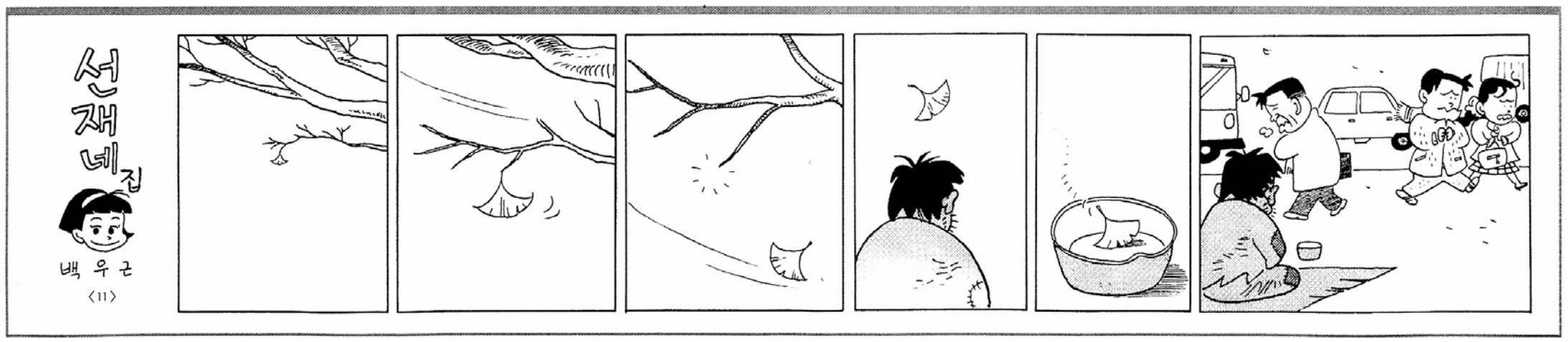
그 소리를 들은 도견왕은 마치 벼락을 맞은 듯 비명을 질렀다. 만약 그렇게 되었다면 그 죄값을 무엇으로 치러야 한단 말인가. 그는 황급하게 보리달마에게 자문을 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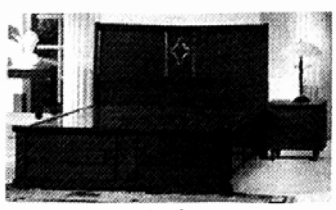
"종승 대사의 죽음은 모두 저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저의 이 죄를 용서받을 수 있을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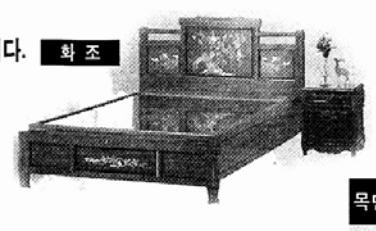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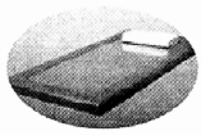
보리달마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조카는 너무 놀라지 마시오. 소문은 종승이 죽은 것으로 나 있지만 내가 짐작하건대 그는 아직 죽지 않았소이다. 이곳에서 멀지 않은 산 속의 암자에서 쉬고 있는 것이 분명하오. 지금이라도 사람을 보내서 확인해 보도록 하시오. 그리고 그를 불러 오는 것은 별 문제 없을 것이오. 왕명에 따라 곧 올 것으로 믿소이다."

도견왕은 이 말을 듣고 매우 기뻐했다. 보리달마를 궁성 안 후궁으로 안내하여 조용히 쉬도록 모셨다. 그리고 신하들에게 속히 종승을 찾아 오라고 명했다. 비록 대조사의 말씀이긴 했지만 신하들은 당혹스러웠다. 종승은 과연 살았는가. 죽었는가? 살아 있다면 지금 어디에 있는가?



폭탄세일
돌침대 좋은건 아시죠!

리빙 1004 250만원 → 149만원

사군자 330만원 → 199만원
돌침대 대중화 선언!
돌침대는 특권층 전유물이 아닙니다.
건강을 사겠습니까?
이제 돌침대를 쓰셔야 합니다.
아무나 쓰는 흉내만 낸 돌침대가 아닙니다.
최고급 원목, 최고의 기능
리빙스톤 원적외선 돌침대 는
선택받은 귀하만의 것입니다.

화 조

101 싱글보료

목단
청태의 名家 리빙스톤
☎ 02)424-9427
02)2203-7821
좋은 잠자리가 젊음을 줍니다.
리빙스톤 원적외선 돌침대의 효능…
◆ 몸속 깊숙히 원적외선이 전달됩니다.
◆ 유해전자파, 정전기를 완전 제거하고, 수맥을 차단하였습니다.
◆ 평생 A/S로 안심하고 대를 물려 쓸 수 있습니다.
◆ 한달 전기료는 12,000원 안팎(1일 10시간 사용 기준)으로 부담없습니다.(2인용)
◆ 고유가시대, 난방비를 절약하는 방법 - 리빙스톤 돌침대로
평상(平床) 제작 전문(휴식, 작업다이),
자동온도 조절기능, 사무용 기구 주문 제작 납품

'새싹 포교' 문화프로 빈약

DDR·테크노댄스만 열기
백일장·찬불가 마당 썰렁
미술·국악 등 응용 절실

올 한해 교계의 청소년 행사를 보면 신세대 눈높이에 맞춘 댄스 행사들이 많이 열려 호응을 얻은 반면 백일장과 찬불가 부르기 등 문화 행사들이 저조해 청소년 문화 프로그램이 다양화 해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부처님오신날 봉축 행사를 시작으로 올 한해 열렸던 교계의 청소년 프로그램중 빠지지 않고 가장 많이 등장한 것은 D.D.R댄스와 테크노댄스다. 청소년들이 선호하는 이 춤들이 공연되는 곳이면 언제나 객석에서는 종교를 초월한 같은 또래의 청소년들로 붐빈다. 기존의 찬불가 부르기 대회, 백일장, 봉사활동 등의 규격화된 청소년 행사들에 비해 참여 인원수에 있어서도 비교가 안될 정도로 많다. 공연장의 열기 또한 대단하다. 무대에서 공연되는 춤을 함께 따라하며 열광하는 청소년 관객들을 바라보면 청소년들의 기호에 맞는 문화 프로그램 개발이 청소년 포교에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었다는게 일선 포교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목소리다.

이를 증명하는 좋은 사례들은 교계의 청소년 단체나 종립학교 등에서 올 한해 열렸던 청소년 대상 포교 행사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파라미타 청소년협회 서울지부가 5월 7일 봉축행사의 일환으로 마련한 '청소년댄스 경연대회'에는 5백여명이 참여할 정도로 열기가 대단했다. 객석에서는 자신이 좋아하는 댄스그룹을 응원하기 위해 '플랭카드'를 들고 일어나 춤을 추는 등 인기 연예인의 공연장을 방불케 했다.

같은날 저녁 탑골공원 앞에서 한마음 중고등부 학생회가 마련한 '보컬댄스 음악 파티'에서도 3백여명의 청소년과 시민들이 참여해 열띤 호응을 받았다. 역시 9월 목동청소년회관에서 열린 'D.D.R 춤잔치 경연대회'에서는 신청자가 쇄도해 접수순으로 선별했을 정도로 인기가 높았다.

이와같이 올해 들어 눈에 띄게 늘어난 댄스 행사 바람은 청소년들의 참여도를 높이고 포교효과를 극대화하는데 한몫 톡톡히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실제로 교계의 모 종립학교에서는 부처님오신날 봉축행사때 '백일장'과 '찬불가 부르기' 대회를 개최했는데 신청자가 저조해 행사를 위한 행사에 그친 반면, '테크노댄스 경연대회'에서는 당초 예상보다 4배의 신청자가 몰려 예심을 나눠 치렀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이런 추세에 대해 교계의 청소년 지도자들은 청소년들의 높은 참여도와 호응도를 겨냥한 포교 활성화에는 도움이 되지만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음악적 특성상 건전한 정서함양에 해가 될 우려도 있어 내년에는 또다른 행사 모델의 개발이 시급하다는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이에 대해 홍자운 디지털 열린 상담실장은 "단순히 청소년들의 기호에 프로그램 성격을 맞춘다고 댄스 프로그램 일색으로 흐르는 것은 자칫 놀이 위주 문화에만 빠질 위험이 있다"며 "청소년 포교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악, 미술, 컴퓨터 등 다양한 장르를 신세대 감각에 맞게 각색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주일 기자(jikim@buddhapia.com)



◇올 한해 청소년들의 기호를 겨냥한 테크노 댄스, D.D.R 등의 행사가 많이 열려 청소년들의 인기를 끌었다. 사진은 목동청소년 수련관 주최 신세대 가요제 장면.

주부 신행담

태양은 다시 떠오르고 ③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했던가. 불교는 점이나 보는 미신이라고 오해를 하며 사찰에 가기를 싫어했던 남편에게도 조금씩 변화가 일기 시작했다. 파산 직전까지 갔던 우리 가정이 나의 새벽 기도 때문에 정상을 되찾은 가피를 옆에서 지켜보고는 '미신이니, 점술이니' 하는 불교를 비하하는 소리를 더이상 하지 않았다. 그리고 내가 법당에서 108배를 할때면 옆에서서 최소한 삼배 정도는 올리며 참선하는 자세로 앉아 있었다.

남편도 이젠 고정적인 수입이 있고, 나도 식당일이 제법 익숙해져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안정을 되찾게 불교를 열심히 믿어 보라고 포교까지 하고 다닌다. 남편도 정신적으로 많은 안정을 되찾은 듯 했다. 예전 같으면 술먹고 늦게 들어오는 날이 다반사였는데 요즘은 술먹고 오는 날이 거의 없을뿐만 아니라, 술을 먹어도 자신이 조절해서 적당하게 마셨다. 또 아무리 술을 마셔서 취기가 있어도 〈금강경〉을 꼭 독송하고 잠자리에 들었다.

남편과 함께 새벽기도도 나란히 나가고 밤에는 침대 위에서 머리를 맞대고 〈금강경〉 독송도 하니까 부부금슬도 자연히 좋아졌다. 생각해보니 결혼하고 나서 무엇인가를 같이 한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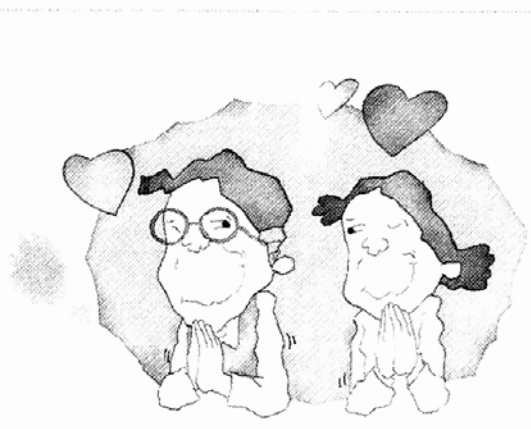


그림 · 이준석

남편도 새벽기도…금슬 좋아져

기 시작했다. 또 2년 정도를 열심히 저축하니 돈도 제법 모여 제천 시내에 조그마한 식당을 하나 개업했다. 분식집이지만 남의 집 일을 거드는 것에서 벗어나 내 사업을 한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벅찼다. 이 모든 가피가 새벽기도 덕분이라고 생각한 나는 현재의 상황에 자만하지 않고 더욱더 새벽 정진에 매진했다.

부처님의 정법이 남편의 가슴속에도 전달이 된 것일까. 남편도 새벽예불에 같이 동참하기 시작했다. 일요일날 나들이 겸 절에 가자고 해도 이 핑계 저 핑계 대며 빠질려고 하던 남편이 신기하게도 언제부터인가는 먼저 일어나 깨끗이 목욕을 하고 집을 나서는 것이 아닌가. 늦바람이 무섭다는 표현이 여기에도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요즘은 나보다도 더 열심히 108배는 물론 200배, 300배 등 점점 더 횟수를 늘리며 정진에 몰두하고 있다.

심지어 회사에 나가서도 직원들에게 불교를 열심히 믿어 보라고 포교까지 하고 다닌다. 남편도 정신적으로 많은 안정을 되찾은 듯 했다. 예전 같으면 술먹고 늦게 들어오는 날이 다반사였는데 요즘은 술먹고 오는 날이 거의 없을뿐만 아니라, 술을 먹어도 자신이 조절해서 적당하게 마셨다. 또 아무리 술을 마셔서 취기가 있어도 〈금강경〉을 꼭 독송하고 잠자리에 들었다.

남편과 함께 새벽기도도 나란히 나가고 밤에는 침대 위에서 머리를 맞대고 〈금강경〉 독송도 하니까 부부금슬도 자연히 좋아졌다. 생각해보니 결혼하고 나서 무엇인가를 같이 한적이 거의 없었던 것 같다. 그런데 이제는 부부가 같이 절도 하고 독송도 함께 하니 하나가 된 느낌처럼 행복했다. 부처님 가르침을 믿고 따르는 것이 정신적인 안정과 평화 이의에도 가정의 화목 등 삶의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소중하게 느껴졌다.

요즘은 우리 분식점을 찾는 손님들에게 포교를 하려고 애쓰고 있다. 예전에 내가 일하던 식당에서 주인 아주머니가 내게 했던 것처럼 말이다. 음식을 팔아 돈을 버는 보람보다는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이나 역경에 처한 사람들에게 포교하는 일이 더 즐겁다.

우리 가정은 언제까지나 부처님 정법의 그늘에서 실천을 하며 살아갈 것이다. 보다 많은 사람들이 부처님 가피를 얻고 행복을 찾을 수 있길 발원한다. 영원한 도반이자 남편인 김신인 거사에게도 지면을 통해 감사드린다. 〈끝〉

이민자 〈충청북도 제천시 천남동〉



윤제학기자의 손 이야기 ⑩

■ 온수에 손 담그기

지금은 거의 사라졌지만, 겨울만 되면 우리네 집 안방을 차지했던 것이 있다. '화로'다. 이 말은 영어로 옮길 때도 아주 고민이 된다고 한다. '히터'라고 해도 마뜩치 않고, '스토브'라고 해도 사정은 달라지지 않는다. 그런 말 속에는 화로라는 말이 주는 정서적 울림같은 게 없다.



모닥불은 또 어떤가. 한여름이라도 그냥 지나치지 못하게 하는 묘한 매력을 지니고 있다.

이 두 종류의 불 앞에서 보이는 사람들의 반응에는 공통점이 있다. 손부터 내밀고 본다는 것이다. 이처럼 손은 온도에 민감할 뿐 아니라 내장기관의 활동과도 긴밀한 관련을 맺고 있다. 따라서 손을 통한 건강 요법은 가장 쉽고도 요긴하다. 그 중 하나가 '뜨거운 물에 손 담그기'다.

'뜨거운 물에 손 담그기'는 냉증이나 천식 그리고 만성피로 다스리기에 유용한 수단이다. 갑작스런 천식의 경우 조금 뜨거운 물에 손발을 담근다. 폐의 울혈을 손과 발로 유도함으로써 발작을 진정시키는 것이다. 3분 정도 담근 후 붉어지는 정도를 보면서 변화가 없는 쪽은 계속해서 담그는데, 어깨나 이마에 땀이 배어나오기 시작하면 그친다.

뜨거운 물에 손 담그면

냉증 천식 만성피로에 좋아

만성 피로는 만병의 근원이다. 그때 그때 적절히 피로를 풀어 줄 수 없을 정도로 자율신경이 제 구실을 못하면 단순 피로가 만성병으로 바뀌는 것이다.

천식 발작시 응급처치 수단으로건 하루하루의 피로 회복 목적이든, 물의 온도와 담그는 시간은 손(발)이 붉어지는 정도를 고려해서 조절하면 된다.

랩·댄스풍 찬불가 불러보세요

풍경소리 찬불동요 11집 발표

찬불동요 보급 운동을 벌이고 있는 좋은벗 풍경소리가 찬불동요 창작곡 제11집을 발표했다.

이번 11집에는 '절에 가는길' '하얀눈이 오네요' '겨울나무' '눈사람' 등 겨울을 소재로 한 가사에 경쾌한 리듬의 곡을 붙여 동심을 담아낸 13곡이 수록돼 있다.

특히 11집에서는 어린이 찬불가만을 주로 음반에 담아내던 기존 방식에서 한 단계 발돋움해 청소년들이 흔히 따라 부를 수 있는 찬불가 들도 여러곡 수록돼 있다는 점에서 눈여겨 볼만하다. 또 동요에서 랩, 댄스음악 등 장르의 폭을 다양하게 넓혔고 구연동화 '만두와 지장보살'을 삽입해 풍부한 들을거리를 제공한 것도 빼놓을 수 없는 특징이다.



풍경소리 대표 이종만씨는 "11집부터는 다양한 장르를 시도하려고 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두고 싶다"며 "앞으로도 어린이 및 청소년 포교를 위한 일념으로 더욱 발전적인 찬불동요 음반 제작에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02)717-6985

김주일 기자

청소년단신

겨울방학 영어교리 강좌

연등국제불교회관은 26일부터 내년 2월3일까지 '겨울방학 청소년 영어 교리 강좌'를 연다.

영어와 불교에 관심이 있는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이번 강좌에서는 불교 기초교리를 원서로 해독하는 프로그램이 실시된다. 주 2회에 걸쳐 결쳐지는 수업은 간단한 시험을 거쳐 초·중·고 급으로 나눠 진행된다. 접수기간은 22일까지다. (02)735-5347

만화·영화·댄스 특강

부산 양정청소년수련관은 28일부터 청소년 방학 특강을 마련한다.

이번 강좌에서는 △인터넷 홈페이지 제작 △NIE논술 △만화 그리기 △영화 제작 △스포츠댄스 등 다채로운 내용의 강좌가 열린다. 또 어린이 특강 프로그램으로는 동요부르기, 미술그리기, 뮤지컬 영어배우기 등의 강좌도 준비돼 있다. (051)868-0750

참선 정신건강 훈련

하동 청소년수련원은 22일까지 경남지역 관내 중고등학교 수험생을 대상으로 청소년 수련관에서 '청소년 정신건강 특별강좌'를 개설 운영한다. 시험후 예상되는 청소년들의 탈선예방을 위해 마련된 이번 강좌에서는 청소년들의 심신수련을 위한 참선 정진 강좌와 명상훈련 등이 펼쳐진다. (055)883-5393

불교수행의 길잡이 ①

절을 氣차게 잘하는법

헐떡이지 않고 절대 숨차지 않으며 3천배를 하여도 지치지 않는 절 수행 秘法書 -

회/제/의/신/간



청견 스님 지음
값 6,500원

하루에 3천배씩 3년간 목숨을 담보한 절(拜) 수행결사 끝에 각고의 노력으로 탄생된 比丘 청견스님의 절 수행 秘法과 생생한 수행 체험담이 담긴 이 책은 절을 보다 쉽고 재미있으며, 과학적으로 行할 수 있는 절 수행 지침서로써, 불자들의 가슴에 신선한 감동과 희망을 선사 할 것입니다.

500만배의 절 / 호흡에 맞춰 절하는 법 / 절 수행에 염불 대입법 / 온몸에서 빠져나간 약물 / 90세에 다시 찾은 젊음 / 절 수행으로 업장 소멸 / 카톨릭 신자의 절 수행 / 절 수행으로 당뇨병을 극복하다 외

붓다의 마을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 156 象 갤러리 405호
전화 : (02)722-0292 / 722-0293(팩스 겸용)
E-mail : BDland@chollian.net

■ 지금 서점에 있습니다.
■ 절 수련 문의
경기도 양평군 단월면 소리산 참선캠프 법왕정사 수행원
☎ (031)771-7745 / 6736

■ 불교대학, 군부대, 교도소 등으로 법보시를 원하시는 분에게는 할인혜택을 드립니다.

물없이 씹어 먹을 수 있는 최고급
자연식 식사 / 生 - 선식



火食百食而不 ■ ·生-禪食
(화식백번을 먹는것이
생선식 한번 먹는 것 보다 못하다)

'생' 선식 하나로

비만 쏙 / 피부 쏙 / 체질 재 / 피로 생 / 기운 싹 / 면역력 싹 / 혈액순환 회복 / 쏙 / 쏙 / 상승 / 원활

건강 O.K

특허상표 출원번호 2000-40253
특허상호 출원번호 2000-21890

옛비법의 전통선식 전문 상 기 원

서울 종로구 견지동 110-53 신안빌딩
전 화 080-737-0040
소비자상담실 02-723-4463-4

진여암 메주를 판매합니다

2000년 3월 조상들의 전통을 방법으로 현대인들에게 건강한 식단을 위하여 공기 맑고 물 맑은 속리산 고랭지 해발 약 500미터에 위치한 암자 진여암에서 지하 140자 암반수를 퍼올려 순수 국내산 우리콩을 푹 삶아 4주간 숙성 발효시켜 만들었습니다.

서구화 되어가는 먹거리로 대장암이나 직장암 등 각종 성인병이 많으나 우리의 맛있는 먹거리를 제공하여 여러 사람의 건강을 지키고자 우리고유의 전통 가마솥에 삶아 발효시켜 만든 메주를 보급합니다. 또한 소금을 대나무에 넣어 구워 만든 죽염으로 죽염된장, 죽염간장, 죽염마늘고추장을 만들었으니 많이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메 주 : 반말, 1말
죽염된장 : 3Kg
죽염간장 : 3L
죽염마늘고추장 : 3Kg

▶ 죽염마늘고추장은 먹을 때 맵긴하나 위가 약하신 분도 마음껏 드셔도 속이 쓰리거나 아프거나 하지 않고 속이 편안합니다.

▶ 주문 및 문의전화
속리산 진여암 043-542-2239
서 울 지장사 02-885-1558
홈페이지 WWW.ggachimaul.or.kr



대행스님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봉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쭈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 인터넷:www.hanmaum.org ● FAX: (031)470-3116

길을 묻는 이에게

법공양 페이지

집착없으면 苦도 팔자운명도 없어

오늘은 날이 따뜻해서 같이 한자리하는 것이 마음이 편안합니다. 날이 추울 때는 마음이 상당히 편안치가 않거든요. 그러나 춥든 덥든 한철 인생살이는 구름이 지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한철을 어떻게 사느냐, 어떻게 생각을 하고 어떻게 행동을 하느냐는 문제가 큽니다.

예전에는 선지식들이 소로 비유를 하고 코끼리로 비유를 해서, 입에다 자갈을 물리고 밥을 굶기고 세 번째는 몽둥이질을 한다고 얘기했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 보세요. 처음에는 소 고삐를 쥘 양으로 거선을 하고, 나중에는 소 고삐를 쥐고, 말을 걸러서 하고 항상 남을 섭섭지 않게 하고 남을 아프게 하지 않으면서, 일체를 다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항상 내면으로 자불을 쥐고 가는 거와 같은 겁니다. 소 고삐라는 건 자기의 인연줄, 즉 말하자면 근본 자리의 줄이라고 할 수 있죠. 그것이 고삐로도 비유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배가 고픈데 밥을 주지 않는다는 뜻은 자기가 자기를 아무거나 집어먹지 못하게 다스리는 겁니다. 우리가 먹는 걸로 비유를 하는 게 아니라 일체 살아가면서 그저 되나 못되나, 먹을 건지 안 먹을 건지 모르고 그냥 먹는 사람은 걸리게 마련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걸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무거나 먹이지 않는다. 그래 밥을 굶긴다고 했습니다만 말입니다.

세 번째는 채찍질을 한다. 예를 들어서 마음의 길을 잘못 들면 사기도 치고 도둑질도 하고 또 남을 아프게 하고, 옛날에는 소가 남의 밭에 들어가서 여간 남에게 해를 주지 않는다 해서 다스리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소로 비유를 하기가 너무 멀어요. 그러니까 세상은 빠르게 돌아가는데, 자기가 자기를 다스리면서 남한테 해롭지 않게 남을 아프지 않게 하는 것이 계율이고 그것이 보시입니다.

계율을 지킨다고 해서 잘못할 때만 계율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잘하는 것도 계율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해나가는데는 그렇게 자기가 자기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길을 걷는데 항상, 예를 들어서 과거를 모르면은 현실을 보고 미래를 보려면 바로 현실을 보라고 그랬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공부에 밀접하기도 하지만 안하고는 안됩니다. 이것은 내가 그냥 개별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인 것입니다.

자기마음 근본줄 잡으라

시시때때로 때에 따라서는 여러분한테 할 말이 아주 많아요. 그런데 와서 앉으면 할 말이 없어요. 왜 그렇죠? 여러분이 공부가 좀 되신 것 같아요. 우리가 둘이 아닌 도리를 여지껏 공부하면서 걸어왔죠. 둘이 아닌 도리만 알면 그 뜻도 아실 거예요. 남전스님이 고양이 죽인 일 말입니다. 서당 동당에서 고양이 한 마리를 가지고 싸움을 하니까 남전스님이 그것을 딱 들고서 "대답을 해라. 무슨 연고로 고양이 하나를 놓고 싸우는 건지? 만약에 너희가 대답을 할 것 같으면 이 고양이를 살리고 대답을 못한다면 고양이는 죽는다." 라고 하셨대요. 아마 다들 잘 아실 거예요. 그런데 아시긴 하는데 왜 조주스님이 그 소리를 나갔다가 듣고선, 왜 이렇게 건둥건둥 뛰죠? 뛰어도 다 아실 거예요. 대답을 못하니까 죽였죠! 죽였는데 조주스님이 그 소리를 듣자마자 그냥 얼른 신발을 벗어서 머리 위에 이고 쏜살같이 달아나가거든요. 무슨 까닭에 신발 한 짝을 벗어서 머리에 이고 나갔는가, 그겁니다.

공부하신 분들은 둘이 아닌 도리만 알면 그것은…, 물론 말로 해서도 아니 되지만은 뜻으로 다 알고 말없이도 대답할 수 있는 문제가 있죠. 조주스님이 왜 신 한 짝, 짚세기 한 짝을 벗어서 머리에다 이고 나갔습니까? 힌트는 말입니다. 조주스님, 남전스님도 없고 고양이를 죽인 사이가 없고 죽은 고양이도 없고…. 왜 짚세기를 벗어서 이고 나갔을까?

우리가 지금 이 공부하는 것은 자기 완성을 하기 위해서 입니다. 수없이 말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말로만 듣는다면 말로 떨어지고 말아버립니다. 말이 아닌 자기의, 모두 각자 사람에게 다 들어있습니다. 자기와 나와 둘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면 내가 말한 것도 둘이 아니게 들을 수가 있습니다.

또 이런 소리 여러분 다 아시죠? '달마대사는 왜 수염이 없는가?' 하는 도리요. 마음 공부하신 분들은 다층 헤아릴 수 있을 겁니다. 수염이 없다고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무슨 까닭일까요? 그건 입으로 말을 안하고도 대답을 할 수 있습니다. 또 그런 경우에 입으로 말을 해서 대답을 하면은 어폐가 있고 도루묵이 되죠. 우리는 이 공부를 할 때에도 그렇지만 이 말을 하는 것도 말장난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옛날에 학인이 어느 스님께 물었답니다. "어떡하면 깨우칠 수 있겠습니까?" 하구요. 그러니까 그 스님 대답이 "본래 귀신 방귀씨는 더한데 숨겨져 있느니라. 그러니 기르기만 잘 기르면 되지 않겠니?" 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기르면 잘 기릅니까?" 하니까, "귀신 방귀 털을 더 먹이지도 말고 덜 먹이지도 말고 그 가운데서 먹이면 되느니라." 그 말을 알아듣는 사람도 있고 못 알아듣는 사람도 있고, 못 알아듣는 사람은 허탕을 치고 알아듣는 사람은 알아들어서 이루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은 체가 없어서 귀신 방귀 털이라고 해도 되고 귀신 방귀라고 해도 되죠. 그건 말 붙이기에 달려있으니까요, 말을 해서 오히려 잘못될봐봐 말씀들을 안 하셔서 그렇지 대답하실 분이 그득한데 어째 대답이 없습니까? 오히려 그르칠까봐 안 하시겠죠.

조주스님이 짚세기 한 짝을 머리 위에 이고 횡하니 나갔다. 여기에 우리가 항상 공부하는 소리가 깃들어져 있습니다. 우리 공부하는 이치가 다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구멍 없는 피리를, 소를 타고 피리를 분다. 이런 소리를 다들 아시죠? 그런데 내면 세계에는, 수억겁을 거쳐 나오면서 자기를 형성시키고 자기를 진화시킨 장본인이거든요. 뀔래야 뀔 것도 없고 불래야 불 수도 없고 또는 뀔래야 뀔 수도 없는 거죠. 단 그거는 자기만이 아는 거죠. 그래서 상봉이 된다면 몸 속에 있는 의식들로부터 다 조복을 받는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의 몸 속에는 생명체들이 많아서 그걸 중생이라고 그러죠. 배를 타고 가는 말로 비유하는 것을 많이 들었죠? 선장한테 맡기지 않고 자기가 이 이름 저 이름 부르고 난리니까 배가 뒤집히더라는 얘기요.

그런 거와 같이 우리 몸뚱이 속에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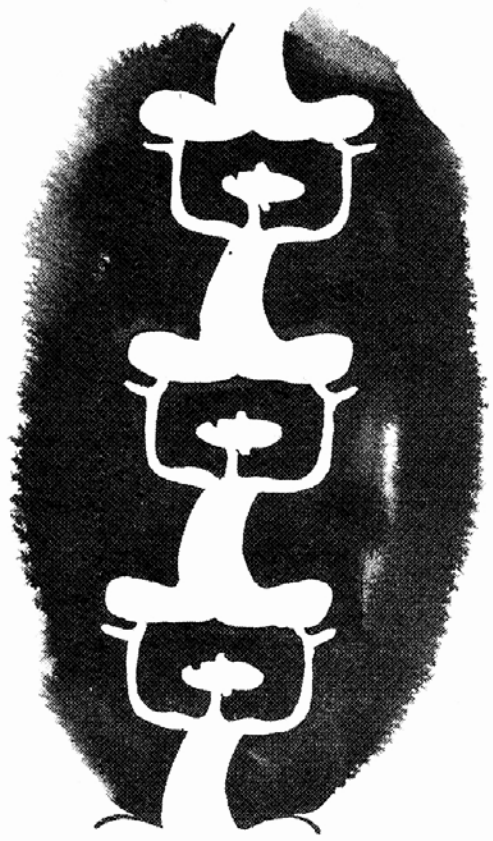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내 마음을 잣대로 삼지 말고
남의 마음 살피는 마음 갖도록

분쟁과 불화 공심으로 조복

생명체들이 많은데 우리 몸은 집과 같고 배와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 마음에 의해서 꼭 닮아주느냐는 얘기죠. 흡수가 되느냐, 공심이 되느냐 이런 문제예요. 그게 공심이 되지 않는다면 조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 지금 시쳇말로 이게 타의에서 들어온 세균이냐, 그러면 싸움이 납니다. 또 안에서도 분쟁이 일어나면 싸움이 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화합을 제일로 쳤습니다. 화합! 그래서 내 몸뚱이 안에서 화합을 이루지 못한다면 조복을 하지 못한다는 거죠.

짚신을 머리에 얹은 까닭

내 몸뚱이 속에서 의식들이 인연의 줄로 인해서, 인연으로 인해서 만난 인연들이거든요, 인연 지은 것을, 과거로부터 인연 지은 것을 반연이라고 그러죠, 인연을 지어서 왔는데 내가 말을, 본래 근본은 말이 없죠, 여러분이 다 그렇습니다. 본래 근본은 그렇게 작당하지 않고 남에게 억울하게 안 합니다. 그런데 생명의 의식들이 어떠한 인연을 지어서 왔던지 간에 자기의 인연대로 자꾸 말을 하게 하고 속에서 분쟁이 일어나게 하고 싸우게 만들거든요. 몸 속에서 생명의 의식들이 그 마음을 통해서 그렇게 못살게 한단 말입니다. 물론 좋게도 이끌어 말을 하게 하지만 나쁘게도 많이 이끌죠. 반 이상이요. 그러니까 그것을 둘로 보지 않았을 때에 조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여러분한테 이끌어주는 것은 그런 소리, 뭐 '달마대사의 수염이 왜 '없느냐?', '돌장승이 왜 눈물을 흘리느냐?' 하는 거를 통 얘기 없이 그냥 무조건, 그대로 자기 불성인 주인공을 믿고 모든 걸 거기다 놓아라 이랬습니다. 그 놓으라고 한 원인은 직결 들어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화두를 잡는다 하지만 여러분이 이 세상에 나온 자체가 바로 화두입니다. 다른 게 없어요. 내가 나온 게 화두인데 또 남한테 화두를 받는 격이죠.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 나온 게 화두이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에 나왔으니까 상대가 있고 세상이 벌어졌고 모두가 있는 거지 내가 없는데 뭐가 있겠는가 하는 소리를 항상 하고 있죠. 그런데 그것이 내 마음을 다스리는데는, 아까 다스린다는 소리는 그렇게 하다보면, 다 놓고 가다보면은 그냥 저절로, 어느 땐가는 TV를 보면서도 일은 일대로 합니다. 일을 하면서도 공부를 해요. 함이 없이 일을 해요.

지금 과학이 발전이 되고 그래서 편리하게 다 쓰죠. 그러니까 아쉬운 게 없죠. 그런데 난리가 났을 때는 전기도 없어지고 다 없어진다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그때는 들고 다닐 수도 없어요. 들고 다녀봤자구요. 또 아닌 밤중에 자기나 식구들이 어떻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어디를 찾아다니면서 누구한테 구원해달라고 하겠습니까? 시급한 문제죠.

일체만법 갖춰 있으니
살면서 닥쳐오는 문제
되고 안되고를 떠나
시각 등 6개 감각 느끼며
스스로 해결토록 하세요

나 하나의 마음이, 즉 말하자면 '만법이 하나로 돌아가는데 그 하나는 어디로 돌아가느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로 돌아가는데 그 하나는 어디로 돌아가느냐?' 둘로 보지 않는 분들은 그것을 퍼뜩 알아낼 수 있죠. 자연스럽게, 내가 있으니깐 일체 만법이 다 갖추어졌다는 겁니다. 내가 없으면 무효예요.

그래서 내 몸 속에 들은 중생들을, 즉 말하자면 조복을 받게 되면 보살로 역할을 합니다. 전부 보살로 역할을 하고 또 그 보살의 수가 모자란다 하면 똑같은 보살을 수없이 만들 수도 있는 것이 마음입니다. 마음! 그 마음이 그렇게 커서 허공에 꽉 차고도 남음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마음이라는 건 한계가 없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나가면서 닥쳐오는 대로 해결을 하지 어떻게 요거는 닥쳐올 테니까 요렇게 하고, 조거는 안 닥쳐올 테니까 기쁘다고 합니까? 시시때때로 닥쳐오는 것을 우리가 해결하고 나가 야죠. 그래서 부처님 법이기 이전에 우리들의 법은 닥쳐오는 대로 해결사가 돼야 됩니다.

잘만 되야 잘 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자기가 길을 걷다가 막다른 골목에 들어갔다. 그런데 부처님이 계시다면 왜 막다른 골목으로 들어가서 나가지를 못하게 만들어 놓을까?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그 사람이 막다른 골목에 들어가지 않았으면 사람이 될 수 없거든요. 그러니 몇 천 만원을 들여서 공부한 것보다도 더 많은 지혜를 얻을 수가 있단 말입니다. 안 되고 되는 거를 공부시키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해나가다가 즉 말하자면 자기가 구렁텅이에 빠질 때 잠깐 들어주는 겁니다. 이래야 공부를 하는 게 부딪침과 감각, 촉각, 시각, 미각 이런 여섯 가지를 다 자기가 동시에 느끼면서 해결을 하죠. 몸 속에 있는 그 모습들을 본다면 조그맣다고 아무렇지 않게 생각들 하시겠지만 그게 만약에 크다고 보십시오. 하나를 꺼내놓았는데 크다고 보세요. 얼마나 징그럽고 무섭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거를 다 거쳐 나왔단 말입니다. 그게 거친 인연들이에요. 우리가 그 모습을 가지고 한 때는 살았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다보면은 자꾸자꾸 지혜가 생기고 참회를 하게 되고 또 건너뛰게 되고 그러죠. 그런데 저 아래 축생들은 먹고살기 급해서 그 먹고사는 것만 알지 한번쯤 생각해 볼 여유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람은 고등동물이기 때문에 부처 될 가능성이 99%다, 이런 말을 하죠. 그런데 똑같이 부처인데 왜 그렇게 사단이 많으냐? 똑같은 부처라 하더라도 뿌리는 같으나 모습이 다르고 하는 차원이 다르고 살아 나온 기술이 다르고 모든 게 자기의 습대로 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과거로부터 자기가 어떻게 살아왔느냐에 따라서 현실에 가져오는 거죠. 모습도 삶도 권세도 다 가지고 나오거든요. 가지고 나와서 살고 있는데 그것만 가지고 내가 벗어날 수가 없어요. 벗어난다는 말이 없는 그대로 내 몸에서 모든 생명을 둘 아니게 조복을 받고 내가 마음을 내면 어떤 용도든 응신으로 화해서 모든 걸 이익하게 해줄 수 있나, 이것을 생각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서 완성을 하면 벌써 속에 모든 생명들이 오히려 들어 있는 것이 자기가 완성을 하면 모든 게 오히려 부하가 되는 거나 마찬가지죠.

여래의 마음은 공심 · 공체

여래의 마음은 공심이다, 여래의 몸은 공체다. 공체이기 때문에 크죠, 여러분이 볼 때는 사람 하나지만 공체이기 때문에 크단 말입니다. 그리고 공용을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안에서도 공용이요 바깥에서도 공용입니다. 우리가 물을 한 그릇 먹었다고 해서 내가 먹은 겁니까, 내가 먹은 게 아니라 속에서 목마르다고 달라고 해서 준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만 먹는 게 아니라 전부 다 같이 나누어 먹은 거죠. 그래서 이 공부하는 사람들은 의식들이 먹는 다는 걸 알고 동시에 그냥 한마음이 돼주죠. 하다 못해 지나가다 보면 소나무도 말을 하고 둘도 말을 하는데 속에 의식들이 얼마나 빠릅니까, 모든 걸 운명이고 팔자니까 면할 수가 없다고 하는데 이 공부는 팔자 운명도 없고 고(苦)도 없다고 합니다. 고라는 건 집착만 없으면 없어요, 집착! 집착을 할래야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물을 줬으니까 저 물대신 뭐가 오겠지' 이런 집착, 또 '내가 뭘 해줬으니깐 좋게 되겠지' 이런 집착, '부처님한테 뭐를 놓았으니깐 대가가 오겠지' 하는 집착, 이런 집착이 모두 자기의 습을 멸하게 못하는 겁니다. 어차피 물을 한 그릇 떠다가 부처님전에 올렸으면, 예를 들어서 얘깁니다. 부처님전에 몇 억을 갖다 놓았다 하더라도 한 사이 없이 했다면 그냥 그대로죠, 그러니 돈보다도 수 없는 허공을 다 준대도 가볍게 받을 수 있는 문제가 생기는데도 불구하고 준 거만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살아나가면서 어떤 일이 생겨도 집착을 하지 않고 살수는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몇 알갱이나 산다고 집착을 합니까? 그리고 미워하고, 너로 인해서 망했다고 하고, 간혹 너로 인해서 흥했다, 이럴 수도 있겠죠, 그것도 집착입니다. 모두가 집착이에요. 그래서 고 · 집 · 멸 · 도 아닙니까, 고라는 거는 이름이에요, 고라는 것은 집착이 없다면 멸한다는 뜻이에요, 멸하면 도예요, 간편하죠, 아주, 우리가 여기 들어올 때 걸음 걸은 발자국을 안 짊어지고 왔다 이거죠, 한 발짝 떼어놓으면 한 발짝 없어졌는데 왜 없어진 발자국에 집착을 하느냐, 없어진 발자국에 집착하기도 하지만 일상 생활에서도 이게 잘못됐다 이건 정말 날 무시하고 이렇게 이렇게 됐다 이런 생각이 들면 그게 영 없어지지 않죠, 없어지지 않는 그것이 집착이에요.

여여하게 살면 안되나요. 모든 것이 발자국 떼어놓은 거와 같구나, 그런 거지 뭐, 살다보면 그런거지 하고 이해해주는 그런 마음, 내 마음에다 잣대를

☞ 20면으로 계속

가끔은 언덕을 넘듯 고달픈 현실에 힘겨워하는 사람들
순간순간이 고통으로 느껴지는 현대인들에게 대행 스님이 띄우는 희망의 메시지
삶은 고(苦)가 아니다
대행 스님과 신행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현대불교신문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팩스:031-470-3116)앞이나 인터넷 부다피아(http://www.hanmaum.org)로 연락 바랍니다.


A5신 288쪽
값 6,000원
여시아문

자기를 자기가 믿어야 공부되는 도리

☞ 19면에서 계속

들이대지 말고 남의 마음을 살펴주는 그런 마음이라야만 되죠. 나쁘다 좋다를 떠나서 말입니다.

나는 언제부터인가 생각을 하니까 세상에 미생물에서부터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불쌍하지 않은 게 없어요. 어디를 들여다봐도 다 불쌍해요. 측은하고 불쌍하고 말로 할 수가 없어요. 밥을 먹고 돈을 가지고 산다 하는 집을 들여다봐도 불쌍해요. 그 속에는 가난한 사람의 아픔보다도 더 아픈 게 들어 있더라구요. 그러니 어느 사람 쳐놓고 불쌍하지 않은 사람이 없죠. 그러기 때문에 불쌍하게 살지 말라 이거예요. 한철이라는 얘기죠. 발자국을 잘 떼어놓는다 해도 한철, 못 떼어놓는다 해도 한철이에요. 그래서 남하고 말다툼 없이 속이 아프다 하더라도 '사람이 살다 보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데 그 사람은 무슨 연고가 있어서 그러겠지.' 하고 지혜롭게 마음을 써 주는 거, 지혜롭게 내주는 마음. 그렇게 마음을 갖는다면 풀잎 하나도 나를 옹호하지 않는 풀잎이 없을 거예요. 아마.

자기 이끌어가는 건 근본

모두가 친구고 모두가 벗이죠. 다른 생명들을 내 생명같이 생각하고 내 아픔같이 생각하고 내 모습같이 생각하고 내 부모같이 생각하고 내 자식같이 생각하고 내 형제같이 생각한다면 말입니다. 수 억겁을 거치면서 그렇게 굴러왔으니까요. 그렇게 왔으니까요. 줄창 그런 말을 하지만 따지고 본다면 우리가 한철 이 몸 속에 들은 모습들처럼 살 때도 부모가 있고 자식이 있었어요. 아픈 것은 똑 같아요. 사람이 아퍼하는 거나 짐승이 아퍼하는 거나 미생물이 아파하는 거나 똑 같아요. 그래서 구르고 구르면서 진화되고 형성되는 그 자체가 바로 근본이에요. 그 근본이 바로 지금 리더하고 이끌어주고 하는데도 불과하고 그걸 모르고 자기가 한다고 하니까, 만약에 자식이 부모는 모른 체 하고 살면서 자기가 살고 자기가 제일 잘났다고 날뛴다면 부모도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냥 내버려두는 거죠, 철 날 때까지. 그와 같습니다, 이 마음 도리도. 얼마나 묘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악한 거든지 선한 거든지 이어지는 반면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우리 마음 공부하는 사람은 악하게 인연을 잇지 말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전자에 미생물에서부터 살아오면서 부모가 되고 자식이 되면서 살아왔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내 부모 아니었던 분이 하나도 없고 내 자식 아니었던 것이 하나도 없더라. 그러고 내가 나와보니까 모두가 이 세상 일체 만물만생이 내 스승 아닌 게 하나도 없더라. 만물이 다 스승이죠.

그런데 어떻게 내가 너 때문에 망했다. 또 너가 나를 이렇게 무시하니까 맛 좀 보이겠다. 꼭 갚겠다하는 이런 마음을 갖겠습니까? 모두가 내 부모 내 자식 내 형제인데 어떻게 그렇게 하겠습니까.

이런 것도 있죠. 지옥·아귀·축생·아수라·인간·천 이렇게 치는데 지옥은 지금 현재에 보십시오. 갇혀있는 사람들 보세요. 감옥소에 갇혀 있죠. 그리고 아귀는 땅속에 사는데 먹기는 먹어야 할 텐데 입이 작으니 하루 종일 먹어도 양이 차질 않는 거예요. 우리가 말로만 아귀·축생 하는 게 아니죠.

영령들도 그렇게 갇혀서 지옥고를 못 면하죠. 국내 밥내도 못 맡는다는 말이

육안으로보면 보통인간
심안·법안은 공부한 분
불안으로 보면 부처님
혜안은 다보탑 오른 분

있죠. 축생들도 보세요. 인간이 개같이 살았으면 개로 떨어진다고 하는데 사람하고 축생하고 같이 살면서 윤회하면서 돌아가죠.

그리고 아수라도 사기 강도 깡패들, 모듬이로 단체를 보세요. 그게 아수라장이죠. 우리는 보통 인간으로 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 하늘 사람도 살고 있죠. 마음공부를 하셔서 하늘 사람으로서 사는 분들을 종종 봅니다. 그런데 그렇게 완벽하게 집착을 다 버리고, 몸에 대한 집착도 안하고 모든 거를 함이 없이 하니까 벗어났어요. 그러나 과거로부터 몸 속에 있는 의식들이 자꾸 자기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고 작동을 하게 만드는 습, 그 습을 녹이지 못하면 다시 미(迷)해서 떨어진다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요만한 것도 다 거기에다가 맡기고 살아라. 그래야 다 녹아버린다. 하나에다 모든 것을 맡기면. 그래서 육안으로 보는 사람은 그냥 보통 인간이고, 심안으로 보는 사람은 조금 공부한 분이고, 법안으로 보는 분은 조금 더한 분이고, 또 불안으로 보는 분은 부처님 단계까지 가는 분이고 혜안으로 본 분은 다보탑에 같이 하신 분이다.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러나 남이 너는 공부를 했다 안 했다 하더라도 그걸 부질없이 듣고 탓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거는 무슨 크고 작고, 때로는 아주 작게 들어가야 할 일이 있고 때로는 크게 들어가야 할 일이 있고 때로는 조금 적게 들어가야 할 일이 있고 이렇게 두서가 없는 것이 진리이고 이 공부인데 어떻게 정해놓은 게 있습니까? 부처님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부처라고 부른 겁니다. 부처님은 없기 때문에 부처라고 한 거지 부처님이라는 이름이 붙었다면 그건 부처가 아니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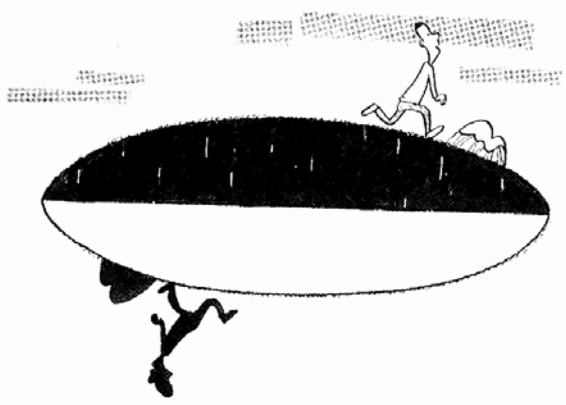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세세생생 얻는 마음공부

신도님들을 보면 어느 신도는 간곡하게 얘길 하고 어느 신도는 그냥 한편짝 구석에서 말없이 있다 가는 분도 있고 그래요. 천차만별이죠. 하고 가는 문제들을 말입니다. 오히려 말하는 분보다 안하는 분이 말을 다 하고 가요. 그 뜻을 아시겠습니까? 그 말을 듣지 않았는데도 말입니다. 다 듣고 행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보이는 것만 제일인 줄 알고 안 보이는 건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보이는 데서는 생각을 안 해요. 안 보이는 데서 한 건 누가 했는지 모르죠. 내 마음을 넉넉히, 보이지 않는 데건 혼자라도 넉넉히 써야 바깥으로 넉넉해진단 말입니다. 남이 보지 않는다고 해서 넉넉히 쓰지 않고 그냥 쥐어짜고 있다가 남이 보는 데서만 한다면 그거는 이중이죠.

그러니까 하여튼 안에서도, 나라는 존재를 버리세요. 이래도 한철 저래도 한철,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을 거, 그냥 버리고 사세요. 버린다면 강도가 든다 하더라도 '그거 뭐…,' 이렇게 될 거예요.

강도도 사람이니까요. 만약에 그러한 일이 있다면 내가 마음으로 그 강도와 둘이 아니게 될 때 비로소 강도도 참회를 하기 이전에 벌써 몸부터 조아리게 되는 겁니다, 달려들기 이전에. 그러면 선처를 베풉니다. '나 이거밖에 없는데 가지고 가. 왜 이렇게 밤중에 고생하고 왔어. 낮에 좀 와서 의논하지.' 난 이런 예가 여러 번 있었어요. 그렇게 하면서 내 마음 아닌 마음이 그쪽 마음으로 동결이 되면 그런 짓 못해요. 왜냐하면 벌써 자기마음에서 거부하고 나가거든요.

영계성으로 오거나 암 같은 종류도 어디에서 생기는가하고 검토를 했거든요. 검토를 하니까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면 인과성에서 많이 나와요. 그래 가지고 유전이 되는 거죠. 안에서 일어나는 것도 과거 인연으로 인해서 악한 인연으로 인해서 그것이 자기 몸에 주둔해 있다면 몸에서 발작을 일으키죠. 모두 잡아먹게 되니까 굳어지고 암이 되는 거죠. 그런 거와 같이 몸속에 붙어 있더라구요. 아주 거죽으로 나타나지도 않게. 그거를 떼어내니까 병원의 의사도 살릴 수가 있는 거죠. 그걸 떼어내지 않는다면 의사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공부하는 분들이라면, 예를 들어서 내가 부족하니까 공부를 못하지 이런 생각도 마세요. 이거는 공부를 오랫동안 했다 안했다를 떠나서 마음이 그렇게 충족이 돼야 되는 거죠. 자기를 자기가 믿어야 되는 거죠. 믿지 않으면 어떡할 겁니까? 남이 자기 대신 아파줍니까? 죽어줍니까? 또는 먹어줍니까? 잠을 자줍니까? 똥을 눠줍니까? 다 자기가 해야되죠. 그건, 자기가 움죽거려야지 누가 대신 움죽거려주는 거 봤어요?

우리가 이렇게 그냥 앉았다 그냥 가는 걸로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세세생생을 얻을 생각을 하세요. 우리가 지금 한 찰나 이렇게 공부하는 것이 세세생생을 얻는 반면에 우주를 다 주고 바꾸래도 못 바꾸는 일이에요. 한 사람이 공부를 해서, 아주 극한 사람이 지나가는데 여러분 중에 공부한 사람을 쓱 보고만 지나갔어도 그거는 사해져요. 정말이에요. 여러분이 몰라서 그렇죠. 여러분이 스치고 지나가는 동안에도 벌써 그 사람은 괜찮아진다구요. 그러니까 무주상 보시죠. 여러분이 알지 못하면서 항상 무주상을 보시를 하시고 다닌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누구나 다 그럴 수 있다는 것을, 더하고 덜함이 없어요. 그리고 축생들은 인간으로 등장을 해서 한번 인간으로 굴러야 이 공부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닭도 얼마나 영악한지 신발을 알아요. 이 사람의 신발인지 저 사람의 신발인지, 나 별 것 다 봤어요, 하여튼. (대중 웃음) 닭을 쫓고 싸리 가지로다가 때리는 사람의 신발에는 오줌을 싸놔요. (대중 웃음) 그런데 모이도 주고 예뻐하는 사람의 신발에 올라가 앉아 있어. 추운데도 앉아 있어요, 앉아 있다가 그 주인이 나오면 자기집 만들어 놓은 곳으로 들어가지.

이거 한마디만 더하고 그만 두겠습니다. 옛날에 말입니다, 부처님이 계신데는 등을 켜 놓는데 등에 불을 켜서 해놓는데, 옛날에는 기름으로 켰거든요. 그런데 돈이 없는 사람이 조그만 접시에다 기름 조금 담고 심지 만들어서 켜놓은 등하고 큰 통에다가 기름을 많이 넣고 불을 켠 등하고 다릅니까 같습니까?

꺼지지않는 마음의 등불

신도: 같습니다.

스님: 고정되지 않다고 늘 얘기했죠. 그런데 이게 적고 큼이 없이 똑 같긴 똑같은데 똑같다면 무슨 까닭에 똑같다고 하느냐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똑같다고 그랬습니까?

신도: 예.

스님: 누가 그랬어요.

신도: 제가 그랬습니다.

스님: 분명 하나는 적고 하나는 큽니다.

신도: 큰 것도 작은 것도 없습니다.

스님: 그런데 물질로 볼 때는 적고 크고가 없죠. 그러나 속에 그걸 깨닫고, 즉 말하자면 켜놓은 것이 그냥 불이 아니죠, 등이 아니죠. 한쪽은 비바람이 쳐도 꺼지지 않는 불이고 한쪽은 비바람이 불면 금방 꺼지는 불이거든요, 같습니까?

신도: 마음이 같습니다.

스님: 그러니까 그런 걸 감안해서 대답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걸 감안을 안 한다면 반대로 나가죠, 마음의 불, 불씨는 천둥 번개가 쳐도 꺼지지 않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도 마음의 불이 켜져서 지금 환환 밝히고 계신 분이 계신데요. 아주 좋습니다. 정말.

여기도 다 미생물이 있고, 날아다니는 게 우리 눈에는 안보여도 다 있습니다. 그것들도 다 내 인연으로 인해서 있는 겁니다. 내가 있기 때문에 있는 겁니다. 내가 없다면 없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마음의 불 하나 켜 놓는 것이 자기의 앞뒤가 얼마나 깨끗해지는지 모릅니다. 과거의 조상들이나 미래의 자식들도 깨끗하게 정리해 줄 수 있는 마음의 촛불입니다. 그러니 마음으로 켜야 되겠죠. 그 마음의 등불인 자기 주인공을 잊지 마시고요. 세세생생 내려온 주인공이고 지금도 주인공이고 미래에도 주인공이니까요. 주인공 죽는 법 봤어요! 허허허. 감사합니다.

사소한 것도 다 근본에 맡기고 살면
과거로부터 쌓아온 습 녹습니다

※위 법문은 1999년 2월 7일 법형제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법공양페이지는 동참을 원하는 종단·사찰 스스로 제작의 주체가 되어 각기 재량하에 소재를 선택하고 본 편집진과 함께 지면의 틀을 짜는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법공양페이지는 약간의 실비부담만으로 종단 또는 전국 어느 사찰이라도 이용 가능하며 개인 불자의 경우는 특정 종단 또는 사찰을 지정하여 제작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제 30차 전국어린이 지도자 연수회

깨어있는 지도자 슬기로운 어린이

모시는 글

반갑습니다.
부처님 나라를 위해 힘찬 정진을 하고 계시는 지도자 여러분!
15년이라는 긴 시간동안 순수하게 어린이포교에만 앞장서온 본회가 제30차 전국어린이지도자연수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연수회는 30번째라는 큰 의미 속에서 지나온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보고 급변하는 교육환경에 대처하기 위해『깨어있는 지도자 슬기로운 어린이』라는 슬로건 아래 올바른 불자상을 정립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지도자들의 자질 향상과 신심고취를 위하여 친목 및 화합의 장을 마련하였으니 어린이포교를 향한 뜨거운 열정으로 함께 모여 새해 새날의 아침을 열어 가시기 바랍니다.

불기 2544년 11월 좋은 날

▣ 총 재 : 정관 ▣ 부총재 : 혜총 철오
▣ 회 장 : 덕진 ▣ 상임부회장 : 정여
▣ 부회장 : 운성 원혜 해관 영조 심산 성형 인성
▣ 감 사 : 지광 박창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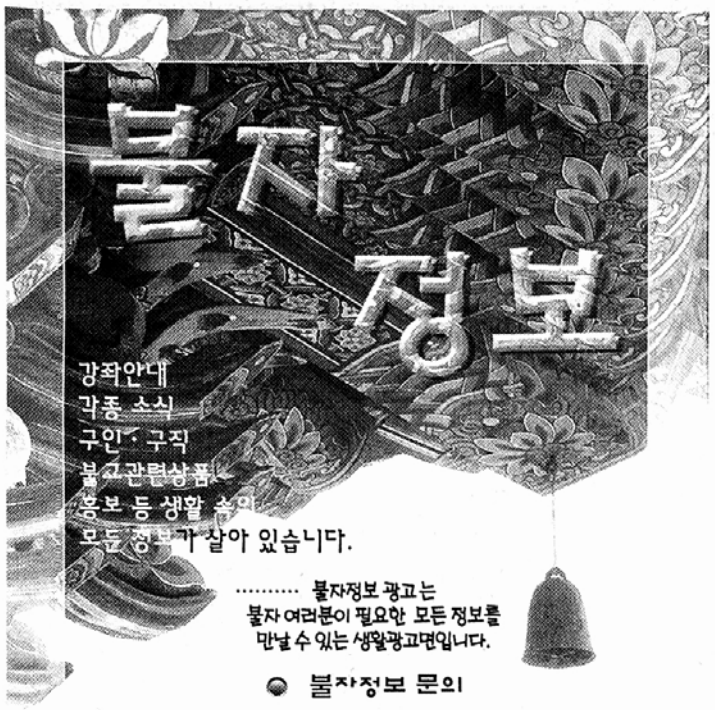
주최 : 대한불교조계종포교원
주관 : 대한불교어린이지도자연합회

연 제 : 불기2544년 12월 30일(토) 오후 5시 ~ 익년 1월 1일(월) 오전 11시(2박3일)
장 소 : 속리산 유스타운(법주사)

- 참가대상 : 어린이 지도법사 및 교사, 어린이포교에 관심 있는 모든 분
- 동 참 금 : 1인 5만 5천원 (미리접수 5만원)
  군종병/도서벽지 지도자 3만원
  (2박 6식, 연수회자료집, 2만원상당 도서, 기념품 지급)
- 신청방법 : 실명인 관계로 송금 후 전화 / 당일 접수도 가능
- 신청기간 : 11월 27일부터 12월 27일 까지
- 보내실곳 : 우체국 601310-0037877 예금주 - 대불어
- 접수담당 : 장수정
- 준 비 물 : 간편한 복장, 장갑, 세면도구, 필기구
- 접수문의 : 본회 사무국
  ☎ 051)808-4569, 4570 FAX 051)808-4571
  홈페이지 : www.sesag.or.kr
  e-mail : webmaster@sesag.or.kr

각 지역 문의처 〈차량 및 교통편 문의〉
- 서울·경기 : 02-433-1506, 7 / 유지선 사무국장(선재마을)
- 부 산 : 051-852-5414 / 부산지구 사무국
- 대구·경북 : 016-505-3143 / 김형중 사무국장
- 광 주 : 011-719-5550 / 정수보 사무국장
- 대전·충남 : 016-446-5955 / 김선형 사무국장
- 경 남 : 055-242-0108 / 천명숙 사무국장
- 제 주 : 016-691-4728 / 김봉현 사무국장

연 수 내 용	강 사
초등교육의 특성과 아동지도의 방향	허승희 (부산교육대 교육학과 교수)
우리지구 최고야!	
우리 법회 짱! 짱! 짱!	사례발표
어린이포교를 위한 발원법회	수계식 삼보일배
N세대를 위한 찬불가와 율동	풍경소리
팔상성도의 교육적 재조명	박보리성(전 부산시 장학사)
천진불들과 함께 꾸며요!	천영숙(경남대학교 유아교육학과 강사)
선생님 이게 뭐죠?	김영란(청소년 성 문화센터 관장)
어린이법회 과학 탐방교실	조오근(부산 충렬고 물리교사)
GO.27C.COM!(새해를 맞이하며)	해원스님(한국참선체조수련선원장)
법회에 활용할 수 있는 선 체조	
불교 미술의 세계	박찬수(목아 불교박물관 관장)



..... 불자정보 광고는
불자 여러분이 필요한 모든 정보를
만날 수 있는 생활광고면입니다.

불자정보 문의

홍보내용을 정하신 다음 전화나 FAX로 담당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02)732-1522(直), (02)737-8881(代) FAX : (02)737-0697
※ 현대불교 전국 지사 · 지국에서도 접수 가능합니다.

최소규격 및 가격

세로 5cm × 가로 4cm (1회 4만원)
(세로는 고정, 가로 1cm 증가시 1만원 추가)
사찰 토굴 부지안내 세로 5cm × 가로 5cm (1회 5만원)
(세로는 고정, 가로 1cm 증가시 1만원 추가)

건강기타

건강과 삶의 질을 높이는
선관단식
⊙수련원 : 경남 사천시 용현면
와룡산 **용님선원**
♣안내 : 055)834-1115~6
016)849-3858
012)1166-3858

◈청학사 수양원◈
- 수양 · 기도 · 공부 · 참선
- 1인 1실 - 침구 일체 완비
- 月 숙식비 : 30만원
- 명퇴자, 실직자 환영

055)883-2935
055)883-2933
경남 하동군 악양면 노전마을
청 학 사
※단체 불교수련대회 접수 받습니다

대방광불화엄경
大方廣佛華嚴經
◆목판본 백질 한정본 판매◆
- 화엄경 (80권) -1,400,000원
- 법화경 (7권) - 170,000원
- 사 교 (7권) - 220,000원

목판본 한지한장본으로 제본, 법당 부처님 복장장엄용, 강본으로 사용
055) 932-7252
011) 545-7252
김 창 본 처 사

黃印七子餠茶, 七子鐵餠茶
六安散茶, 보이散茶,
육보차, 벽돌전차, 소타차,
고산오룡, 철관음
도매가 판매
"山中禪房 · 전통찻집 특별상담"
02)911-6798
017)406-6682
茶 道 里

깨침 건강 자유
마음을 마음대로
삶을 온전히 누리기
www.nowhere truth.com
(읽기만 해도 일체의 미혹이 해소됩니다)
016-206-1001

♣보 리 수♣
취급 품목 : 각종 수입향 염주 불교악세사리 광 약 (일체)
남대문 자유 수입상가 구80호
전 화 : 778-5345
팩 스 : 777-1917
핸드폰 : 017-231-5345



『선문염송』은 세계 최대의 공안집으로서 1,454칙의 방대한 양의 본 공안 한 칙 한 칙마다 여러 선사님들의 법문과 송이 딸려 있다.
『바로보인 선문염송』을 역저한 대원 문제현 선사는 세계최초로 선문염송 전 공안에 대해 칫째, 글자 해석에 의한 번역이 아닌 일체종지를 통달한 지혜로 의로를 따라 번역하였다.
둘째, 법문의 이디에 선사님들의 참 의중인 공안이 숨어있는가를 밝히 공안참구의 길잡이 역할을 하였다.
셋째, 매 칙마다 도움말로 취모검을 휘둘러 보았다. http://www.zenparadise.com
선30권중 1권 ☎ (02-567-2191) 시중판 민족사

사주 추명학특강 30년
· 실제 체험 경력으로 속성지도
· 기간 : 3개월 · 수강료 : 월 10만원
· 강사 : 지원 심장법사
· 스님 불자 출가 상담 환영
· 위치 : 부산진구 부전동
서면 로타리 조흥은행 후문
일광정사
051) 818-7863

기적을 일으키는 놀라운 마늘의 약효
마 늘 커 피
100% 토종 구운마늘
◆심한 피로 · 정력강화
◆간기능 획기적 개선
◆혈압, 혈당치 낮추고 장 · 변비개선
◆손발냉증 · 피부 고와져
◆감기에 강한 체질로
▶가격: 분말(230g) ₩39,000
환 (250g) ₩45,000
동양물산(주) 02)2236-0748

소원 성취 비법
⊙ 2001년도 한가지 간절한 소망을 이루고자 하는 분
(불가 사의한 신통력을 가진 엄청난 인생비법)
⊙ 사업번창, 삼재예방, 관재구설, 부부화합, 결혼성취, 교통안전, 학업성취, 각종시험 합격기원 건강 쾌차
상담전화(053) 982-4976 지장선원

수인작법 사주팔자
▶ 옛고승과 도인에게만 전수되 내려온 비술
▶ 손하나만으로도 몇년전, 몇월, 몇일의 은세 점검 몇년후, 몇십년후 몇월, 몇일 몇시의 일도 예측할 수 있는 작법
▶ 명리를 배웠어도 시원치 않는 분
▶ 운명학을 배웠어도 시원치 않는 분
▶ 내림굿을 받았어도 점괘가 시원치 않는 분
인연있는 분에게 전수합니다.
02)918-5554 / 017)317-1597

공양주 보살님 구합니다.
-50~60세-
▷지리산 천년고찰◁
055)883-8801

토굴운영하여 기도 정진 하실 스님, 휴양, 고시공부 하실 분 모십니다.
▷ 충남 아산 ◁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11)766-8845

男女철학원생모집
과 목 풍수, 사주, 작명, 궁합, 관상, 부적
과 정 초급반, 고급반, 개원반, 자격증반
강 사 원장직강 (사주비전外 100여권 저술)
사주 · 감정 의뢰하실분 (3만원입금후 전화요)
계좌번호 기업은행 012-027395-01-017 달마사
군 달마사 포교원 달마스님
(051)328-5551 (051)312-4804
(02)999-5551 · 999-4804

급 신속한 소식 기다립니다.
· 공양주 2명
· 부전 스님 1명
011)661-9119

배우자 구함
신체건강하고 마음이 넉넉한 여성으로 35세~43세미만인 여성을 원하며 물질공양과 남은생애를 함께 할 동반자 원함
▷현 42세 건강한 남성으로 포교원 운영 중
016)710-8535

행 자 모 집 영남불교대학 · 관음사(조계종)
www.TVbuddha.co.kr
▫ 우리나라 최대의 7층 대법당, 최첨단 시설
▫ 21C 세계불교를 이끌 의식있는 수행자 양성
▫ 노동보다는 수행과 교육위주 - 모든 지원
▫ 불교발전의 획기적 모델 / 한 학기 3천명의 신입신도
▫ 행자 전용교육장 / 남 · 여 행자원(위탁교육가능)
대 구 (053) 474-8228 정규교리반, 통신반, 인터넷반 - 학생모집중

기도, 수양, 공부하기 좋은 도량입니다.
경남 합천군 대병면 장단리 67번지
청 강 사
055)932-5706

안 내
사찰을 같이 운영하실 분을 찾습니다.
(신도 중 보살님)
· 법패를 가르키는 강사입니다. 연락바랍니다.
031)865-4893
011)661-9119

배우자 구함
◎ 女 51세 (자녀 없음)
◎ 대구, 경북 거주자 원함
◎ 전직 공무원, 미모 겸비
– 불자의 만남
불연 결혼 연구원 –
053)982-6778
011)9353-6006

행자 모집
만 19세이상
38세미만
학력 : 고졸이상
042)583-5214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충북 증평-
011)486-4408
043)838-3562

公 告
· 사찰명 : 韓國佛教淨土宗 성불사 · 성명 : 박만윤 법명 : 도경
上記人은 本 宗團 內 所屬된 僧侶로 그간 종헌 종지를 어지럽히는 行爲로써 本 宗團의 기동을 어지럽혔음은 물론 앞으로도 많은 害惡이 예상되는바 本 宗 宗法 第 11章 第99條 나 項 및 나 項에 依據 除名을 公告 함.
2000년 12월 11일
韓國佛教淨土宗 總務院長 金智山

구갑염주, 합장주 구갑은 장수와 행운을 뜻합니다.
· 108 염주 150,000원 고급가공 케이스포함
· 매듭합장주 30,000(10mm)
서울판매처 길상원 (02)722-4435 (조계사 앞)
지방 - 전화를 주시면 물건을 보내드리고 대금은 후불로 받습니다. (구갑사)
02)444-2822
017)208-2822, 018)293-2823

토굴 안내
● 위치 : 전남 광양시 진월면 마룡리 117-8번지 구덕마을 이장집 뒷집
● 대지 : 140평 방3개 현대식 주방 보일러 샤시 축사 천연 암반수 물
● 가액 : 2,700만원
019)545-2962

사찰 안내
● 위치 : 수유 4동
● 부지 : 대지 60평 건물 20평
● 가액 : 전세 4천만원 (즉시 입주가능)
※ 강원도 사찰에서 여생을 기도하면서 보낼 보살님은 연락 바랍니다.
011)335-0151

포교당 안내
● 위치 : 대전광역시 보문산 옆
● 가액 : 6천 - 답사 후 절충 (보증금 3천 2백, 월 30포함)
● 시설완비
1층 - 공양간 20평 방 1칸
2층 - 법당, 산신각, 방 2칸, 37평
011)430-3344

사찰 안내
● 위치 : 서울 근교
● 부지 : 118평 ● 법당 : 18평
● 요사채 : 25평 ● 가액 : 6천 5백
● 청평 800평 1억 급매
※ 전국 사찰 포교당 다량 보유 양도 운영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02)723-4082
광진불사

사찰 안내
● 위치 : 전남 완도군
● 가액 : 2천만원
● 인법당 : 17평, 방 3칸
016)553-1961

사찰 안내
● 평수 : 3층 50평, 4층 5평
● 위치 : 안양 박달 1동 內 주택은행 4거리
● 법당 : 삼존불, 약사여래불
● 특징 : 시설일체 제공
● 가액 : 4천만원 (보증금 포함)
031)467-1562

사 찰 안 내
● 위 치 : 부산광역시 근교
● 부 지 : 1,000평
● 법 당 : 30평 (목조, 단청완료)
● 요 사 : 40평 (2동)
※ 주변은 소나무산으로 둘러 쌓인 청정 기도포교 도량임
※ 부신역 기점 김해쪽 1시간내 거리임
● 양도가 : 5억
● 위 치 : 경남 진주시 근교
● 대 지 : 600평
● 법 당 : 30평
● 요 사 : 2동 80평
※ 70년 전통의 역시 깊은 포교 도량임 신도수 많음
● 양도가 : 3억 3천 (분할 가능)
한국최고의 사찰컨설팅 **한 국 불 사** 02)561-7791/018)273-9390
전국소재 사찰, 암자 양도, 양수할 스님께서는 전화 상담 환영합니다.

사 찰 안 내
● 우 치 : 경북 군위
● 법당 : 25평
● 요사 : 30평
● 부지 : 900평
● 가액 : 2억
● 위치 : 경기 용인
● 법당 : 24평
● 요사 : 67평
● 부지 : 670평
● 가액 : 4억 5천
● 위치 : 경남 하동
● 법당 : 19평
● 요사 : 70평
● 부지 : 39,000평
● 가액 : 4억
※ 전국사찰,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분 연락바랍니다.
청송기획 02) 998-1994 / 011) 713-5634

사찰 양도 · 인도 할 분
○ 군위 우보 IC에서 10분거리
○ 대지 169평 토담집 3채
○ 양도가 3,500만원
※ 1년 사시면 반드시 福터
- 마당 넓고 뒷山 명당지
마을 맨 끝집 휴양지, 기도터



○ 군위, 고로 인각사 부근
○ 대지 151평 밭 724평은 집앞 100M떨어져 있음
○ 암반, 계곡 물 좋고 공기 좋고 산세 좋은 곳
○ 황토집 2채 - 불때면 3일간 따뜻
○ 양도가 3,900만원
사찰, 창건 지도 불사 편의 제공 **사찰정보** : 053) 982-6778 핸) 011-813-3679

사찰부지(급)안내
■ 충남 금산 진산 (대전에서 20분거리)
■ 준농림 9000평 (대지, 전,답,임야)
■ 가액 3억 5천
■ 상업적, 투기목적 매수 사양
011)826-6888

사찰 안내
● 위치 : 부산 동대신동
● 대지 : 200평, 절 신축 법당, 산신당, 요사채 고급
● 특징 : 교통편리 (버스 정류소 80m) 고목, 대나무 울창
● 가액 : 5억 (전세 1억 5천)
016)651-1800
011)870-1463

사찰 안내
● 위치 : 전남 보성
● 부지 : 4500평 법당, 목조건물 29평, 요사 50평
◆문화재 있음
● 가격 : 4억 5천만원
011)678-7691

사찰 안내
● 위치 : 전북 군산시 월명동산 19-17
● 대지 : 300평
● 건물 : 법당, 기와, 요사채, 미륵 3존불 58년된 사찰
● 특징 : 월명공원 부지 내에 위치
● 가액 : 5천만원 (가격 절충)
전북 군산 미륵사
011)9646-3220

사찰 안내
● 위치 : 경북 영천시
● 대지 : 300평 ● 법당 : 15평(동향)
● 요사채 : 2채(남향) 화장실 3,
● 특징 : 120채 중 끝집 (인터체인지에서 1.5km 지점)
교통 및 조경 완벽 (시내에서 20분여분거리)
● 가액 : 9천만원
054)335-0092

사찰(급) 안내
● 위치 : 대구시내 (2층 독채48평) 기름보일러
● 구조 : 법당1, 방2, 부엌, 현관, 화장실, 사워장
[보증금(시설비포함) - 총 2천6백 월 45만원]
※ 3층독채 48평 - 기름보일러, 큰방2, 현관, 넓은마당, 3층 1년선세 150만원
「3층은 벌도 희망에 한함」
053)255-6628

사찰(터) · 납골당안내
● 장소 : 원주시 문막면 비두리
● 평수 : 63,000평
● 가액 : 평당 4천원
좌청룡 우백호 큰 사찰터나 납골당 유력지. 산세좋고 물이 많이 흐르는 천연의 대지입니다.
011)286-2680

사찰 안내
● 위치 : 인천시내 중심지 산사
● 평수 · 대지 : 250평 전 150평
● 건물 · 법당 : 24평 요사 30평
차량진입, 다량주차
● 가액 : 2억 8천 (답사후결정)
032)424-3324

안 내
· 사찰을 같이 운영하실 분을 찾습니다.
· 43세된 비구스님
· 산세좋은 계곡의 불사 중 3000만원 모자라 중단중 현재 1억 2천원 들어갔음.
· 투자하신분들에게는 명의이전해드립니다.
041)545-7653

사찰 안내
● 위치 : 서울시 강동구 명일역 부근
● 구조 : 3층건물 3층 30평 (법당, 방2개, 주방)
● 가액 : 보증금 1,500 월 50만원
● 시설비 : 절충
02)481-4483

포교당 안내
● 위치 : 서울 동작구 사당동 321-47 상원사 2층
● 구조 : 법당(40평), 방2, 주방, 세면장
● 보증금 : 1500 월 70만원
● 시설비 : 2,000만원
- 삼존불 · 신중단 · 삼선당 -
02)521-7513
018)385-1234

포교당 안내
● 위치 : 강남 서초구 전철역에서 5분거리
● 건평 : 48평 ● 법당 : 32평
주지실 1, 총무방 1
● 특징 : 법회시설 일체 완비
주불 석가모니 부처님, 신중탱화, 지장탱화
011)9035-1511

사찰 및 포교원 안내
● 위치 : 경기도 군포시
● 대지 : 120평 (25×10×8m) 코너
● 건평 : 120평
● 불기구 5천만 무상 제공 (포교원 최적)
● 용자 포함 매 5억 2천
사정상 급매
031)454-1133
011)386-6467

포교원 안내
● 위치 : 광명시 새마을 시장 내에 3층
● 평수 : 35평 10년 됐음
● 가액 : 5천만원 전세
02)2618-0767
011)753-0768

포교원 안내
● 위치 : 수원시 연무동 274-14
● 법당 (25평) 요사 총 45평
● 가액 : 3천만원 월 30만원
(시설비 포함)
011)9760-3520

절터 안내
● 위치 : 경남함양 용추 계곡 옛날집 1채, 화장실, 전기, 전화 약 5,100평 도로에서 7분거리
● 특징 : 물좋고 폭포 산세좋고 함양 남덕유산, 거창 가막산 산천 지리산이 한눈에 보이는 전망좋은 앞과 뒤가 한일자형 교통편리 함. 거창에서 안의 용추사까지 하루 13번 운행.
055)962-0082/963-3399

포교원 안내
● 위치 : 부산 진구 전포동 송상현 동상옆 진경경찰서 입구
● 건평 130평 법당 70평 방 5개
● 가액 : 전세 1000만원 월 60만원
● 특징 : 시설 일체 완비 양도
시설비 답사 후 절충, 즉시 법회가능
055)326-0671
011)843-5672

산사 무공해 화장실 '눈길'

최근 국립공원 계곡수의 수질이 급속히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분뇨 수거와 오수정화 시설이 필요없는 청정 화장실이 산사에 시범적으로 세워져 눈길을 끌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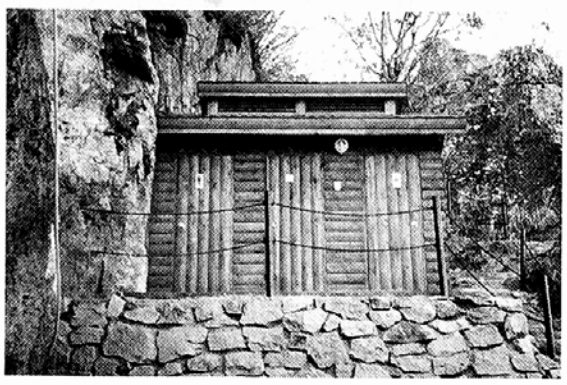
구미 금오산도립공원은 지난 95년 금오산 중턱 해운사에 '무방류 메탄 발효 화장실' 2개소를 시범적으로 설치한 결과 오염원을 원천 차단하고 경제성이 뛰어나다는 판단아래 9일 금오산 정상 약사암에도 같은 화장실을 설치했다.

금오산도립공원은 연간 10만명이 넘게 사용하는 재래식 해우소의 분뇨 수거가 어렵고, 지대가 높아 동절기의 동파 및 수질오염의 우려로 수세식 변기 설치가 불가능함에 따라 약사암에도 7,000여만원의 예산을 들여 3인용(100인/1일) 메탄 발효 화장실을 설치했다.

경북 경산시청도 지난달 성암산공원내 수정사 인근에 주변 경관과 어울리면서도 재래식변기의 사용기피 현상을 보완한 절수형 변기(50ℓ/1회, 일반형은 13ℓ/1회)를 갖춘 테마형화장실을 설치했다.

공원지역내의 이같은 메탄 발효 화장실 설치는 올해 2/4분기 국립공원 계곡수의 수질오염도를 측정한 결과 계룡산과 속리산, 설악산, 월악산, 오대산 등 상당수 국립공원의 계곡수 수질이 전년 동기에 비해 2~10배나 나빠진 사실과 무관하지 않다.

계곡 수질오염은 국립공원 공중화장실(전체 451개중 오수처리시설 미설치 143개)과 사찰화장실(303개중 239개 오수처리시설 미설치), 숙박 및 음식점 화장실(2천56개중 1천186개 오수처리시설 미설치) 가운데 상당수가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채 오염물질을 흘려보내기 때문이다.



◇9일 구미 금오산 정상 약사암에 설치된 메탄 발효 화장실.

구미 해운사 · 경산 수정사 등 설치

무방류 · 무수거…냄새 없고 비용 저렴

두라문화연구소 이지범 실장은 이와 관련 "산사에 재래식 해우소가 점차 없어지면서 수세식 화장실이 늘어나 계곡 오염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면서 "정화시설과 물이 불필요하고 비용이 적게 드는 환경친화적인 화장실에 대한 연구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화장실의 몸체를 목재와 보온벽체를 사용해 설치, 동파를 예방하고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면서 오염원을 원천봉쇄하는 환경친화적인 메탄 발효 화장실은 분뇨 수거가 어렵고 수세식 변기를 설치하기 어려운 지형이 험난한 산사에 적합하다. 산성발효에 이은 메탄발효 숙성으로 냄새가 거의 없으며 (오수)무방류, (분뇨)무수거, 무관리, 무동력 소화(消化, CH4 가스화)공법을 갖춘 것이 특징.

고산지대 산사의 경우 분뇨 수거에 년간 수천만원의 비용이 드는 현실을 감안하면 수십년간은 분뇨수거가 필요 없어, 초기투자 후 약품비나 유지관리비가 거의 들지 않아 경제적이다. 설치비용은 지형에 따라 다르며 보통 1인식의 경우 1300여만원이 소요된다. 사용공간이 넓어질수록 200~만원의 추가비용이 소요된다.

지난 95년 11월 (주)청록엔지니어링에 의해 창녕 화왕산 국립공원내 사찰 인근에 처음 세워진 메탄 발효 화장실은 현재 각급 공원지역과 상수원지역 내에 40여개가 설치되어 있으며, 앞으로 수요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문의=(053)639-6022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사찰 가이드 '문화해설사' 첫선

울산시 내년 25명 뽑아…대왕암등 배치

내년부터 울산을 찾는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지역문화재를 설명하는 전문 '문화해설사'가 배치된다. '문화해설사'는 사찰이나 사적, 천연기념물 등 문화재와 지역 문화관광현황에 해박한 식견을 가지고 관광객에게 이를 설명하고 이해를 도와주는 사람을 말한다.

울산시는 최근 관광의 행태가 단순히 자연경관이나 유적을 구경하는데서 벗어나 문화체험, 역사유적 탐구 등으로 변화되고 있어 역사유적 등을 능숙하고 친근하게 설명해 줄 수 있는 '문화해설사'를 양성해 배치키로 했다.

시는 이에 따라 퇴직교원이나 향토사학자, 외국어 능통자, 문화재 관리 자원봉사자, 관련학과 졸업 가정주부 등을 대상으로 내년 1월안에 모집한 뒤 기본소양을 갖춘 25명을 선발키로 했다.

시는 선발된 25명에 대해 국비와 시비를 포함, 모두 6천200만원의 예산으로 내년 4월부터 10월까지 7개월간 울산과학대 관광과를 비롯한 평생교육기관에 위탁해 전문가 양성교육을 실시키로 했다.

시는 이들을 대왕암, 반구대암각화, 신불산, 문수산 울산향교, 처용암, 울산왜성 등 지역 주요문화재를 찾는 관광객의 안내를 맡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조계종 포교원 관계자는 "포교원에서 매년 실시중인 관광가이드 연수를 활용해 불교문화를 소개하고, 지역 포교사들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김재경 기자

불교복지보건대 '자비의 약손'

호스피스 4명 봉사상

단체 감사패도 받아

부산 불교복지보건대학(학장 혜도)이 배출해낸 호스피스 봉사자들이 8일 동인노인병원 자원봉사자상을 수상하는등 적극적인 보살행을 펼치고 있다.

8일 대남병원 강당에서 열린 제8회 자원봉사자의 날 행사에서 불교복지보건대학 2기 졸업생인 김두례, 배정임씨와 3기 졸업생인 김인례, 박숙자씨는 자원봉사자상을 수상했다. 이들은 불교복지보건대학을 수료한 후 매주 금요일마다 노인들과 환자들의 목욕을 돕고 맛사지를 하는 등 간병과 호스피스활동을 펼쳐오며 자비행을 실천해 온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날 불교복지보건대학은 자원봉사자팀 감사패를 수상하는 영광도 함께 누렸다.

불교복지보건대학은 동인병원의 봉사활동 외에도 부산의료원, 보훈병원, 효도병원 등과 연계해 기수별로 봉사활동을 꾸준히 펼쳐왔다. 특히 14일에는 동인병원에 이어 두번째로 효도병원과 자매결연을 맺고 불교 호스피스 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터전을 마련했다. (051)462-5670

부산=천미희 기자

종단소식

조계종

제주 경승실장 회의

경승단은 14일 제주지방경찰청 2층회의실에서 제주지역 경승실장 회의를 개최했다. 포교부장 상운스님과 제주지방경찰청 경승실장 종호스님(제석사주지), 제주경찰서 경승실장 상허스님(덕흥사주지), 서귀포경찰서 경승실장 진아스님(법륜사주지) 등 19명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 경승실장들은 제주지역 경찰포교에 적극 나서기로 하고 내년 6월 열리는 경승단 총회에 적극 참여하기로 결의했다.

'신행의 길잡이' 발간

포교원(원장 정련)은 13일 발심 입문용 소책자 〈신행의 길잡이〉를 발간했다. 〈신행의 길잡이〉에는 '발심' '입문' '일일신행점검' '참선의 자세와 호흡법' '일일 연간 점검표' 등이 수록돼 있다. 포교원은 이 책자를 2만부 발간했으며, 신도등록 우수사찰과 교구본사, 포교사찰과 단체등에 배포한다.

태고종

성주암의 밤 송년법회



관악산 성주암(주지 재홍)은 13일 관악구민회관에서 회주 종연 스님의 총무원장 당선을 축하하고 종단 중흥을 기원하는 제3회 성주암의 밤 송년법회를 봉행〈사진〉했다.

천태종

대충스님 탄신 76돌 다례

제2대 종정을 역임한 대충스님의 제76회 탄신다례재가 30일 오전 10시 총본산 구인사에서 봉행된다. (043)423-7100

보문종

지하철 6호선 개통 축원재

14일 지하철 6호선 보문역 지하 1층 만남의 장소에서 지하철 6호선 개통(15일)을 축하하고 안전운행을 기원하는 축원재를 봉행했다. 보문사 삼직스님등 스님들과 신도, 서울 도시철도공사 보문역 역무원, 승객등 1백여명이 동참한 이날 축원재는 천수경·금강경 독경, 염불축원과 발원문 낭독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보문사는 지하철 6호선 보문역 지하1층 대합실에 이용승객들을 위한 서가와 독서대 등이 있는 만남의 장소를 설치해 주었으며 앞으로도 기초질서 캠페인, 음악 공연 등의 문화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무량종

원로원장 지은스님 선출

신임 원로원장에 지은스님, 감찰원장에 혜운스님, 문화원장에 보헌스님, 호계원장에 진허스님, 종회의장에 원우스님이 각각 선출됐다.

또 8일자로 총무원 각 부장과 지방종무원장을 다음과 같이 임명했다. △종회부의장=규식 △총무부장=수홍 △교무부장=보경 △규정부장=종한 △재무부장=정열 △사회부장=규동 △서울종무원장=정수 △부산종무원장=덕규 △경남종무원장=보경 △경북종무원장=보명 △전남북종무원장=보담 △충남북종무원장=상선

삼보종

청송교도소 수계·독경대회

총무원장 법찰스님을 비롯한 종단 간부스님들과 신도 등 1백여명은 청송교도소에서 교정관계자와 재소자 위문법회를 열었다. 600명이 동참한 이날 법회에서는 재소자들을 대상으로 독경대회와 수계식도 개최됐다.

금정산 녹지에 교회신축 물의

인근사찰 · 학교 "수행 · 교육환경 훼손" 반발

개신교 교회가 부산 금정산 자락 자연녹지에 시설물 건축허가 신청을 내자 인접한 사찰 신도와 주민들이 산림훼손과 주변 학교의 학습권 침해 등을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다.

13일 부산 원광사(주지 근안)에 따르면 대한예수회장로회 D교회는 지난달 13일 동래구 사직2동 산82번지 외 2필지 자연녹지 1천161㎡에 지하 2층 지상 4층 규모의 교회 시설물의 건축허가를 동래구청에 신청했다. 교회시설물이 들어설 지역은 30~50년생 소나무 수십여 그루가 있는 금정산 끝자락으로 주변엔 통도사 말사인 원광사와 사직여중이 있다.

뒤늦게 건축허가 소식을 접한 원광사 신도와 사직여중 학부모 등 주민 996명은 지난 4일 산림훼손 등을 이유로 반대 진정서를 구청에 제출했다. 이들은 진정서를 통해 '산책로 입구의 산림을 파괴해 지역주민의 환경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사직여중이 인접해 있어 공사에 따른 학습권 침해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동래구청은 "주민의견과 건축에 따른 이익 등을 검토해 건축허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재경 기자

달라이라마 대만 방문

내년 천수이볜총통 만나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인 달라이 라마가 내년 초 대만을 방문, 천수이볜(陳水扁) 총통과 만날 계획이라고 대만 케이블 뉴스채널 TVBS가 10일 보도했다.

방송은 달라이 라마가 천 총통과 만나 비정치적 문제들을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재경 기자

중국 저장성 종교탄압 강화

지난달 사찰 · 교회 등 4백94곳 폐쇄

중국 저장성 당국은 지난달 이후 각종 종교들에 대한 대대적인 척결에 나서 449개의 불교와 도교 사원들과 가톨릭 및 개신교 교회들을 폐쇄했거나 파괴했다고 홍콩 소재 중국인권단체인 '인권민주운동정보센터'가 12일 밝혔다.

이 단체에 따르면 저장성 1개 성에서만도 239개의 종교 시설들을 폐쇄했으며, 210개는 파괴했다고 밝히고 국무원 국가종교사무국에 등록되지 않은 종교 단체들에 대해 척결 운동을 벌였다고 전했다.

폐쇄됐거나 파괴된 사찰들과 교회들은 '자본주의 도시'로 불리는 저장성 원저우시에 대부분 소재해 있어 경제발전과 함께 종교가 급속히 퍼지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인권민주운동정보센터'의 프랭크 류 소장은 중국당국이 국가종교사무국에 등록되지 않은 교회와 사찰들이 법륜공처럼 강력한 조직과 추종자들을 갖춘 세력으로 발전하는 것을 두려워 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국가종교사무국은 지난 9월 26일 '중화인민공화국내 외국인 종교활동 관리규정 시행세칙'을 발표해 본격적인 종교탄압에 들어갔다. 김재경 기자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에 대한 답이 여기 있습니다.
밝은길 아바타 센터
아바타 코스는 7~6일이 걸리며, 전화주시는 분께는 안내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당신이 원한다면, 당신이 선택하기만 한다면 당신의 삶 전반이 바뀔 수있습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서울 종로구 평창동 45번지
☎ 02)395-2736 · HP 016)228-2358
http://www.avatarcenetet.co.kr
E-mail:bokbat@kornet.net
마스터 / 워저드 김희균

소원 성취 명당 육기(氣) 방

옛부터 금은 보화와 육신(神)을 가정에 두면 액운을 막아준다 하였고 (좌)청룡(靑龍) (우)백호(白虎) (남)주작(朱雀) (북)현무(玄武) 천하(天下)대장 지하(地下) 대장신(神)의 수호신인 육신이 항상 수호해 준다하여
소원성취 · 안전운행 · 사업흥왕 · 불화방지 · 가내화합 · 시험합격 · 악귀퇴치 · 극락왕생 · 선신수호 · 삼재예방 · 관재소멸 · 운수대통 하게하고
가정을 편안하게 해 주며 천(天) 지(地) 간의 좋은 기(氣)를 받아
나쁜 맥(脈)과 기(氣)를 막아 주고
좋은 혈장(穴場) 명당이 되어
자손대대로 무병장수하고 하는 일마다 잘되어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했다.

기(氣)란 : 현실이다

◆육기방 수호신장(六氣方 守護神將)◆
좌청룡(靑龍) : 천하 4방중에 좌측을 담당하는 신으로써 좌청룡이라 불리워진다. 풍수의 학설에 따르면 청룡에서 발생되는 생기(生氣)는 자손 번창의 기운, 권력과 지도자의 기운, 재산의 기운을 대표적으로 갖고 있다.
우백호(白虎) : 천하 4방주에 우측을 담당하는 신으로써 우백호라 불리워진다. 우백호의 기세에서는 부자가 나오고 훌륭한 여성이 많이 배출되는데, 딸과 며느리에게 영향을 끼친다. 청룡이 남성이라면 백호는 여성이라 말할 수 있다.
남주작(朱作) : 천하 4방주에 남쪽을 담당하는 신으로써 남주작이라고 불리워진다. 주작의 기세에서는 큰 재산을 모으는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오르며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게 된다. 주작은 현무와 대칭되는 관계에 있다.
북현무(玄武) : 천화 4방주에 북쪽을 담당하는 신으로써 북현무라 불리워진다. 현무는 사신사 중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현무는 사신사 중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현무는 한 집안이나 개인에게 특별한 능력을 만들어 주는 생기를 갖고 있어, 현무의 지세가 좋은 지역에서는 능력이 출중한 인물이 배출된다. 현무의 기운은 주작의 기운과 대칭된다.
천하(天下)대장 : 천하의 신(神)을 관장하고
지하(地下)대장 : 지하의 신(神)을 관장한다.
마을마다 장승이 세워진 뜻은 여기에 있다.
※ 주지스님 찬견 후에 제품을 공급 받으십시요.

명당 육기(氣) 방은 천지(天地)간에 좋은 기(氣)가 모여 혈장(穴場)이 되고 법종은 천지(天地)를 진동하게 울리며 모든 잡신과 잡귀를 내쫓고 범접을 못하게 하며 왕관은 관운과 재운과 명예를 얻고 큰 인물을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며 범종과 왕관을 떠받이는 여섯개의 명산이 감싸고 있고 신의 수호신인 육신이 자리 잡고 있으며 항상 수호해 줌으로 언제 어디서나 어디로 가든 천지간의 좋은 혈장(穴場) 명당 자리라하여 신비의 황금 보물 명당 육기(氣) 방이라 한다.

◀기(氣)의 중요성▶
기(氣)란 현실이다
기(氣)가 약하면 액운이 따르기 마련이고
기(氣)가 강하면 강자가 될 수있고
기(氣)가 약하면 건강과 명예와 재물을 잃을 것이다.
※ 육기방에 효험은 좋다는 분들이 많다.

◆사용처◆ 가정집, 공부방, 자동차, 공장, 사무실, 가게, 묘지, 사십구제, 천도재, 등 여러곳에 사용함.
◆구입처◆ 사찰, 암자, 철악관
※ 수험생을 둔 부모님과 많은 분들께 꼭 권장하고 싶습니다.

(주)명당육기(氣)방: 051)865-9933
공 장: 051)864-7878
홈페이지 :www.6kibang.co.kr

◆ 생각치도 않은 좋은 신기(新奇)의 기적(奇蹟)들이 많이 일어 난다고 하여 신(神)이냐 기적(奇蹟)이냐 하는 소리가 많다. ◆

"불교사회복지법 만들자"

권경임 박사 불교사회복지대회서 주장

김수영 교수 "사찰 복지사업 참여 의무화"



◇15일 열린' 전국불교사회복지대회에 참석한 교계 복지관계자들은 '불교사회복지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시대변화에 부응하는 불교사회복지 발전을 위해 불교복지원 설립을 포함한 '불교사회복지법'(가칭) 제정과 함께 교구본사 중심의 복지체계로 전환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5일 세검정 하림각에서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주최로 열린 '전국불교사회복지대회'에 참석한 복지전문가와 관계자들은 종단차원에서 사회복지 관련법과 이를 효율적으로 이행할 전달체계를 갖추지 못할 경우 불교사회복지는 일회성 '자선사업'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새천년 불교사회복지의 과제와 역할'을 주제로 열린 이날 세미나에서 권경임 박사(재단자문위원)는 '불교사회복지 발전을 위한 종단의 기능과 역할' 주제발표를 통해 "모든 복지시설의 종단등록 의무화 법안 마련과 종단차원의 복지전담기구 설치, 교구본사별 복지법인 설립을 통해 불교사회복지 전달체계의 조직기반과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김수영 교수(국립보건원)도 '지역사회 내에서 사찰의 사회복지 활용 및 실천방안' 주제발표를 통해 "종단이 정책적으로 복지사업을 전개해야 하며, 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면서 "사찰도 의무적으로 사회복지에 참여토록 하는 방법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두 발표자의 견해를 종합하면 가장 바람직한 형태는 현 복지법인을 종단내 독립전담기구인 불교사회복지원으로 전환하고 각 교구본사별로 복지법인을 설립해 단위사찰 사회복지사업과 연계하는 체계다. 또한 교구본사가 말사들을 관리하는 종적구조와 시·군 단위의 지역별로 복지연합체를 구성하거나 장애인·어린이·여성 등 시설 종별로 협의체를 구성하는 횡적구조를 조화시킬 경우 현재보다 훨씬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복지정책을 구현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이 모두는 종단차원의 '사회복지법' 제정을 통한 제도적 뒷받침을 전제로 하고 있다. 실제로 종헌 제21장 제117조와 제118조에는 사회복지원을 두고 각종 기관과 단체의 조직,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종법으로 정한다고 명시돼 있다.

주제발표에 이어 열린 토론회에서는 이같은 주장의 당위성에 공감을 표하는 견해가 많았다. 토론자로 참석한 현각스님(조계종 종회의원·사회분과위)은 "불교사회복지법은 분명 필요하다. 복지재단에서 현실에 맞는 사회복지법 시안을 마련해 오면 사회분과위원회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종회에 상정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복지재단 최종환 부장은 "현재의 불합리하고 비효율적인 체계로는 더이상의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우선 사회복지법만이라도 먼저 제정해 불교복지의 근본틀을 새롭게 바꿔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부부문제' 상담많다

자비의 전화 10년 자료집

24시간 전문전화 상담기관 자비의 전화(회장 정덕스님) 10년 상담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은 부부(6,968건) 이성(5,998건) 가정(4,525건) 종교(4,025건) 인생(3,457건) 청소년(3,330건)문제 순으로 나타났다. 또 성별로는 남성(42.5%)보다 여성(54.2%), 직업별로는 주부(10,302명, 28.5%)와 학생(4,116명, 11.4%)이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 같은 결과는 자비의 전화가 창립 10주년을 기념하여 22일 오후 5시 서울 뚝섬부폐에서 발간기념식을 개최하는 '자비의 전화 10주년 자료집'에서 밝혀졌다.

이날 발간하는 자료집에는 상담통계자료와 상담원별 총 상담시간과 상담건수가 자세하게 정리돼 자비의 전화 10년사를 한눈으로 볼 수 있게 하고 있다. 김원우 기자

강남사원련 내년초 결성

봉은사·총지사 등 주지 8명 발기인 모임

서울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중심지 강남구에 지역내 사찰과 신행회, 연구단체, 직장직능단체 등 모든 불교단체들이 총 연합하는 강남불교사원연합회 결성이 추진되고 있다.

봉은사 주지 원혜스님, 총지종 통리원장 권한대행 지성정사, 강남포교원장 성열스님 등 강남구에 소재한 사찰 주지 8명은 지난 7일 총지사에서 '강남불교사원연합회' 발기인모임을 갖고 내년 1월 초 창립법회를 봉행키로 했다. 이날 강남사원련 결성준비위원장에 봉은사 주지 원혜스님, 부위원장에는 총지종 지성정사를 각각 선임했다.

강남사원연합회는 앞으로 부처님 오신날 봉축법회, 연등축제, 찬불가 경연대회, 다도 등 연합문화행사를 가져 불교를 알리고 불우청소년 결연, 관내 복지시설 후원, 직능단체 후원 등을 통해 지역민과의 유대를 강화해 나간다. 또 사찰이나 불교계와 행정기관과의 민원성 문제가 발생시 공동으로 대응하고 불자법조인의 지원 등을 받아 법률서비스를 실시하는 등 불교의 위상확립을 위해서도 적극 앞장설 계획이다.

강남사원연합회는 강남구내 사찰과 연구단체, 직장직능단체, 신행회 등의 가입신청을 기다리고 있다. (02)3452-7485 이경숙 기자

"일부스님 도덕성 해이 교단 수호차원 대처"

재가연대 20일 기자회견

불교바로세우기재가연대(상임대표 박광서)는 13일 "최근 일부 스님들의 도덕적 해이문제에 대하여 교단수호 차원에서 단호하게 대처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20일 이에 대한 기자회견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재가연대는 "조계종 총무원 고위 소임자인 모 스님이 지난 98년 상습도박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 2백만의 유죄를 선고받았다는 제보가 사실로 드러났다"고 덧붙였다. 김재경 기자

"아기 예수 탄생 축하합니다"

사찰-단체 플래카드 걸고 교회도 방문

"아기 예수 탄생을 축하합니다"

25일 크리스마스를 맞아 사찰과 불교단체가 축하 메시지를 담은 플래카드를 내걸거나 인근 교회나 성당을 직접 방문하는 등 종교화합의 '꽃'을 활짝 피우고 있다.

10년째 인근 포이동성당과 정을 나눠온 서울 구룡사(주지 정우)는 올해도 어김없이 사찰 입구와 사찰과 성당 중간에 있는 놀이터에 '아기예수님 탄생을 축하합니다'라는 내용의 플래카드를 걸고, 크리스마스를 축하하는 난 화분도 보냈다. 화계사(주지 성광)는 한신대 입구와 수유성당 2곳에, 도선사(주지 광복)는 419 사거리와 우이동 6번 종점에 플래카드를 20일을 전후해 걸 예정이다.

지방에서도 많은 사찰들이 크리스마스를 축하하면서 이웃 종교와의 정을 나누고 있다. 조계종 17교구본사 금산사(주지 도영)가 19일 동자승을 그려 넣은 플래카드를 금산면 소재지에 건 것을 비롯해 전주 학소암과 금산사포교당도 전주시내에 플래카드를 걸었다. 또 서산 부석사(주지 주경)도 이번주 중으로 축하 메시지를 담은 플래카드를 사찰입구에 걸 예정이다.

대구 관음사(주지 우학)는 21일 저녁 7시 영남불교대학 법당에서 송년회를 겸한 크리스마스 축하의 밤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며, 경북 안강 향림사(주지 법명)는 크리스마스 당일 인근 교회와 성당을 방문해 아기예수의 탄생을 축하할 계획이다.

불교단체들도 크리스마스 축하대열에 동참하고 있다. 강원도 소쩍새마을(원장 현각)은 지난주 시설 입구에 '아기예수 탄생을 축하한다'는 플래카드를 걸었으며,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인권위원장 혜조스님은 '한국식 크리스마스 트리'를 직접 제작, 한 수녀회에 전달했다. 또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회장 이향노)는 크리스마스를 축하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명우 기자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인권위원장 혜조스님은 나뭇기지에 엿, 곶감, 대나무 숯, 누룽지, 한지로 접은 옷모양의 종이를 매단 '한국식 크리스마스 트리'를 직접 제작해 '원죄 없으신 마리아님을 위한 수녀회'에 전달하고 크리스마스를 축하했다.

신심깊은 불자

동국대 의대에 시신기증

신심 깊었던 한 불자가 이달초 세상을 떠나며 동국대 의과대학에 시신을 기증했다.

서울 세곡동 법수선원에서 불교에 입문해 공부해오던 故 진갑선씨(63)는 평소 가족들에게 "부처님의 자비사상을 실천하기 위해 시신을 기증하겠다"는 의사를 자주 밝혀왔으며, 99년 7월에 아내 박봉자씨(58)와 함께 교계 생명나눔실천회에 각막과 시신을 기증하겠다는 서약을 했었다.

이어 진씨의 두 아들도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장기기증서약에 동의했다. 한명우 기자

"이젠 火葬 시대다"

불교·가톨릭·개신교·유교 '한목소리'

불교의 전통 장례의식인 화장, 가톨릭, 개신교, 유교 등 주요 종교가 화장을 장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나섰다.

재단법인 만불회(회주 학성)가 장묘제도 개선 실천을 목적으로 14일 경북 영천 만불사에서 개최한 '종교연합 화장장려 세미나'에서 4대 종교 관계자들은 "사회적·생태적 심각성을 인식하고 화장을 장려해야 한다"는데 뜻을 모았다. 특히 부활을 믿고 매장을 택해온 가톨릭과 개신교측도 "더이상 매장을 고집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매장을 고집해 온 유교조차도 "어떤 제도든 현실에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화장' 쪽에 손을 들었다.

보광스님(동국대 교수)은 주제발표에서 "화장이 불교의 죽음의식임에도 불구하고 화장을 장려한다는 것은 불교인 스스로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며 "종단과 사찰에서 화장이 불교전통의 장례문화임을 인식시키고 이를 선양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나기정 신부(대구 가톨릭대 교수)는 "교황청은 63년 화장이 교회법과 가톨릭 교리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선언한 바 있다"며 "아직도 매장 선호계층이 많은 교회의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다운 목사(기독교장례문화협의회)는 "기독교 장의문화가 전통적 장의문화와 마찰을 빚는 경우도 있지만 화장이든 매장이든 산 자의 공간과 환경을 망쳐서는 안된다"고 지적했고, 성균관 이승관 전의는 "매장이라는 유교적 상례제도는 개선돼야 하지만 유교의 종교적 의식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점차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한명우 기자

부처님의 가르침과 큰 스님들의 말씀을 21세기 첨단의식공학 기법으로 새롭게 만나보십시오. 9일간의 자기 성찰 여행이 당신 안에 있는 또 다른 당신을 일깨워줄 것입니다.

한벗 아바타 센터

아바타 마스터/동시통역사 손인국·아바타 마스터/임상심리 전문가 김정원

연락을 주시는 분께는 자료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서울시 노원구 상계 1동 1277

전화 : 02) 3392-0464 / 핸드폰 : 016) 271-2096

'지리산 살리기 운동'

녹색연합 10대뉴스

지리산댐 건설 백지화운동이 녹색연합 10대 환경뉴스에 선정됐다.

녹색연합은 지난 7일 발표한 10대 환경뉴스에서 우리나라 환경운동에 희망을 주는 사건으로 '지리산댐 백지화운동 전개'를 비롯 '동강댐 건설계획 백지화 쟁취', '지리산 반달곰 생존 확인', '팔당 상수원 초고층 아파트 건축 백지화' 등을 선정했다.

녹색연합은 이밖에 '미군기지 한강 독극물 무단방류사건'을 첫째 사건으로 꼽았다.

둘째는 '준농림지 폐지로 인한 난개발문제 대두'이며, '새만금 백지화운동', '대통령 직속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출범', '강원도 산불', '환경호르몬 문제 심각'이 뒤를 잇고 있다.

김재경 기자

'사형제 폐지 모임'

범종교차원 추진

불교, 개신교 및 가톨릭을 중심으로 사형제도 폐지를 위한 범종교 모임 결성이 추진되고 있다.

불교인권위원회, 천주교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 등 3대 교단의 사형폐지운동 관계자 10여명은 지난 10일 서울 연지동 한국기독교회관에서 간담회를 갖고 '사형제도 폐지를 위한 범종교연합'(가칭)을 결성하자는 데 의견을 모으고 불교인권위 공동대표인 진관 스님과 정의평화위원회 총무인 이창영 신부, 백도웅 KNCC 부총무를 각 종단 대표자로 선임했다.

진관스님은 "앞으로 이 연대모임을 원불교, 천도교 등 다른 종단들도 모두 참여하는 범종교단체로 발전시켜 사형제 폐지를 위한 범국민운동을 전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재경 기자

성 명 서

중앙종회는 임시종회를 개최하여 이번 총무원장 선거와 관련된 제반문제를 수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고종은 한국불교 1천 6백년의 역사를 이어온 전통종단으로 오랫동안 지속되어온 불교법란 중에서도 정법을 지키고 법통을 계승하기 위하여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세월의 변화에 따라 전통종단의 정체성과 위상이 변질되어 종도의 구심점이 흔들리는 위기 상황에서 금번 총무원장 선거를 계기로 종단이 구각(舊殼)을 벗고 거듭 태어나는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기 위하여 이번만은 진정으로 자질과 능력을 갖춘 지도자다운 지도자가 나와 종단을 이끌어 주기를 기대하였으나 이번 총무원장 선거마저 하자가 발생하여 설왕설래하고 있음은 실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종무원장 협의회는 종무일선에서 종단운영을 책임진 중진 스님들이 모인 자생단체로서 이번 사태가 조속히 해결되어, 종단이 정상화되어야 한다는 충정에서 우리의 견해와 의지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자 한다.

1. 봉원사의 청원내용을 보면 종연스님이 종단의 공찰주지로서 유사종교 단체에 가입하여 고위간부의 직책을 가지고 전통불교를 비하하는 언행을 하면서 세력확장에 앞장서 불교 종단의 위상을 실추시키고 더 나아가 5억 상당의 막대한 삼보정재까지 헌납하였다고 하는바 이것이 사실이라면 도저히 간과할 수 없는 중대한 문제로 이처럼 사리분별이 어둡고 자기종단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총무원장이 되어 종단을 운영해 갈 것인지 심히 염려스럽고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최근 모 경찰간부가 이력서 한 줄을 잘못 기재 하여 그직을 사임해야하는 냉엄한 사회정서를 감안할 때 종교지도자의 행동과 처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새삼 강조하게 된다. 종단의 질서와 정의실현을 위해서 종연스님은 하루빨리 양심에 따라 확실하고 분명하게 거취를 밝혀야 할 것이다.

2. 송종연 스님은 총무원장 선거기간동안 종도 들에게 종단을 쇄신하고 개혁하기 위해서는 삼사를 배제하고 세칭칠인방을 청산하여야 하며 용궁사 문제와 보건공제회문제등 종도 들간에 회자 되고 있는 의혹들을 해결할 사람은 자신밖에 없다고 하는 주장을 해놓고 막상 당선후의 그의 행적과 언행을 볼 때 실망을 금할 수가 없다. 모 주간지와의 인터뷰기사중 "자비문중에 개혁이란 말은 맞지 않는다."고 한 발언이나 "나 이외의 다른 사람이 당선되었으면 종단화합이 안되었을 것"이라는 등의 사리에 맞지 않는 분별없는 발언으로 종단의 불화를 조장하고 있는가 하면 총무원의 인사처리에 있어서도 구태를 답습, 하나도 예전과 달라진게 없어 송종연 스님은 종단개혁의지와 앞으로 종단중흥을 위한 비전과 철학이 없으며 종도가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조차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능력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아울러 종연스님은 종도 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확실한 종단개혁에 대한 청사진을 밝혀야 한다.

3. 송종연 스님은 자신이 총무원장이 되면 사찰분담금을 폐지하고 자신의 재산으로 종단을 운영하고 총무원과 동방대학을 짓겠다고 하는 등 수많은 공약을 남발하였으나 지금 와서 그런 사실이 없다고 말을 바꾸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러한 공약내용이 실현된다면 얼마나 다행한 일인가. 종연스님은 지금이라도 자신의 공약실행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예컨대 종연스님의 재산총액이 얼마인지 또 언제쯤 종단에 내놓을 것인지 총무원사와 동방대학은 언제 어느 정도의 규모로 무슨 돈으로 지을 것인지를 확실하게 밝혀 종도 들에게 신뢰를 심어주어야 한다. 만일 이와 같은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없이 구호로만 그친다면 종도를 기만하고 현혹시키는 것으로 마땅히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4. 종무원장협의회에서는 지난 11월 총무원장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을 사전에 검증하고 문제점에 대한 해명의 기회를 줌으로써 선거이후 발생할지도 모를 후유증을 방지하고자 후보자 초청토론회를 개최한바 있으나 송종연 스님은 참석하겠다는 사전 약속을 깨고 선거전략이란 이유로 불참하였는바, 당선후의 언행을 미루어 보면 분담금폐지와 사재출연, 총무원사 건립과 동방대학이전 같은 실현불가능한 공약을 해놓고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기위한 수단이며, 자신의 잘못된 종책과 과오(유사종교단체 활동과 삼보정재 헌납등)를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토론회에 불참한 것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이다.

5. 우리는 종단의 총본산 수사찰인 봉원사의 청원내용이 사실에 입각한 합리적인 주장이라고 판단되므로 중앙종회의장 스님께서는 빠른 시일 내에 종회를 개최하여 지난 총무원장 선거와 관련된 적법성 여부와 송종연스님의 자격하자문제를 조사 처리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이와 같은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종법을 개정하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주실 것을 촉구해 마지않는다.

이제 우리종단은 달라져야 한다. 사람에 따라 편이 갈라지고 정실에 따라 지도자를 선택하는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 더 이상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 진정으로 종단의 미래를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종단을 위하는 길인지 겸허한 자세로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다. 우리는 어느 특정인을 일방적으로 지지하거나 비판할 의도는 추호도 없다. 다만 누구라도 잘못이 있다면 이를 지적하고 바르게 시정하려는 노력이 없는 한 종단의 장래는 희망이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우리의 정당한 의지를 성명으로 발표하는 바이다. 종도 여러분의 이해와 동참이 있기를 기대한다.

불기 2544년(2000년) 12월 11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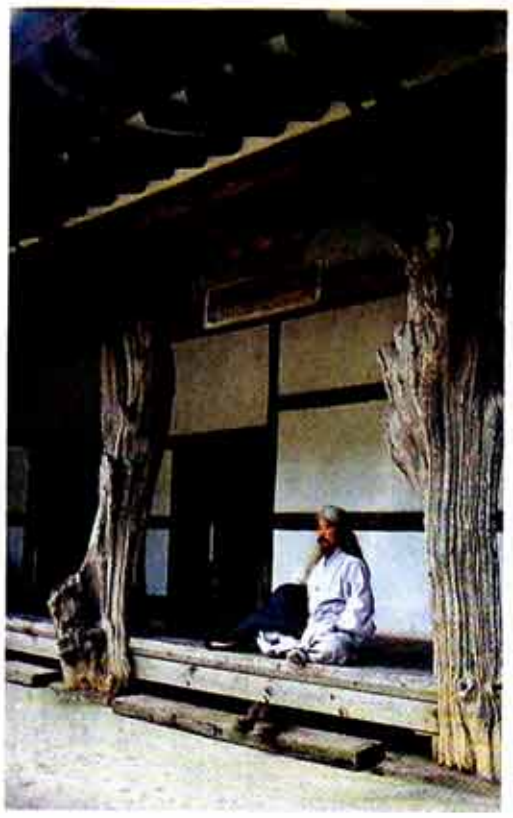
한국불교태고종 종무원장협의회 회장 정대은

천연 모과나무 기둥 '파격'

가람의 장면들 39

화엄사 구층암 승방

김 봉 렬
〈한국예술종합학교 건축과 교수〉



◇모과나무를 다듬지 않고 자연그대로 기둥으로 사용한 화엄사 구층암 승방. 인공적인 건축물은 자연의 일부요, 확장이라는 한국고유의 자연주의적 건축관이 그대로 나타나 있다. 사진제공=이병윤 불교사진연합회장

다듬지 않아 결 · 옹이 생생

'자연도 하나의 건물' 상징

민화 · 동물조각 서민풍 물씬

명산고찰에는 산 속 곳곳에 크고 작은 암자들을 가지고 있기 마련이다. 큰스님들은 깊은 산 속에 작은 초막을 짓고 수행에 정진했다. 행정적인 보살림이나 재정 운영은 산 아래 본절과 관계를 유지한 이러한 일인용 수도원들을 암자라 부른다. 재가불자들을 위한 대규모 법회는 본절에서 개최되며, 암자에는 소수의 스님들과 소수의 신도들만 찾을 뿐이다. 중생의 교화보다는 개인적 수행을 중시했던 암자 건물들은 가장 간단하고도 소박한 형태를 취한다 형식보다는 내용이 훨씬 중요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암자 스님들의 개성을 따라 건축되므로, 일반 가람에서는 보기 드문 특이한 형태의 건물들도 나타나게 된다. 세속적 평가나 아름다움의 기준에 연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화엄사에도 14개의 암자가 있었다고 한다. 화엄사 정도의 명찰에 속한 암자들은 웬만한 가람을 능가하는 큰 규모의 것들도 많다. 암자를 찾는 신도나 스님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아직도 화엄사에는 지장암, 봉천암, 금정암 등 8개의 암자가 있다. 그러나, 제아무리 큰 규모의 암자라 하더라도, 국립공원 지리산의 깊은 산 위에 있어서 교통이 불편하기 때문에 본절에 비해 방문하는 이들은 드물다. 그리고 이들의 건축적 특성 역시 노출되지 않아 일반인들은 주목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구층암은 본 절에서 봄과 500m 밖에 떨어져 있지 않고, 그 건축적 내용도 대단하지만, 그 참다운 가치를 알아주는 이들이 별로 없다. 화엄사 암자 가운데 옛 모습을 가장 잘 간직하고 있는 구층암에는 천불보전과 수세전, 그리고 두 채의 요사채만 있을 뿐이다. 천불전 안에는 작은 불상 1000구가 봉안되어 장관을 이루며, 지붕 밑에는 거북이와 토끼의 설화를 묘사한 민화풍의 조각상들도 장식되어 있다. 그 앞 대방채에도 곳곳에 사자상이나 코끼리상들이 조각되어 서민적인 냄새가 물씬하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소중한 것은 대방채를 이루는 전면기둥이다.

백년은 넘은직한 큰 모과나무를 싹뚝 베어서 전혀 다듬지 않고 생긴 그대로 기둥으로 사용했다. 나뭇가지의 흔적 뿐 아니라, 울퉁 패인 나무의 결과 옹이까지도 생생하다. 밑동은 하나지만 위는 두 갈래로 갈라진 Y자형 기둥이 지붕틀을 받치고 있다. 휘어진 기둥이나 부분적으로 다듬지 않은 기둥은 드물지 않게 나타나지만, 이처럼 철저하게 손을 대지 않은 기둥은 찾아보기 어렵다. 그것도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를 사용한 예는 구층암 승방 뿐이다.

모과나무는 소나무와 달라서 쉽게 굵어지지 않는다. 오래된 모과나무라 해도 그 굵기가 가늘기 때문에, 다른 목재처럼 다듬어 사용하려면 너무 가늘어져 건축자재로는 적합치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모과나무를 생긴 그대로 기둥으로 사용한 것은 특별한 의도가 있을 것이다.

일본 건축에서는 목조 건축의 부재를 흑목조와 백목조로 구분한다. 백목조란 나무의 껍질을 벗기고 다듬은, 흔히 볼 수 있는 부재를 말하는 것이다. 반면, 흑목조란 나무껍질을 벗기지 않고, 생나무 그대로 잘라서 기둥이나 보에 쓰는 방법이다. 흑목조에 대해 일본인들은 그들의 자연친화적 건축의 특성을 세계적으로 선전하고 있다. 흑목조가 뜻하는 것은 자연의 일부를 인공적인 건물 안에 살렸다는 의미다.

그러나 구층암 승방의 모과나무 기둥은 그 차원이 다르다. 자연의 일부를 삽입한 것이 아니라, 모과나무가 자라서 기둥이 되고, 지붕이 된다는, 자연이 곧 건축이 된다는 근원적인 생각을 나타낸 것이다. 확대 해석을 한다면, 나무의 밑동은 기둥이요, 줄기는 보가 되며, 이파리의 잔가지는 서까래와 지붕이 된다. 인공적인 건축물은 곧 자연의 일부요, 확장이라는 자연주의적 태도를 확인할 수 있는 집이다.

나무라는 재료는 가장 쉽게 사용할 수 있고, 아름다운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매우 우수한 건축재료다. 그래서 구할 수만 있다면, 동서를 막론하고 가장 선호하는 것이 목조건축이었다. 한국건축의 주된 재료가 나무인 까닭은 우리나라 산에 양질의 나무들이 많이 쉽게 구할 수 있다는 경제적 이유가 컸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자연을 빌려온다는 생각에서 그 사용량을 최소화하려 했고, 가급적 인공적인 가공도 최소로 유지했다. 휘어진 나무는 휘어진 대로 사용했고, 북사면에서 자란 나무는 건물의 북쪽에, 남사면에서 따뜻한 햇빛을 받고 자란 나무는 건물 남쪽에 사용했다. 나무란 건축재료 가운데 유일한 생명체였으며, 생전의 생장환경과 가장 유사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재료의 수명을 오래할 수 있다는 깨달음 때문이었다. 그리고, 그것이 자연을 빌려온 작은 대가라고 생각했다. 구층암의 모과기둥은 그 자연주의적 태도를 극명하게 드러내는 소중한 예다.

불교조형물에 나타난 전통문양

원 / 태극

'원'은 깨달음의 표상

심우도 · 선화에 자주등장 '불성' 암시

■원상(圓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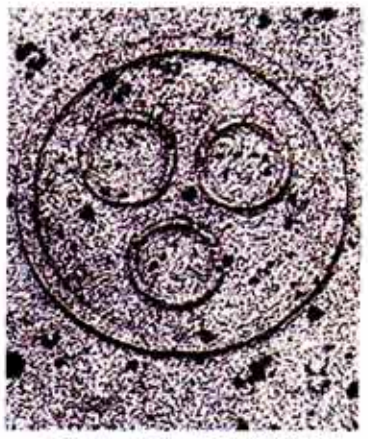
기하학적으로 볼 때 원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점의 연속이다. 원은 진리의 완성, 순환의 영원성, 조화와 관용, 우주적 합일과 풍요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그래서 우주 만유의 근본자리로 표현되기도 하고, 우주 그 자체로도 표현된다. 또 불보살의 마음자리, 일체 중생이 갖추고 있는 불성자리를 원으로 나타낸다. 불교 용어인 원만(圓滿), 원각(圓覺), 원통(圓通), 또는 원공(圓空)의 개념에도 이같은 뜻이 내포되어 있다.

원상은 사찰의 벽화나 선화 등에서 흔하게 접할 수 있다.

사찰에 가보면 지붕 합각(合角) 벽의 등근 원 속에 작은 원 세 개가 삼각형이나 역삼각형으로 그려진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를 원이상점(圓伊三點) 또는 이자삼점상보(伊字三點三寶)라 한다. 이 원이삼점의 점들은 하나이면서 하나가 아니고, 앞과 뒤를 따로 두지 않는 전체적인 융합을 의미한다. 그래서 이를 불법승(佛法僧) 삼보의 상징으로 여긴다.

선종에서는 원상을 진리의 표상으로 삼는다. 깨달음의 과정을 그림으로 표현한 십우도(十牛圖) 10폭 가운데 8번째인 〈인우구망도(人牛俱忘圖)〉에 원상이 나타난다. 화면 가득 텅빈 원 하나가 그려져 있는데, 소는 물론이고 자기 자신도 잊어버린 망각의 상태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객관적인 존재로서의 소를 잊었으면 주관적인 존재인 동자 자신 또한 성립되지 않는다는 의미를 나타낸 것이다. 이때 원은 주관과 객관이 분리되기 이전의 상태, 즉 원융의 상태를 상징하는데, 이같은 경지에 이르러야만 비로소 완전한 깨달음이라고 말 할 수 있다.

또 부처님 가르침의 바퀴인 법륜(法輪)도 이 원을 토대로 이해할 수 있다. 둥근 원이 굴러가듯 법의 바퀴도 영원히 돌고 돈다는 것이다.



◇건봉사 석주에 조각된 '원이삼점', 불법승 삼보의 상징이다.



◇순천 송광사 승보전 '심우도'의 '원상', 소와 사람 모두 공(空)으로 돌아갔다는 깨달음을 원상으로 나타내고 있다.

우주만물 근원 '태극'

원융조화 상징…불교서 받아들여

■태극

태극의 도형과 이념은 고래로부터 우리민족에게 전통적으로 쓰여왔다. 태극은 존재와 가치의 근원이 되는 궁극적 실체, 또는 상호 대립적인 개념이 생겨나기 이전의 원융 상태를 표상한다. 절대 평등과 원융의 조화가 태극이 내포하고 있는 뜻이다. 태극은 원상 속에 양과 음이 위아래로 상대하고 있는 형태다.

태극이라는 용어는 주역에 나오지만 중국에서 태극문양이 처음 보이기는 11세기 송나라 때 주돈이가 지은 〈태극도설(太極圖說)〉에서부터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7세기 초반(628년)에 건립된 경주 감은사지(感恩寺址)의 석각 가운데 태극도형이 나타나고 있다. 태극도형이 중국에서 전래되기 이전부터 태극의 사상을 일찍부터 이해하고 그것을 장식문양으로 활용해 왔음을 알 수 있다. 이 전통이 조선시대로 이어져 사찰 곳곳에 태극문양이 표현되었다. 사찰 돌계단의 소맷돌이나 건물 서까래의 마구리, 문의 궁창 등에도 태극문양이 장식되어 있고, 사찰 경내 사당이 대문이나 벽체에도 나타난다.

양산 통도사의 관음전에는 법당 문의 궁창에, 의성 고운사 우화루에는 모든 서까래의 끝에 태극문양이 그려져 있다. 해남 대흥사 경내에 있는 사당 표충사의 대문에도 태극문양이 크게 그려져 있다.

이은자 기자(ejlee@buddhapia.com)



◇양주 회암사지 돌계단 소맷돌 양쪽에 음각되어 있는 태극문양.



◇통도사 관음전 궁창의 태극문양.

인터넷 불교쇼핑 마하몰 연말연시 특선 상품전 www.mahamall.co.kr 02)732-1522

108 나한단주

신목숭아씨를 조각한 100% 수공예 작품 염주 한 알에 6분의 나한님이 조각되어 있음
· 가격 20,000원 (고급케이스 포함)

꼬 건강벨트

내용물 건강벨트, 온도조절기, 어댑터, 시가적 충전기 / 밧데리 (휴대용 구입시)
· 가격 가정용 105,000원, 휴대용 180,000원

삼보죽염 세트

황토가마에서 아홉번 구워낸 삼보죽염! 전통죽염 제조장이시며, 인간문화재이신 효산스님께서 기술고문으로 제조합니다
· 용량 600g / 가격 105,000원

죽 비

· 루리죽비(대) 30,000원
· 일반형(2개 1세트) 18,000원
· 루리죽비(중) 25,000원
· 보급형(2개 1세트) 12,000원
· 루리죽비(소) 20,000원
· 죽비세트 - 루리(대)루리(소) 일반형 53,000원
대나무 밑 부분을 쓰고 40cm 이상 길어기며(일반형 이상) 타 제품보다 튼튼하다 대나무 1 그루당 죽비 1개 제품만 생산

신행수첩

지갑기능도 겸해 휴대가 간편 - 예불, 한공, 법회, 의례, 찬불가까지 - 신행생활과 성지 참배기를 오약기록
· 색상 회색검정 / 가격 25,000원

염꽃 불자시계

© 특별사은품 (달마시계 + 수입목재염주)
불자들만을 위한 염꽃 불자시계 항상 부처님을 생각하고 튼튼한 시계를 원하는 불자들에게 안성 맞춤인 시계
남성용,여성용 각각 119,000원

만다라 옥침

양손에 쥐고 움직여 주면 손바닥에 경혈을 자극하여 활액순환이 증진되고 고혈압, 중풍,치매 등 고질적인 성인병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가격 30,000원

합천 전통 한과

한과 등가구 (2.75kg) 150,000원
한과 진치망 2호(0.6kg) 22,000원
한과 바구니大 (1.8kg) 80,000원
한과 진치망 3호(1kg) 33,000원
한과 바구니中 (1.5kg) 60,000원
한과 진치망 4호(1.5kg) 45,000원
한과 오동나무 (1.8kg) 50,000원
경남 합천의 해인사 법경소리가 낭낭하게 울리는 가야산 자락에서 자란 찹쌀과, 깨, 콩등 청정 원료를 사용하여 현대인의 건강과 입맛에 맞게 재현해낸 우리 전통의 과자입니다

경 상

· 재질 ASH(느릅나무) 완전원목
· 규격 72Cm(가로) × 34Cm(세로) × 32Cm(높이)
· 가격 85,000원
· 가격 85,000원

사이버 에밀레 종

숭실대학교 전자공학과 배명진 교수가 첨단 공학 기술로 개발 성공한 원을 모들은 신종의 종소리를 완벽하게 재현하였다
· 정사각틀 에밀레종 210,000원
· 팔각틀 에밀레종 250,000원

옻 문양 실크스카프

· 소재 100% 실크(트윌) / 색상 아이보리, 네이비
· 규격 90 Cm × 90 Cm / 가격 30,000원

참선명상방석

· 일 반 30,000원 실용신안 79998-025009
· 숯기반 35,000원 의장등록 제 14087 호
· 황토반 35,000원 인체공학적 설계로 척추보호

백화향 선물세트

· 백화향 + 신자단향 + 천연목향 + 향꽂이
· 가격 50,000원

와 발 우

황토로 만든 수행자의 그릇
· 가격 :
4합 60,000원 (무게 2.7Kg)
2합 30,000원 (무게 1Kg)

라 면 기

게르마늄 성분이 함유되어 음식물 신화를 자연시키고 음식물에서 나는 냄새와 맛을 순화 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 라면기 4개 1세트 / 가격 18,000원